

# 海清堂

첫돌기념호  
2539년 봄  
다섯번째



송광사불교전문강원

## 화두 ‘해청당’을 놓으며

**재** 작년 늦가을 강원에 입방한 지 두 달쯤 되어 치문 난자 찾기도 바쁜 때였다. 해청당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더니, 단지 속가 때 문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편집위원으로 차출되었다. 처음엔 윗반 세 명, 우리반 세 명 해서 여섯이서 시작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치문반 햇병아리 셋이 남아 창간을 준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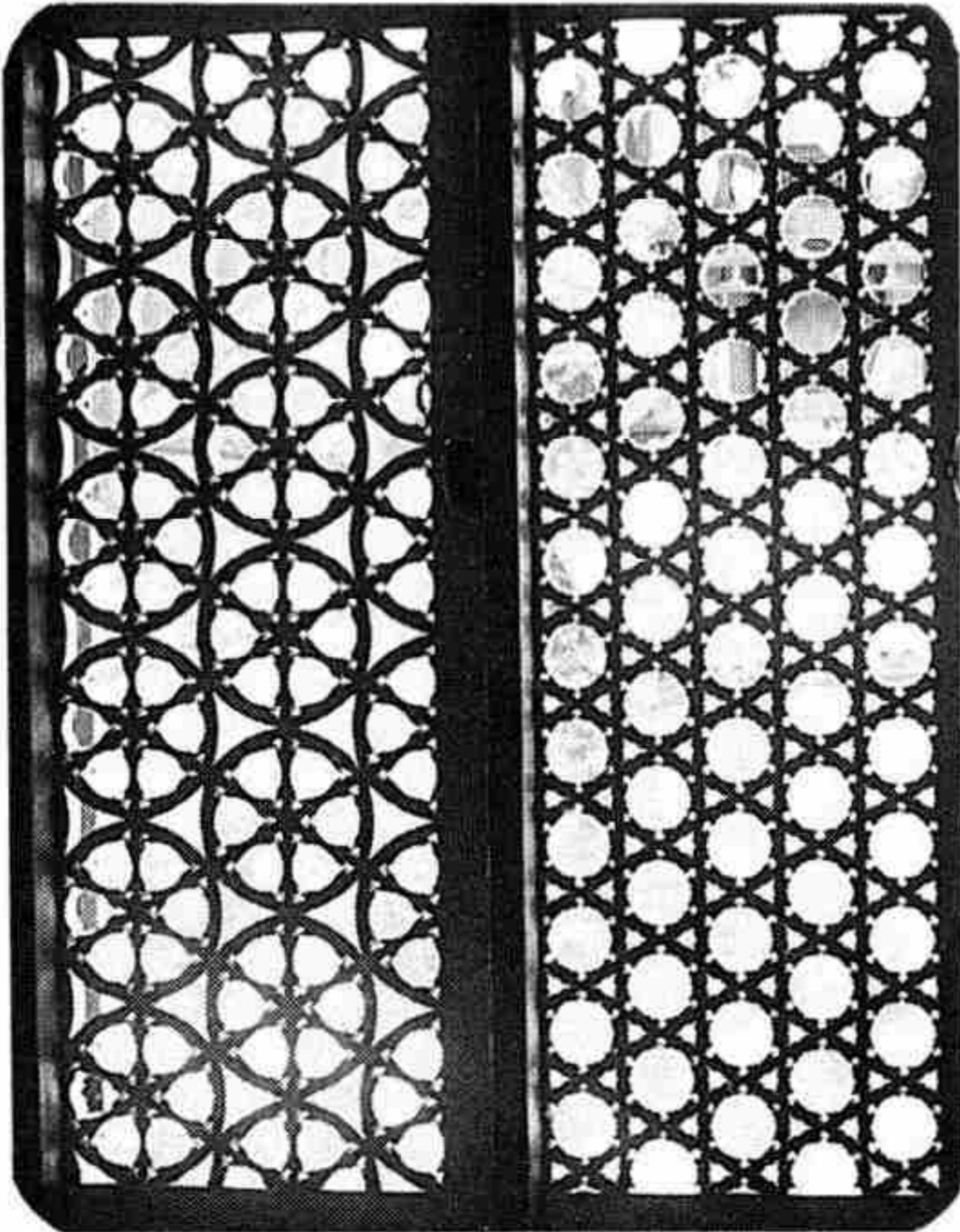
그때가 치문을 보기 시작하면서 신심이 솟아나 은사스님께 무자 화두를 받고 틈만나면 용을 쓰던 때였는데, 해청당에 매달리면서부터 무자 화두는 온데간데 없고 해청당만 머리속에 박히게 되었다.

해청당이 계간으로 나오다 보니 방학이 끝나고 새로 한철이 시작되면, 다른 스님들은 이번 철을 어떻게 짬지게 살아볼까 궁리하는데 나는 어떻게하면 이번 철 안에 무사히 해청당을 만들어 낼까로 고민해야 했다. 편집이 한참 막바지로 접어들 때는 논강 준비에 소홀하기 마련이어서 도반 스님들에게 눈총을 받고 속이 상할 때도 있었다.

더러 웃지 못할 일도 있었으니, 작년 치문반 스님들 중에는 유난히 도인이 많아서 시를 썼다고 가져오는 것이 오도송을 방불케 했다. 선지식의 인가를 받아오면 실어주겠다고 했더니, 두 스님이 방장스님과 ○○암 스님의 인가를 받았다며 꼭 실어달라고 떼를 쓰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한번은 해청당에 실린 ‘길손에게’ 를 읽고 ‘사평역에서’ 의 시인 곽재구 거사가 천호 스님을 만나고 싶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 지난해 늦가을 해청당에 보태쓰려고 부산 자갈치시장으로 한운 스님, 설주 스님이랑 셋이서 탁발을 나갔었는데, 리어카에 가득 실린 빨간 약호박을 보고 한운 스님이 “와! 이쁜 호박” 하니까, 주인 처사님이 호박 세 개를 들고 쫓아와 어시밭우에 두 개를 넣고 넘치니까 하나는 걸망에 담아주어 시장바닥이 웃음바다가 됐다.

해청당과 함께한 지도 어언 2년, 이제 나는 화두 ‘해청당’을 놓고 본분사로 돌아가려고 한다.

성철스님은 선문정로를 쓰시고 나서 이 책 한 권으로 ‘밥값을 했다’고 하셨다는데, 뒤를 이어 해청당을 만들게 될 후배 스님들도 열심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학인시절 해청당으로 밥값을 했다는 말을 나눌 날이 있길 바란다.



# 海 淸 堂

첫돌기념호

2539년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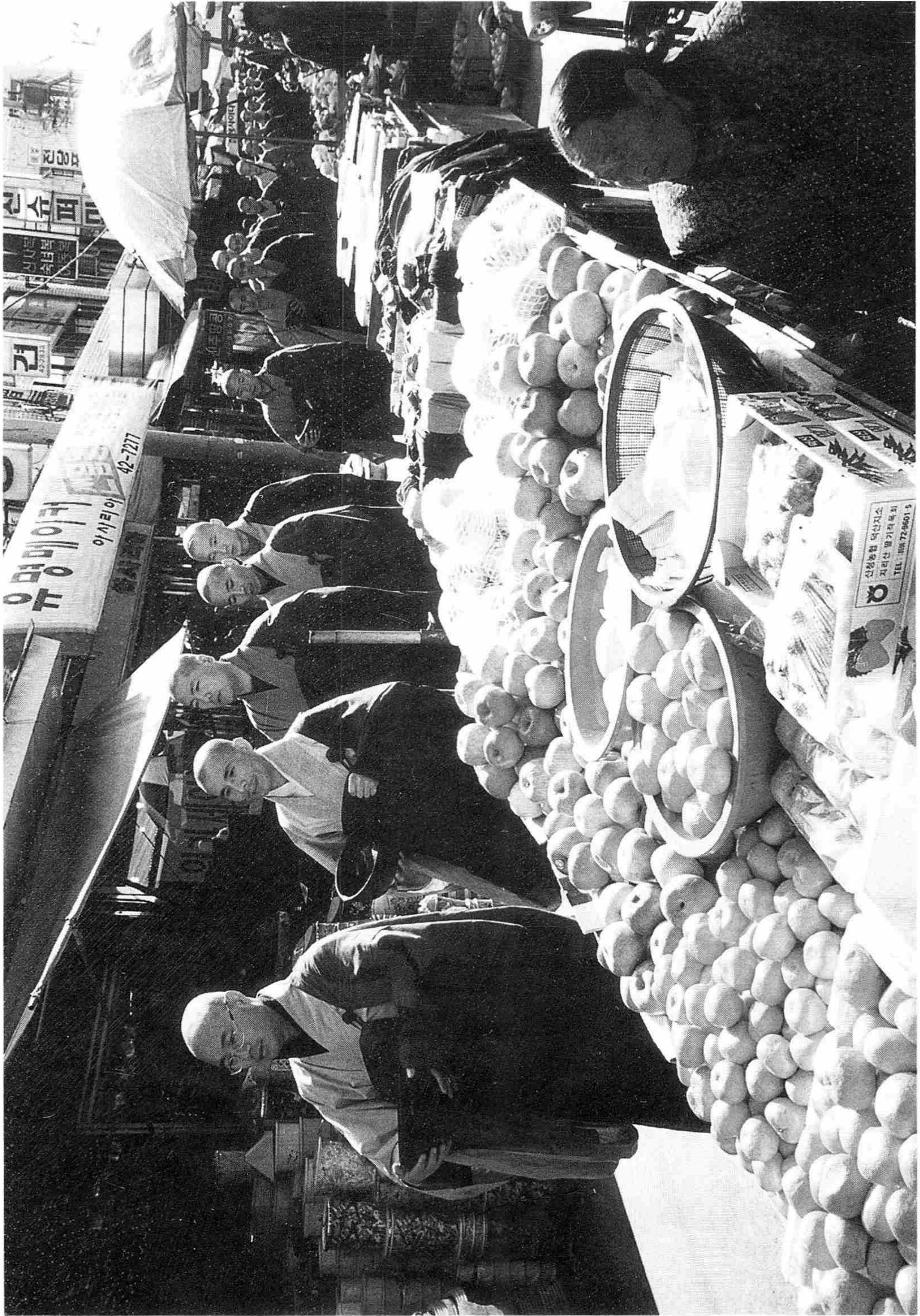
다섯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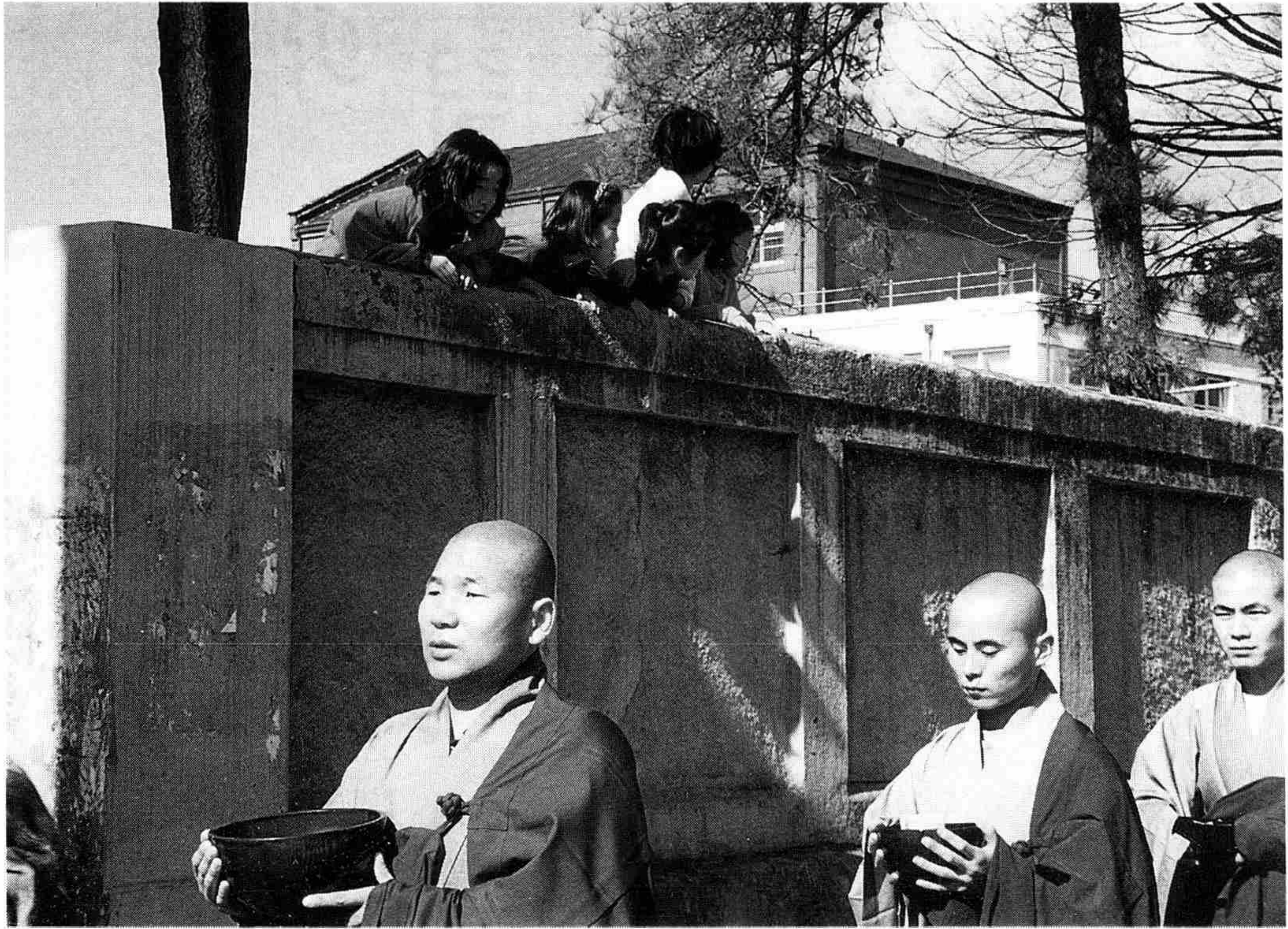
발행처 : 송광사 불교전문강원  
 발행인 : 승국 (입승)  
 발행일 : 2539년 4월 30일  
 고 문 : 지운 (강주)  
 편 집 : 보원 · 한운 · 설주  
 사진 · 삽화 : 한운  
 주 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 화 : (0661) 53- 2133  
 인쇄처 : 도서출판 보림  
 광주시 동구 서석동 62-1  
 (062) 232-6702

## 차 례

- 2 조계의 물소리 / 화두 '해청당' 을 놓으며
- 4 포토에세이 / 다음에 나도 가자 / 한운
- 48 기획연재 / 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다 / 지운
- ◆창간 첫돌기념 특별기획 / 21세기와 불교전문강원
- 12 21세기 한국사회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 / 현웅
- 18 열린 불교를 향하여 / 심재룡
- 22 좌담 / 불교전문강원의 위상과 역할
- ◆창간 첫돌기념 특집 / 다시보는 해청당
- 32 변소청소 하겠다 / 정왜
- 35 길손에게 / 천호
- 36 보원이 남쪽으로 온 까닭은 / 보원
- 38 혜관아 지금 뭐하나 / 혜관
- 40 쌍봉사에 있는 어린 부처님들에게 / 시공
- 43 바람따라 / 회일
- 56 시 / 연군 / 승국
- 63 길, 무모한 / 회일
- 64 산문 / 편지 / 진경
- 66 그리움 그리고 깨달음 / 정묵
- 74 바위 / 도제
- 76 치문반과 고양이 / 선용
- 54 순례기 / 관음성지 보타산 참배기 / 영진
- 58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부는 바람 / 연등
- 62 만행기 / 행각길에서 / 종지
- 57 일기 / 2539. 3. 31. 목우현 / 도강
- 70 편지 / 통영에서 온 편지 / 보철
- 72 도반스님에게 / 도선
- 69 입방소감 / 행자에서 사미로 / 보안
- 44 화보로 본 강원소식
- 78 안내

포 토 에 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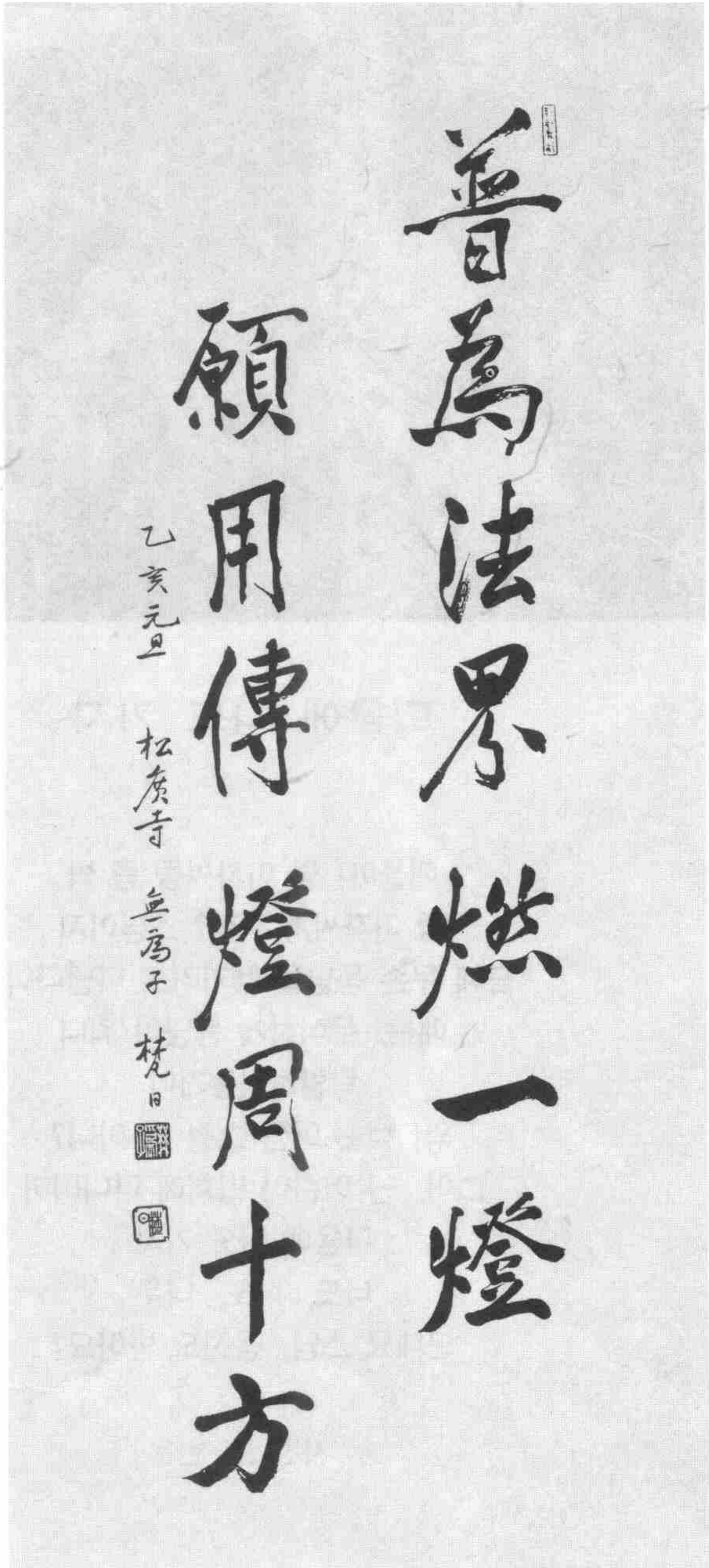


다음에 나도 가자

얘들아! 중 아자씨들 좀 봐  
중 아자씨가 뭐니? 스님이지  
근데 무슨 동냥을 떼거리로 다닌다냐?  
얘는, 무식하게 동냥이 뭐니  
탁발하시는거야  
와! 너는 어쩜 그걸 다 아니?  
그야, 난 어린이 법회에 다니니까  
다음에 나도 가자  
나도, 나도, 나두  
근데요 스님, 동전도 받아요?

사진·글 한운

해 청당 한 돌 을 축 하 합 니 다



법리 법외의 마음의 기쁨 밝히  
시방세계에 두루 등불을 전하게 하소서  
전체총림 영주 법음대장

# 해청당 한돌을 축하합니다

## 공 양

석성우 / 파계사

중생은 업에 이끌려 가지만  
보살은 업을 이끌고 간다.

어리석고 철 없었을 무렵  
먹거리가 넉넉치 않았던 시절  
대중 공양 받으면 공연히 즐거웠다

어느 회상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발우를 폈다가  
운문사 학인들이 탁발하여  
대중 공양 낸 것이라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거두었다

신심있는 스님이 준비한  
서른 두 가지 공양 받았을 때  
이러면 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공양거리가 좋으면

죄 짓고 업 쌓는 느낌이고  
먹을 것이 변변치 못하면  
무연히 섭섭하여  
혼자서 계면쩍게 웃는다

어느 중이 나이 팔십 생일이라 하여  
어느 중이 환갑이라 하여  
큰 상이 비좁게 장만한 공양상 앞에  
수저가 무거워 들지 못했다  
그게 전부 인과로 남는다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고암 보살이  
달여주는 차를 훌쩍 훌쩍 먹은 게  
큰 빛으로 남았음을  
이십여 년 지나고야 알 것 같다

이른 봄별 머금고  
흘러가는 석간수 한 사발이  
참으로 좋은 공양임을 ...

# 해 청당 한 돌을 축하합니 다

## 꽃 중

경문 / 청암사강원

오후의 햇살이

뺨뺨머리에서 구릅니다.

정랑가는 길 괴각스런 다리 위에서

천천히 걷는 척

물소리 훔쳐듣는

차수도 단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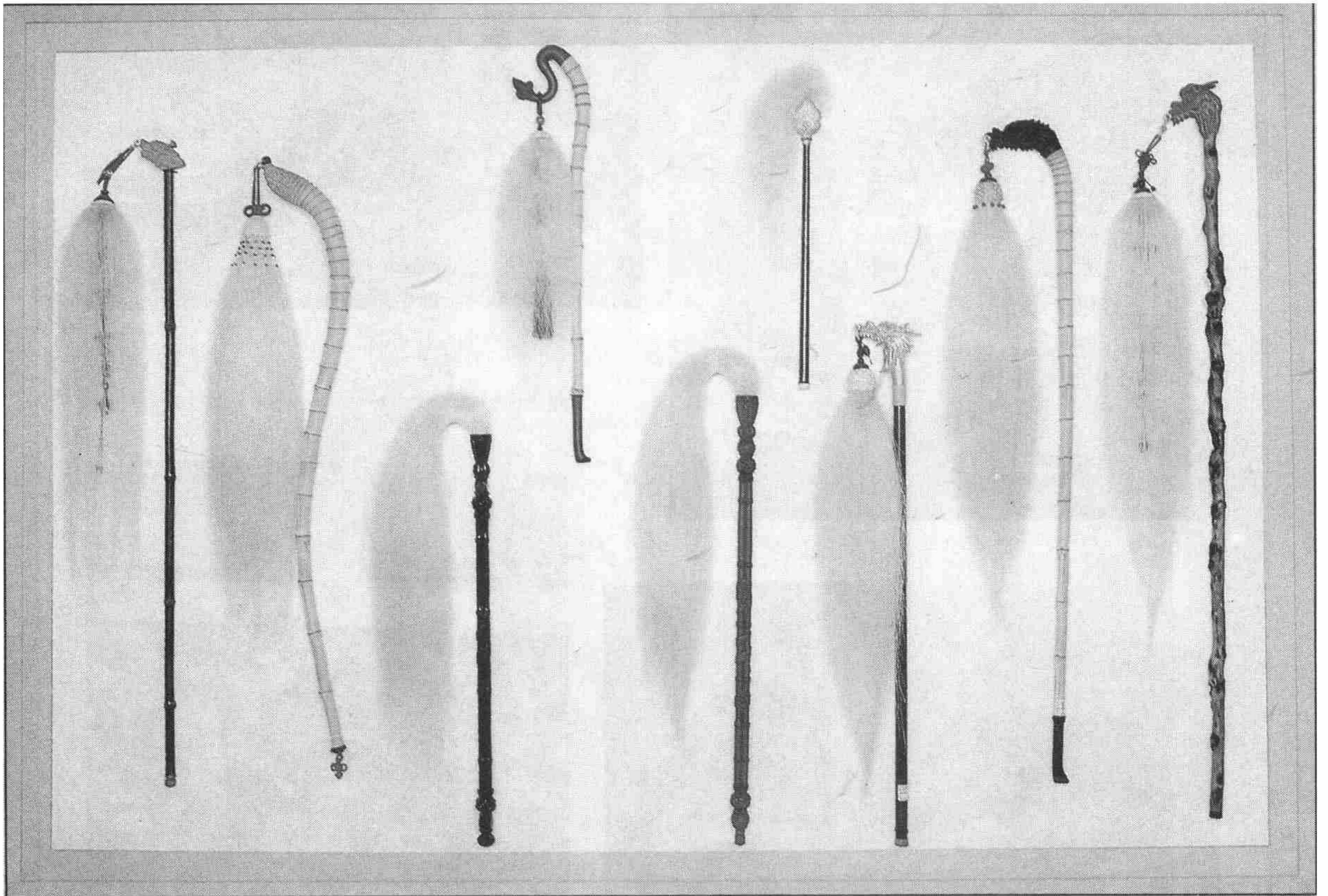
꽃중 하나가

점잖을 길게 빼며

거기 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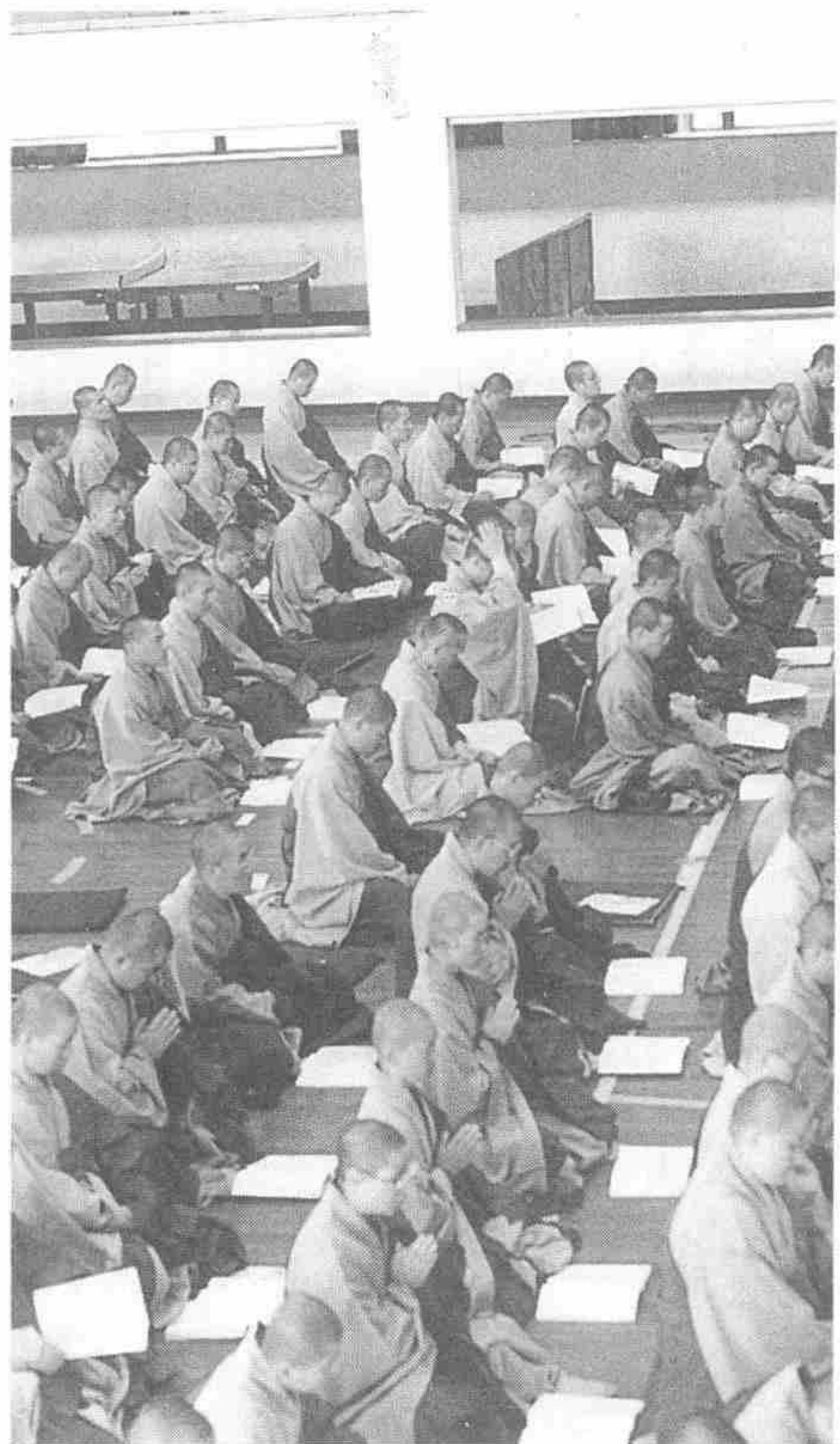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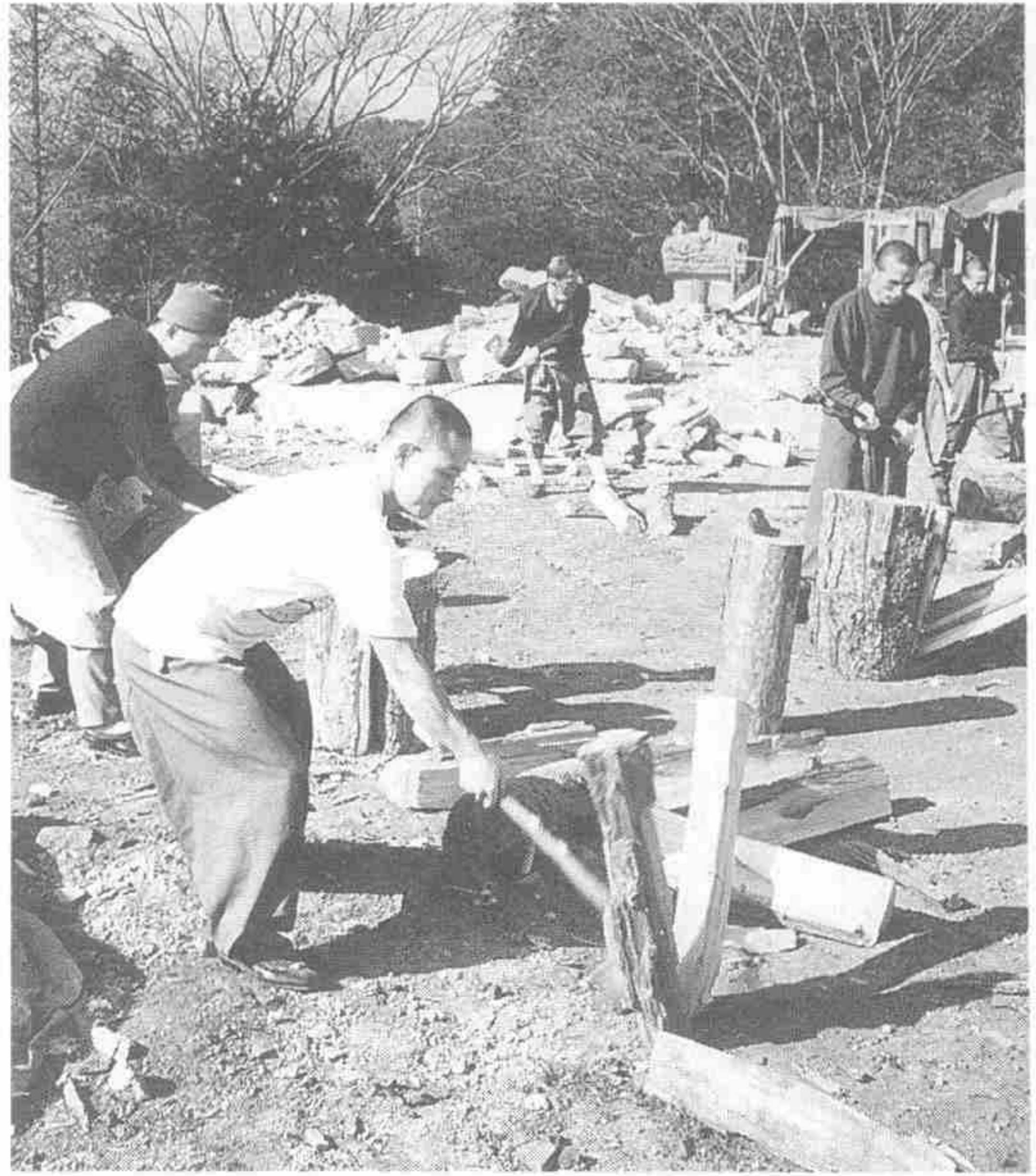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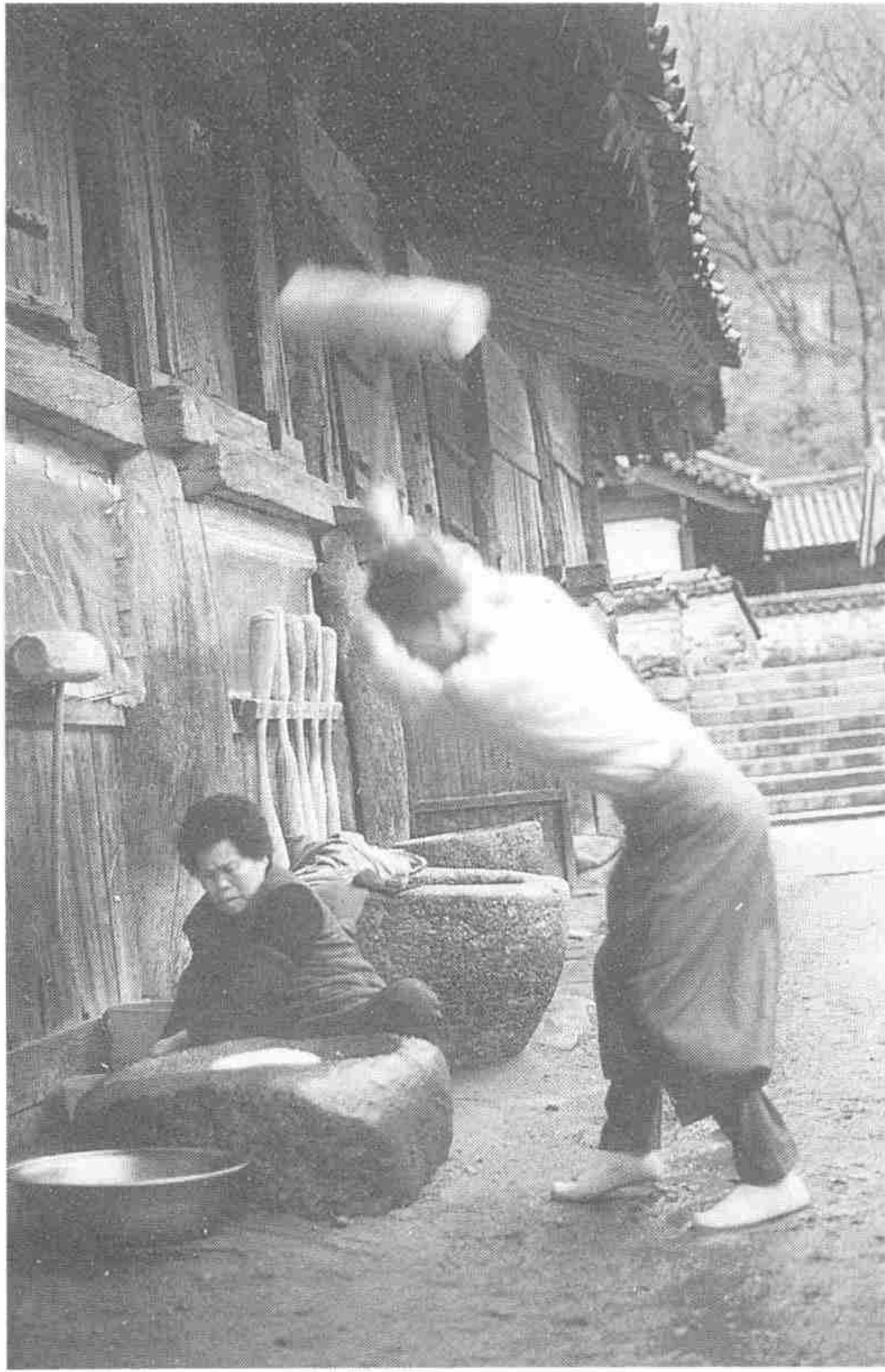


# 해청당 한돌을 축하합니다



불자 (拂子)

관진(觀眞) 김기찬 : 중요 무형문화재 제31호 낙죽 부문 전수조교로  
송광사 아랫마을에 송광공예를 열고있다.



『해청당』 창간 첫돌 특별기획

# 21세기와 불교전문강원

❖ 21세기 한국사회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

❖ 열린 불교를 향하여

❖ 좌담  
불교전문강원의 위상과 역할

## 21세기 한국사회의 전망과 불교의 역할

현응 / 해인사

### 현대와 탈현대의 갈림길에서

오늘의 세계는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북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이데올로기 시대가 퇴조하고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주도하는 거대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다. 더욱이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고도 산업화, 고속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정보·시장의 밀접한 교류는 명실공히 지구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하겠다.

20세기 중후반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이러한 현대사회의 변화는 보는 입장에 따라 후기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소비사회, 컴퓨터사회, 탈현대사회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변화의 동인(動因)은 아무래도 혁명적이라 할 만한 과학과 기술을 꼽아야 할 것이며, 그에 병행하여 언

어, 철학, 예술 등의 영역에서도 기존의 리얼리즘이나 모더니즘의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사상적 문화적 조류가 확산되어 과학, 기술 그리고 시장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의 사회를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를 탈현대사회(포스트모더니즘)라는 문화현상이라고 부르게 함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화 현상에서 보면 정치사회 제도는 앞으로는 점차 권력의 중앙 집중에서 지방분산으로 주민자치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경제도 계획경제에서 자율적인 경제시스템으로 기동성 있게 바뀔 것이고, 문화현상도 개별화·차별화·개성화 그리고 장르의 혼합현상으로 내닫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합리적 이

성에 근거하여 쌓아 올린 찬란한 현대문명이 또 한번의 거대한 변화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에 회자(膾炙)하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은 신(神)이라는 절대적 가치는 물론 합리적 이성, 객관적 실재 등에 근거한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을 거부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기독교 신학은 물론 데카르트 이후의 서구의 모든 합리주의, 칸트의 이성주의, 헤겔의 절대정신, 마르크시즘의 역사주의 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화조류에서는 설 곳이 없다.

문화조류라고 표현했는데 이를테면, 마르크시즘에서는 모든 문화현상은 경제적 토대라는 하부구조의 반영인 상부구조의 일종으로 규정하는데 반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문화와 정치, 경제 등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며 나아가, 문화적 형식의 생산과 교환, 그리고 소비 그 자체가 경제적 활동의 핵심적 표현이며, 경제적 실천의 요체로 본다. 즉 문화적 현상이 제반 사회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문화적 행사란 광고, 텔레비전, 대중 매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포스트포터미니즘에서는 합리적이성, 궁극적 근원, 근원적 실재 등에 입각한 총체론적 사회이론, 로고스 중심주의, 지식의 타당성 등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기호나 시뮬레이션에 의거하거나 그를 활용 또는 응용하는 개별적이고도 개성적인 문화적 현상이 모든 분야의 핵심적인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이나 이성, 그리고 거대한 역사관이나 특정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행위나 사고의 의미를 갖게 되는 근대적 혹은 현대적 삶에 중대한 변화가 왔음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유기적으로 얽히고 설킨 다양한 삶과 역사를 읽어내고 살아가는데 대단히 유용하고도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하는 반면 중심성이나 총체성 따위가 결여됨으로 인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적 현상인 해체화, 개성화, 개별화, 다원화, 혼합화되는 모습은 삶과 역사의 문제를 의미의 차원에서 기능적 차원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

불교야말로 지난 인류 사회에서 전개되어 왔던 사회주의의 꿈을, 지난 한 세기를 풍미했던 마르크시즘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딛고 서서 앞으로의 인류 사회에 새로운 역사관, 새로운 문화 운동으로 정면에 나설 준비와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판을 받기도 하며,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역사적 상대주의에 다름이 아니라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지난날 역사가 겪었던 절대주의의 폐해에 반발이나 하듯이 방향과 의미를 잃은 상대주의의 문제가 심각한 미래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  
**불교**는 중도의 가르침으로서 유와 무의 철학을 뛰어 넘고 절대와 상대의 사조를 지양한다. 지난날 신을 전제로한 세계관이나 절대적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횡행할 때 그것의 허구성을 지적하여 그 폐해를 극복하고자 했고, 허무에 빠지거나 극도의 상대주의에 빠져 의미와 방향, 목적 의식을 상실할 때는 그 소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악공적인 삶의 태도를 긍정과 의미의 역사로 이끄는 방편과 원력의 노력을 기울였다.

인류사회는 한동안 역사적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혼재한 속에서

전반적 현상은 상대주의가 우위를 점해 가리라 생각된다. 그만큼 마르크시즘의 역사적 실패가 뚜렷한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절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류의 사고와 행동의 경험이 축적된 데 비해 절대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상대주의 문제를 극복하는데는 아직도 불교의 가르침 이외에는 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즉 불교야말로 지난 인류 사회에서 전개되어 왔던 사회주의의 꿈을, 지난 한 세기를 풍미했던 마르크시즘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딛고 서서 앞으로의 인류 사회에 새로운 역사관, 새로운 문화 운동으로 정면에 나설 준비와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무아, 무상, 공 등으로 표현하는 불교의 깨달음은 실재론적 세계관에 익숙하거나 빠져 있는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오죽하면 반야경 등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역사적 실천에 대해서는 특히 대승불교의 가르침에서 보다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보살정신의 실천과 구현으로써 보디(깨달음)와 사트바(역사)가 결합된 역사적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보디(깨달음)의 가르침으로 모든 절대주의로부터 뛰어넘도록 하며 사트바(역사)의 실천으로 허무의 상대주의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승 불교의 기본 정신인 것이다.

‘실재를 부정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더욱 희유한 일일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기존의 익숙한 사유체계를 벗어나기 힘들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과학과 사상, 철학의 변화로 인해, ‘실체’나 ‘실재’를 설정하지 않은 존재의 모습이나 삶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인류의 문화적 수준이 근접해 있다고 본다. 즉 그토록 강조하고자 했던 깨달음의 세계가 인문·자연과학 등의 발달로 보다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다. 이제 불교는 이러한 중생사의 노력에 한걸음 더 나아가 깨달음의 세계에 방편과 원력으로 성취하는 보살의 바라밀과 정도의 투명한 비전을 덧붙이는 일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실천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본다.

불교에서 말하는 역사적 실천에 대해서는 특히 대승불교의 가르침

에서 보다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보살정신의 실천과 구현으로써 보디(깨달음)와 사트바(역사)가 결합된 역사적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보디(깨달음)의 가르침으로 모든 절대주의로부터 뛰어넘도록 하며 사트바(역사)의 실천으로 허무의 상대주의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승불교의 기본 정신인 것이다.

한편 보디(깨달음)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듯이 보살정신에서 말하는 사트바(역사)적 실천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되기도, 실천되기도, 구현하기도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고와 실천의 배후에는 그 어떤 목적, 의식이 있으며 그 목적은 여러가지 형태의 실재(신, 이성, 이데올로기 등)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 사고와 실천은 그 자신의 위치와 의미를 쉽게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보디(깨달음)로 인하여 실재를 전제하지 않는 삶에

있어서 사고와 행동은 무엇에 근거하여 실천한 말인가? 이 점이야말로 부처님 이래로 모든 반실재론적 가르침에 대한 의구심의 핵심일 것이다. 즉 실재를 인정(또는설정)하지 않는 그 자체도 이해하지 어려웠지만 설사 이해한다 해도 그 후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데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실재론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왕의 역사적 삶의 천편일률적 모습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역사적 현실은 이미 실재론의 언덕에서 서서히 배가 떠나고 있다. 이제 인류 사회에 필요한 것은 실재를 설정하지 않고도 의미와 가치가 충만한 그리고 열정과 즐거움에 가득찬 사고와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승불교에서는 그것은 가상적으로 설정하는 의도적인 목표와 목적 의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여환자비라고 표현하듯이 대승불교의 보살은 그가 행하는 실천(바라밀)과 원과 목표(정토)

그것도 가상적임을 전제하고 역사적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다.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방편, 원력, 정토가 설정되되 그것에 절대적으로 고착되지 않는다. 이점이 역사적 절대주의와 대승불교의 역사적 삶의 차이이다.

방편, 원력, 지(智)바라밀은 물론 보시 이하 선정에 이르는 모든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에 근거하고 있다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있다. 보디(깨달음)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의미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적극적인 역사적 실천에 대한 법화경의 가르침도 우리는 음미하여야 한다.

소승적 삶에 머물렀던 자신들의 태도를 고백하고 비판하는 대목은 물론 4제, 12연기의 수행도 최종적 가르침이 아니라 함은 무엇인가. 삶이 부정적 현상만 제거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보다 고귀하고 존중되어야 할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즉, 고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열반이며 그것이 완성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 락, 아, 정이라는 부처의 세계가 제시되며 십여시(十如是)라는 일불승과 불지견의 실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깨달음의 세계와 가상적 목표,



의도된 목적, 그러면서 치열히 전개되는 연극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반야, 법화, 열반, 화엄 등 대승경전에 누누이 설명되고 있다. 다만 오늘의 사고와 실천적 모습으로 구체화, 현실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절대주의를 극복하는데 인류사가 오늘까지의 시간을 소비했다면 상대주의를 극복하는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실체나 실재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삶의 목표나 지향점으로서의 가치체계를 설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인지는 법화회상에서 부처님이 이러한 설법을 하려고 할 때 깨달음을 나뉠대로 체득하고 있다는 5천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면전에서 퇴장하는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의 한국사회가 정치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된다면 그러한 나라와 민족, 또는 집단과 개인은 무엇을

목표 삼아야 하며 무엇을 향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는 한 세기 이상은 여전히 정치사회 제도의 많은 개선과 변화가 예상되고 경제적으로도 치열한 경쟁속에 풍요를 지향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과 민족과 개인에 따라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지금부터 부딪히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적어도 한 세기의 변화의 뒤편에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는 오늘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할 것이며 미래 인류사의 행복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보다 현실적으로 실현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루었을 때의 일을 생각함은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인류 사회적으로는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극복의 문제이지만, 사회과학적으로는 실재론이

주는 폐해를 피하면서 개별화 다원화 복합화 되어 가는 현실에 긴장감 있는 통일성과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정치철학, 사회철학이 대두되어야 하는 필요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경제·환경 문제의 해결이 행복의 최종적 보장이 될 수는 없다. 지금은 광범위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깔리는 거대한 상실감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인류사적 국면이라 보여지며 해결의 열쇠는 윤리, 가치, 의미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 한국 사회와 한국 불교

한국사회는 이미 지구촌이라 불리는 정보사회, 시장사회가 규정하는 전세계 역사와 문화의 흐름 속에 잠겨 있지만 한국사회만의 독특하고 특수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남한 사회와 북한사회라는 대립 분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가 그것이다. 남한사회는 상대적으로 세계사적 흐름에 익숙하게 적응되어 있고 그에 대처해 가고 있지만, 북한사회는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사회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이질적인 두 체제 아래 있는 민족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며 머지않아 그렇게 되리라 전망되는 상

황에서 특히 남한사회의 인내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남한사회 속에 불교는 통불교라는 독특한 종합불교의 모습이 정착하여 있다. 1960년대까지는 산중불교, 기복불교라는 사회적으로 동떨어진 섬의 모습이었던 70년대 중반 정부의 공원화, 관광화 정책 이후로는 남한사회의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불교 고유의 정신과 자본주의적 정신이 혼재된 것이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기복불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 특유의 사회안정과 유지의 기초적 윤리교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산중의 살아 있는 선종의 수행가풍과 교종의 남은 전통으로서 강원외경학연찬과 종립대학 등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불교연구 등이 한국 불교를 지켜 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행한 것은 최근 종단개혁불사의 추진으로 수행, 교육, 포교 불사는 물론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종합적인 점검과 그에 따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즈음에 한국불교가 놓치고 있거나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서 착안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와 역사를 읽어내고 그것을 불교정신으로 포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한반도 내에서 머지않아 합쳐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를 극복하고 감싸안을 크나큰 불교정신을 정립해 내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분단 현실에서 통일 이르는 과정에도 크게 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환희를 극대화하고 갈등과 상처를 어루만져 평화롭고 조화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불교가 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이전에도 그러하고 이후에도 한국사회가 세계사의 흐름에 뒤쫓아가거나 흐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노력이 뒤늦었지만, 서둘지 않으면 지금껏 한국불교가 세계사는 커녕 한국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시대도 그러하리라는 점이다. 정신적인 면을 주도하지 못하는 종교는 결국 기능적인 차원에 머물고 말아 잘나가는 법인체나 주식회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한국불교가 세계 어디서든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대승불교의 진면목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정립하고 교단적으로 펼치는 일이다. 즉 한국불교의 바람직한 정체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이것이



야말로 한국불교라 내세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진다.

선과 염불, 주력 등으로부터 법회 등을 통한 근래의 포교 활동이나 복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 불교의 모습인데 일면에서 보면, 세계 그 어느 불교국에서도 볼 수 없는 역동적이면서 다양한 면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라는 이름 밑에 전개되는 이러한 다양하면서도 역동적인 불교의 모습이 교리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분산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총합적으로 축적 전개되어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즉 자기 확신적으로 이를 통합해내는 구심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일본불교나 중국불교는 물론 동남아시아의 불교도 어떤 의미에서는 편향되거나 일면 적인 불교의 모습이고 서구의 유행하는 불교의 모습

이라는 것도 일본식의 선불교나 신비주의와 결합된 명상불교, 아니면 교리적으로 무언가 의심되는 티벳 불교식의 영혼재래설 따위의 불교 또는 학문적 불교일 뿐인 점을 감안하면 그토록 자랑하는 불교, 특히 대승불교의 정신이 가장 호기를 맞은 이 시대에 전혀 준비 없이 세기적 변화 앞에 초라한 기왕의 모습으로 세계문화의 전시장 한켠에 전시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 비단 한국불교 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사에서 불교란 것이 도무지 정신사나 문화사적 측면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는 매한가지라는 생각이다.

지정학적으로 문화적 토양을 통해 형성된 한국불교의 통불교 정신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값진 전통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어느 나라 민족에서도 볼 수 없는 뿌리 깊은 불심과 역동적인 행동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가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기여해야 할

몫은 매우 크다.

중요한 것은 세계 어디서도 교단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대승불교의 모습을 한국불교만이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한국불교의 가능성이 자 자랑일 것이다.

선과 염불, 정토와 보살의 바라밀을 대승불교 정신을 통해 교단적으로 정립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해 낸다면 그것은 대승 경전에서 그토록 그리던 불국정토의 세계를 구현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정신과 교리 체제를 통해 선, 염불, 바라밀을 결합하는 자기 확신적인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이루어 내는 일은 비단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이 글은 지난 3월 21일 포교원 주최, 포교 청사진 연구 세미나에 발표되었음. -편집자



# 열린 불교를 향하여

심재룡 / 서울대 철학과 교수

1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는 애시당초 21세기라는 시간도 무시하고, 한국이라는 공간도 넘어서는 초월 그 자체다. 거기에 불교니 철학이니 문학이니 하는 군더더기를 덧붙일 수 없다. 묘고봉 정상에서 깨침 한번에 영원한 순간을 살아버린 부처님의 시간적 공간적 '사건'을 '기억'한다. 이미 기억했으니 그 사건은 과거로 흘러가 버린다. 그 사건을 극화하여 표어로 만든 선종의 돈오돈수까지도 이미 '돈오돈수'라고 하는 순간에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시간을 무시하는 열반 곧 영원의 대자재를 지향하는 살불살조의 정신은 21세기가 오거나 말거나 우리 한국불교가 지녀야할 치열한 수도 정신으로 살려야 한다.

21세기라고 해서 따로 무슨 특

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매순간마다 석가모니의 깨침을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 땅 한국에서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을 재창조할 적마다 벌써 우리는 그 돈오적 사건을 '반복하는 돈수'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돈수를 거듭 반복한다면 시간이 들 어간 점수이다. 이것이 송광사를 중창한 보조국사 지눌 스님께서 평생을 진력하여 간절하게 수행의 준칙으로 삼으라 가르치신 돈오점수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점수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참다운 의미에서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한국불교를 매순간마다 재창조하는 것이다.

2 그렇다. 우리는 돈오돈수에 만 매달려 불교의 역사와 인생의 무상을 무시할 수 없다. 오

히려 부처님의 진정한 깨달음은 역사를 치열하게 살다간 팔십 평생 구도와 전법의 생애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어찌하여 고타마 신타타를 위요한 다섯 분만의 조그만 수행집단이 북인도를 밝히고 중국을 감화하고 한국을 불국토로 만든 다음 일본은 물론 이제 전 지구인류를 위한 세계의 등불로 불타오를 수 있는가? 물론 묘고봉 정상에서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불교의 영원한 진리를 지금도 설파하신다. 설파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중생은 영원한 깨달음의 자리로부터 한 발자국도 떠나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돈오돈수라는 부처님의 원초적 패러다임이 그 돈오돈수에 묶여 '영원한 현재'의 묘고봉 정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 이 한국 땅에서 불교를

이제 불교는 그 제국불교의 모습을 잃고 각 지방의 문화와 정치적 단위인 국가의 경계에 묶인 채 국가 - 문화불교로 또는 몽고 민족 한국 민족 일본 민족 등의 민족적 단위불교로 현재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21세기에 대처하는 한국불교의 자세를 점검하는 이 자리도 불교가 국가단위, 문화단위, 내지 민족단위에 묶여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불교는 국가와 문화와 민족에 묶일 성질의 것인가?

운위 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원 초적 깨침의 사건은 벌써 역사의 부처님 살아 생전 인도라는 땅에 접지하고 뿌리를 내린다. 이로부터 불교의 역사요 현재가 살아 움직인다. 우리는 21세기에든 계속해서 불교의 역사화와 현재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 불교의 과제는 20세기건 21세기건 언제나 영원의 현재를 역사적 현재로 탈바꿈시키는 사건을 만들어 가는 용기를 지남에 있다. 구들장을 떠났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 출가의 용기를 지닌 사문들에 있어서라! 묘고봉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용기로 21세기와 세계를 초월하는 한국불교의 참 모습을 보여 줄 일이다.

**3**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원한 진리는 그 분 살아 생

전 인도에 뿌리를 내리더니 급기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아육왕에 의해 제국불교로 탈바꿈한다. 당나라의 현장법사가 인도에 유학하고, 신라의 혜초가 천축의 다섯 나라를 돌아다니는 시절의 제국불교가 앞으로 세계화의 21세기에 다시 구현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아육왕의 선도로 시행된 불교의 세계화 덕분에 불교의 진리가 잠시 인도에서는 사라졌어도 중국이라는 대승불교의 제2중심과 그 주변부에서 중국불교요, 티벳 불교요, 태국불교요, 한국불교라는 각 지방의 문화와 결합한 모습으로 살아남은 역사적 기적을 보여 주었다. 이제 불교는 그 제국 불교의 모습을 잃고 각 지방의 문화와 정치적 단위인 국가의 경계에 묶인 채 국가 - 문화불교로 또는 몽고 민족 한국 민족 일본 민

족 등의 민족적 단위불교로 현재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21세기에 대처하는 한국불교의 자세를 점검하는 이 자리도 불교가 국가단위, 문화단위 내지 민족단위에 묶여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불교는 국가와 문화와 민족에 묶일 성질의 것인가? 더군다나 어느 문종의, 어느 종파의, 어느 절이라는 틀 속에 갇혀질 성질의 불교인가?

**4** 마침 서양 기독교 시간 단위의 천년 이천년을 잠시 빌려서 우리의 시간적 공간적 자리매김을 시도해 보자. 한국불교 속에는 지난 이천 육백년 불교의 역사가 고스란히 재생하고 있다. 생물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개체발생이 계통발생을 반복한다고나 할까? 어느 절에는 국태민안과 아들딸들의 대

현재 한국불교의 모습은 지나온 불교 역사의 축소판 같다. 다양성을 추구한다며 감사해야 할까? 그러나 개방성과 폐쇄성, 이 두가지 잣대를 놓고 생각할 때 한국불교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역사의 현장을 계기로 저 너른 세상으로 내닫는 한국불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태계의 파괴를 함께 생각하며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생활운동을 펴시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움직임도 보인다. 한국불교가 단지 한국만의 우리 불교가 아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 반대로 한국이라는 중간 크기의 집단이 고사하고 그저 조그만 문중들끼리는 속가의 족보를 모방하여 스승과 제자의 법맥을 둘러싼 집안싸움에 열중하거나, 한 술 더 떠서 아예 한국불교 가운데 어느 종단을 통째로 재단하려는 듯 종권다툼에 연연한 권승들의 아수라장도 연출된다. 종파끼리의 파쟁과 권력승계, 집안끼리의 보신과 작은 행복의 추구, 너른 인류애의 발현과 세계동포 내지 유정무정 중생들의 복지증진 활동 등 불교활동의 무지개같은 배열을 바라보노라면 현재 한국불교의 모습은 지나온 불교 역사

학입시 백일기도도량을 설치하는 등 좁은 테두리의 혈족과 씨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작은 집단으로서의 불교적 행사가 눈에 뜨인다. 한편 여러 이름으로 국제적 감각을 지닌 단체들의 모임과 그 활동도 다양하다. 특히 전쟁과 평화에 슬픔과 기쁨을 같이하는 남북이산동포와 전세계인류의 문제에 동참, 그 해결에 진력하는 단체와 스님들의 노력이 눈물겹도록 진지하다. 세계 국제적 문제라면 특히 환경과

의 축소판 같다. 다양성을 추구한다며 감사해야 할까? 그러나 개방성과 폐쇄성, 이 두가지 잣대를 놓고 생각할 때 한국불교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세계와 우주로 열린 한국불교가 되느냐? 묘고봉의 정상에서 대도무문을 사자후하겠느냐? 방구석에서 우리끼리 잘 살기로 작정하겠느냐?

대답은 분명하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역사의 현장을 계기로 저 너른 세상으로 내닫는 한국불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열린 한국불교의 원년은 언제쯤일까? 어제는 지나가고 없고, 내일은 오지 않아 없다. 우리는 이제 한국불교를 열어야 한다. 묘고봉이 어디 따로 있지 않다. 불교의 참 생명을 여기서 살리는 것이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불교의 자세이겠다. 보조 스님의 말씀을 빌리면 한국불교는 이제 영원한 돈오를 역사 속에 점수해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침을 공간화하고, 유아독존의 대도무문을 이 땅에, 여기서, 언제나 펼치는 역사의 현재화를 실현할 것이 요청된다. 한국불교가 21세기를 준비하는 자세는 오로지 불교의 개방적 원형에 충실히 사는 길이 있을 뿐이다. '물길는 사람은 물길고, 나무팔 사람은 나무판다.'

5 잠시 고개를 돌려 한국 절집을 바라보자. 사방은 벽도 없이 열린 채 사부대중의 참여를 환영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자는 개방형이다. 불교의 원형에 가장 충실한 한국 절을 아파트처럼 패쇄형으로 개조하는 작태를 벗어나자. 거기다 숨쉬는 나무를 마다하고 온통 시멘트로 개칠하는 끔직한 반생명적 행위를 불식하자. 자연에 가장 가까운 한국불교의 물리적 환경을 원형대로 보

존하는 일도 21세기를 준비하는 한 가지 몸짓일 수 있다.

사문의 사문됨은 구들장을 걸머진 관습의 노예이기를 거부하는 결연한 출가의 태도에 있다. 재가불자의 재가임은 감탕에 뿌리를 내렸어도 연꽃을 피우는 보살도의 만행에 있다. 진흙 속에서 남의 티끌을 찾아 닦하기 전에 우리 모두 가슴을 열고 우리 눈 속의 눈병을 제거할 일이다. 나와 너의 높은 담을 헐어내고 우리의 탁 터진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제까지 우리는 불교의 과거에

서 미래를 읽어내는 작업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준비하자고 다짐하였다. 이제까지의 한국불교 속에는 닫혀진 모습과 열린 모습이 병존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열린 한국불교는 이미 한국만의 불교가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한국불교가 살길은 한국불교 속에 불교의 영원한 현재를 살리는 길이 있을 뿐이다. 불교의 영원한 현재는 그 개방성에 있다.

열려진 한국불교여, 영원하라!



특별기획

# 좌담

## 불교전문강원의 위상과 역할

- 무엇을 계승하고, 개선하며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참석자 : 지운/강주 진경/대교 정목/사교  
 한복/사집 설주/사집  
 사회 : 보원/편집장  
 좌담일 : 2539년 4월 8일



보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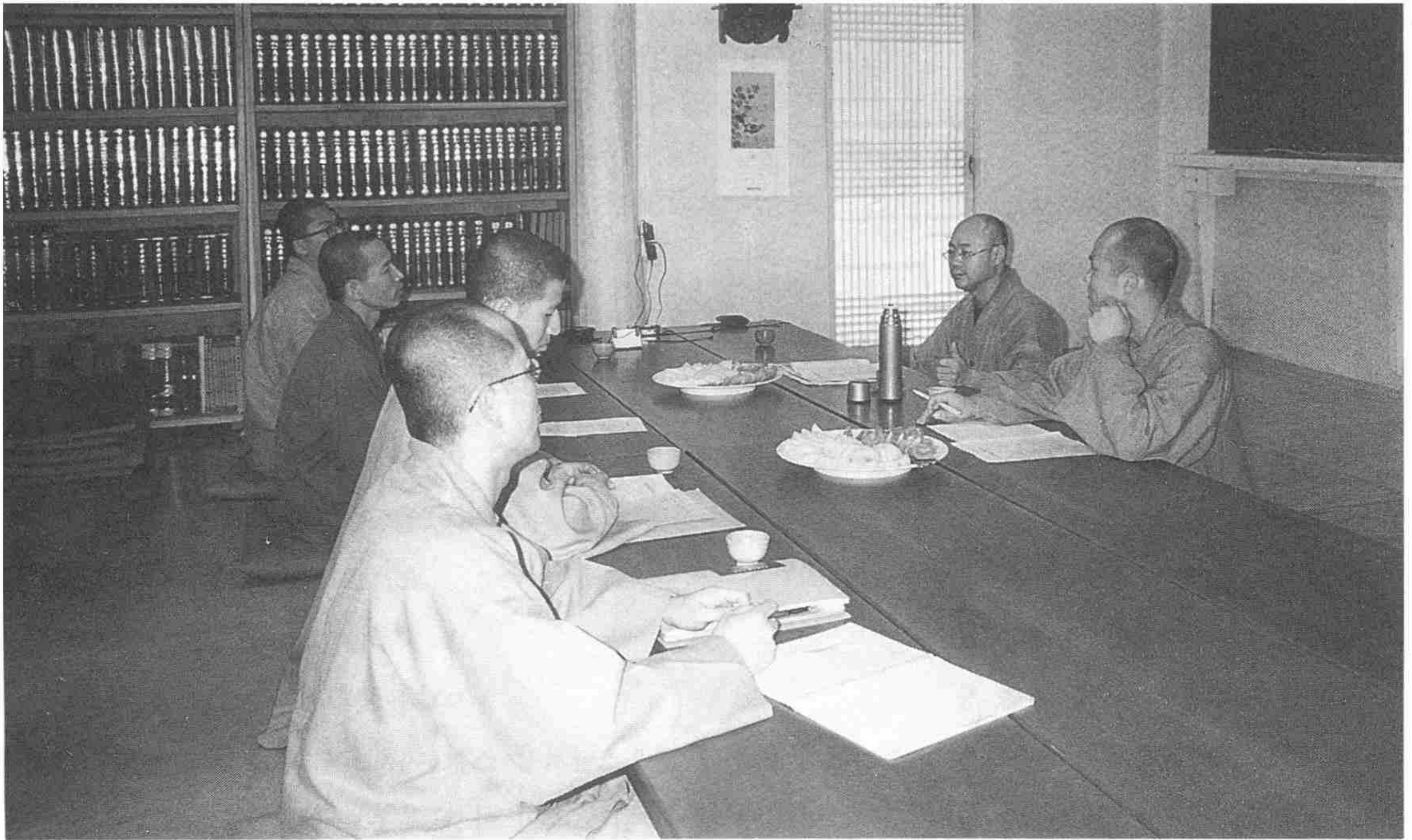
### 왜 불교전문강원인가?

**사회** : 현재 전통 강원 중에서 유일하게 송광사 강원만 불교전문 강원이란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 지방승가대학이고, 각 강원 역시 스스로 승가대학이라고 부르고 있

는데, 유독 송광사만은 작년 6월 부터 승가대학이라는 현판을 내리고 송광사불교전문강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 강주 스님께 그렇게 된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강주** : 작년 4월 15일에 범주사에서 전국 강주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구종법회가 성공한 직후여서 우리 강원도 전통 그대로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승가대학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강원도의 전통과 내용에 맞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어요. 대학이란 명칭을 쓰면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생활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실질적인 강원생활과 거리가 큼니

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은 학문하고, 교육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승가 공동체에 맞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출가해서 계를 받으면 그대로 수행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 수행법이 계·정·혜 삼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행은 그만두고 학문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출가수행자의 가장 큰 목적은 학문도 교육도 아니고 오직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대학이라는 명칭이 불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불교전문강원으로 고치자고 건의를 했지만 제도 개혁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아서 승가대학이라는 명칭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정목 :** 저도 강주스님의 의견과 같은데요. 승가에서 강원이란 고유한 이름을 두고 대학을 선호하게 된 데는 승가가 속세보다 못하다는 자괴감 내지는 자기비하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대가 승속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시대라고는 하지만, 승가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질 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 세속을 쫓아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주 :**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하는데 몇 년 전에 선우도량에서 토론할 때 깨달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

왔어요. 현대사회 그 자체가 고택(苦海)이고, 현대사회의 갖가지 병리현상이 고의 다양한 표출이므로 깨침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택을 해결해 주는 원리이고, 고택이라는 것이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인류적인 문제이니까 깨침으로 고택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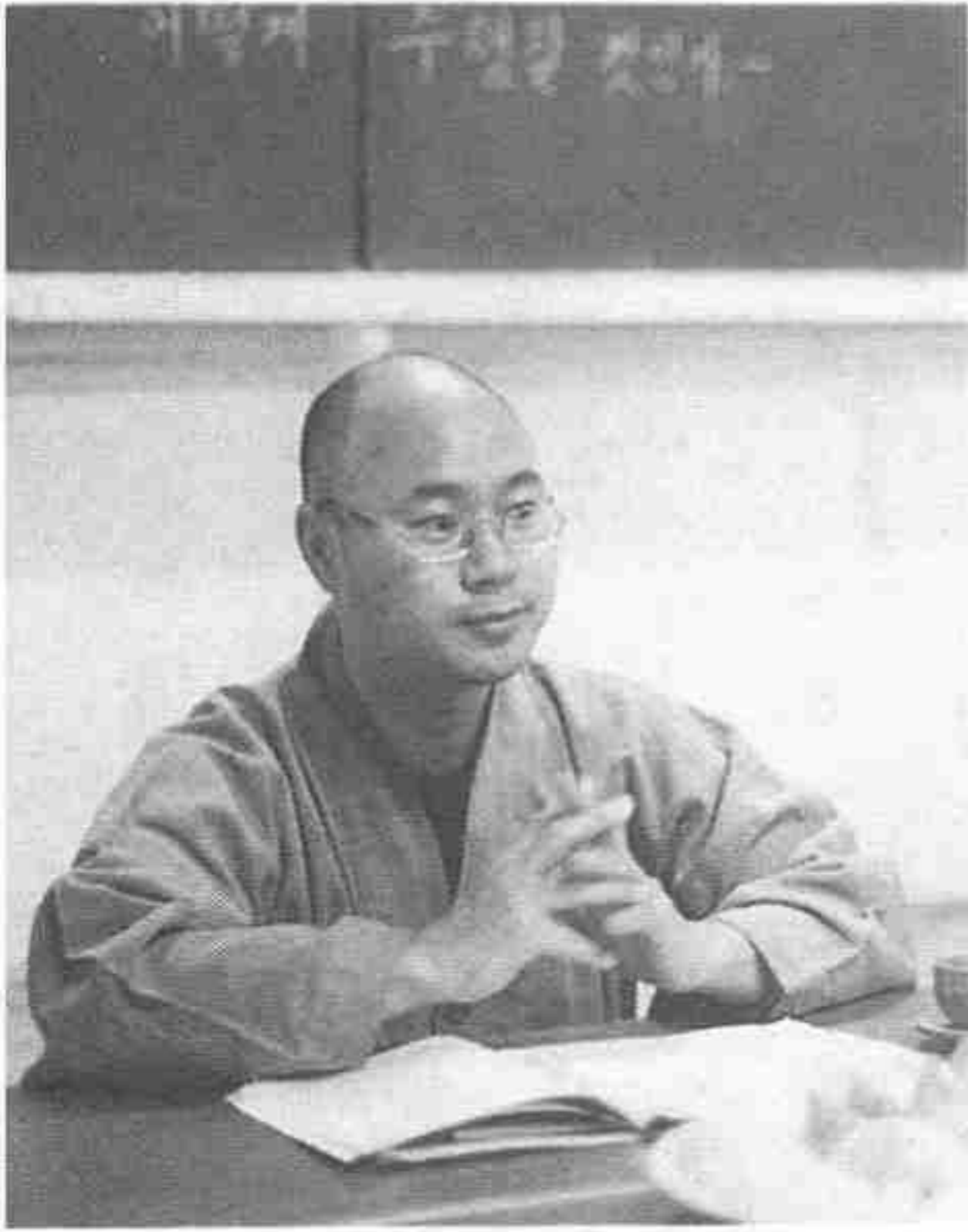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깨달음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 강원과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의 비교

**사회 :**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왜 불교전문강원이라 써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편의상 불교전문강원을 강원, 전통강원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신 스님이 두 분 계신데, 이 두 교육기관과 전통강원을 비교해 보는 것도 불교전문강원의 위상을 알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복 :** 제가 보기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승가대는 4년에 걸쳐 약 70여 개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70여 과목을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넓게 배운다는 의미이겠지요. 거기서 어학부터 해서 불교와는 관계 없어 보이는 논리학, 서양철학같은 과목이 들어 있거든요. 중앙승



강 주 스 님

가대는 넓게 배운다는 장점이 있고, 강원은 깊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은 글을 한자한자 새겨 가면서 그 한자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파헤쳐가는 방식이니까요.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 : 수행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복** : 출가자는 삶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비교하자면 중앙승가대는 아침 예불에 참석하고, 아침 발우공양하는 것으로 대중들이 함께 하는 시간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루 세 번 예불과 공양을 여법하게 함께 한다는 면에서는 비교되는 부분이지요.

**설주** : 저는 동국대를 졸업하고

대학은 학문하고 교육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승가공동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출가해서 계를 받으면 그대로 수행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행은 그만두고 학문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출가수행자의 목적은 오직 깨달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출가했기 때문에 한복스님처럼 스님으로 대학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서 양쪽을 비교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종합대학 내의 단과대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적 성격이 강하고, 위상도 그 안에서 규정된다고 볼 때 중앙승가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과 성격이나 위상이 거의 같고, 불교대학에서 불교를 배운다는 것도 정치학과 학생이 정치학을 배우듯이 불교를 배웠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개론서를 배우고, 배운다는 것도 일반적인 지식을 교수에게 돈주고 산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학교가 도심지에 있고 세속 사회의 논리와 방법론이 도입되다 보니까 불교를 접하더라도 수행적인 측면보다는 학문적인 측

면과 사회적 기능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저와 같은 범주를 넘지 못한다고 보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동국대 불교대학이라는 것이 일반 대학의 성격이 강하고 수행처라기 보다는 세속적인 측면이 강하게 지배를 하니까요. 스님들이 거기에 와서 학문과 지식을 산다고 봐야지요. 속인들과 계속 접하고 살다 보니까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강원에 와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강원에는 산다는 자체가 수행이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치문을 배우더라도 그 지식을 받아들여 어디에 써 먹을 이유도 없고,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자신에게 돌려서 수행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 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답답할 때도 있는데, 강의나 논강을 할 때 보면 강원이 옛날 텍스트를 그대로 쓰는 훈고학적인 전통이 강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기초 교리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벽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복** : 개개인의 수행 생활을 보면 중앙 승가대에도 천수다라니를 10만독 한다든지 관음주를 한



다든지, 아침마다 몇 백배씩 절을 하는 스님도 있고, 선원에 있다가 스님은 계속 화두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과 승가대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식 교육도 받아야 하고 산중에서의 강원과정도 반드시 거처도록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정목** : 저는 출가할 때부터 선 수행보다는 불교학생회 등 불교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불교를 사회운동과 연결시켜 보고 싶은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승가대에 가고 싶었는데 은사스님이 강원로 가라고 강력히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강원로 들어 왔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강원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형식에 얽매어 어떤 치열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이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공헌할 수 있겠나 고민해볼 때 강원교육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절망을 샅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승가대에 가려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도심 포교당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포교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뼈저림이었습니다. 사회와 일반 신도들이 스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짜 수행자의 모습이지 말을 잘



진 경

요즘 들어 불교 고유의 언어를 버리고 학인을 학생으로, 강원을 승가대학이라 부르는 등 세속을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승가부터 불교전통을 잘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다시 불교문화를 사회에 확산시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학력이 좋은 스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과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합일이 안되더라구요. 신도들을 만나서 부처님의 훌륭한 말씀을 전해 주지만 제 자신이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생활을하면서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원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활을 구태의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이

먹어 출가한 초심자에게 속가의 습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생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강원을 초심자가 수행의 기초를 닦는 곳이라고 봅니다.

## 강원은 교육기관인가 수행기관인가 ?

**사회** : 지금까지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강원은 학문하고 교육받는 곳이라기보다는 수행하는 곳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의 교육 체계에는 강원을 지방 승가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 기초선원과 함께 기본교육 기관으로 편성되어 있고, 종단이나 선우도량 등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교육받는 걸 수행으로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진경** :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불교가 민족문화를 선도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와 근세를 지나면서 불교가 탄압을 받고 침체되면서 오히려 세속을 따라가는 풍조가 생겼다고 봅니다. 언어를 살펴봐도 세속에서 불교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 요즘 들어 불교 고유의 언어를 버리고 학인을 학생이라 부르고 강원을 승가대학이라고 하는



## 정 목

등 세속을 쫓아가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승가부터 불교 전통을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다시 불교문화를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지식을 추구하고 학문을 하려고 했다면 세속 대학원을 진학했지 출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출가한 목적은 수행해서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지, 무슨 세속적인 알음알이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강원은 어디까지나 수행기관이지 교육기관은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설주** : 제가 보기에는 강원을 수행기관으로 보는 시각은 송광사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강원이나 제방에서는 강원을 경전이나 어록을 배우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고, 강원의 위상도 그만큼 격하되어 어정쩡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수행기관이라

면 그 위상에 맞는 수행방법과 체계가 잡혀있어야 하는데 간경하고, 강의 듣고, 논강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지만 우리 생활을 살펴볼 때 간경할 때 대충 즐기고, 강의할 때 대강 듣고, 논강할 때 어물어물 넘어가다 보면 세속 대학에서 학문하는 것보다 못하게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강원이 진짜 수행기관이 되려면 선원에 좌선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경하고, 강의 받고, 논강하는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으로 돌려질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수행체계가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강주** : 참 굉장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자신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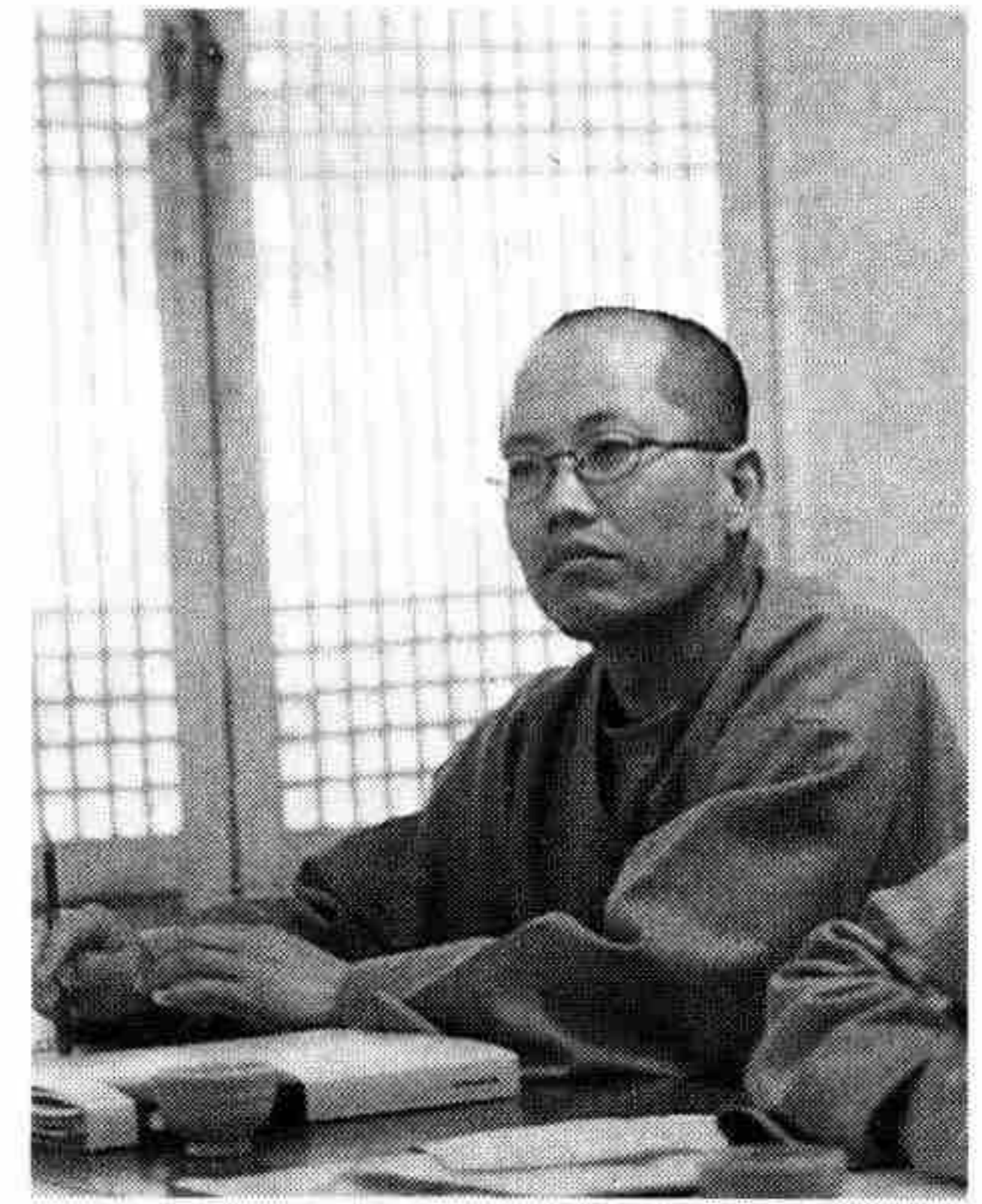
사회의 일반 신도들이 스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짜 수행자의 모습이지 말을 잘하고 학력이 좋은 스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강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려면 강원에 맞는 수행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불법

자체가 수행을 통해서 깨칠 수 있는 것이지 학문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거예요. 수행 방법은 회광반조 외에는 없는 것이고, 회광반조의 원동력은 다르마 곧 법에 있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법이고, 조사어록, 논서의 내용도 다 법인데, 법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인(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 찻잔을 예로 들자면 고정되어 있고, 형태가 있고, 다른 사물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데,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찻잔은 깨질 성질 즉 무상성을 가지고 있고, 본질이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기존의 사고방식이 깨지게 되어 있는데, 깨달음이란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익히고 조사어록을 공부하는 것으로써 지혜가 개발되는 겁니다. 즉 강의를 듣는 것도 수행이고, 법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수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행위가 법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은 생사해탈이지, 그 외에 관심을 둔다면 수행자가 아닌 것이고,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바

중앙승가대는 넓게 배운다는 장점이 있고, 강원은 깊이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과 승가대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대식 교육도 받아야 하고, 산중에서의 강원과정도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한 북

로 생사해탈에 모든 관심을 돌리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경전에서 보면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아라한이 된 예가 있고, 조사어록을 보더라도 선지식과 문답을 나누다가 언하에 대오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도 언어를 사용하시고 선사들도 언어를 사용하셨지만, 누구도 그 분들이 학문을 하고 교육을 하셨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전이나 어록을 자세히 보면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비유를 든다든지, 부정적 논법을 사용해서 언어의 한계와 맹점을 극복하고 바로 불립문자의 세계, 즉 깨달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식은 유동적이고, 지혜는 불변이라는 겁니다. 지식위주로 불법을 습득한다고 하면 지혜는 개발되지 않지만, 지혜를 목적으로 공부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수

행인 겁니다. 따라서 지식위주로 공부한다면 강원은 학문하고 교육받는 곳이지만, 지혜 개발을 위주로 한다면 강원은 수행기관인 것이지요. 따라서 승가에서 교육이다 학문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불교를 세속화시킬 뿐만아니라 말살하는 거예요.

**정묵 :** 저는 속가 때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교육의 개념은 그 사회체제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사회 내에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피교육자가 이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장(場)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형태는 교육자, 피교육자,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속대학에서 교육의 주체는 교수입니다. 즉 교수를 중심으로 학문 연구가 이루어지고, 정보 지식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승가의 교육형태는 출발부터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승가에 참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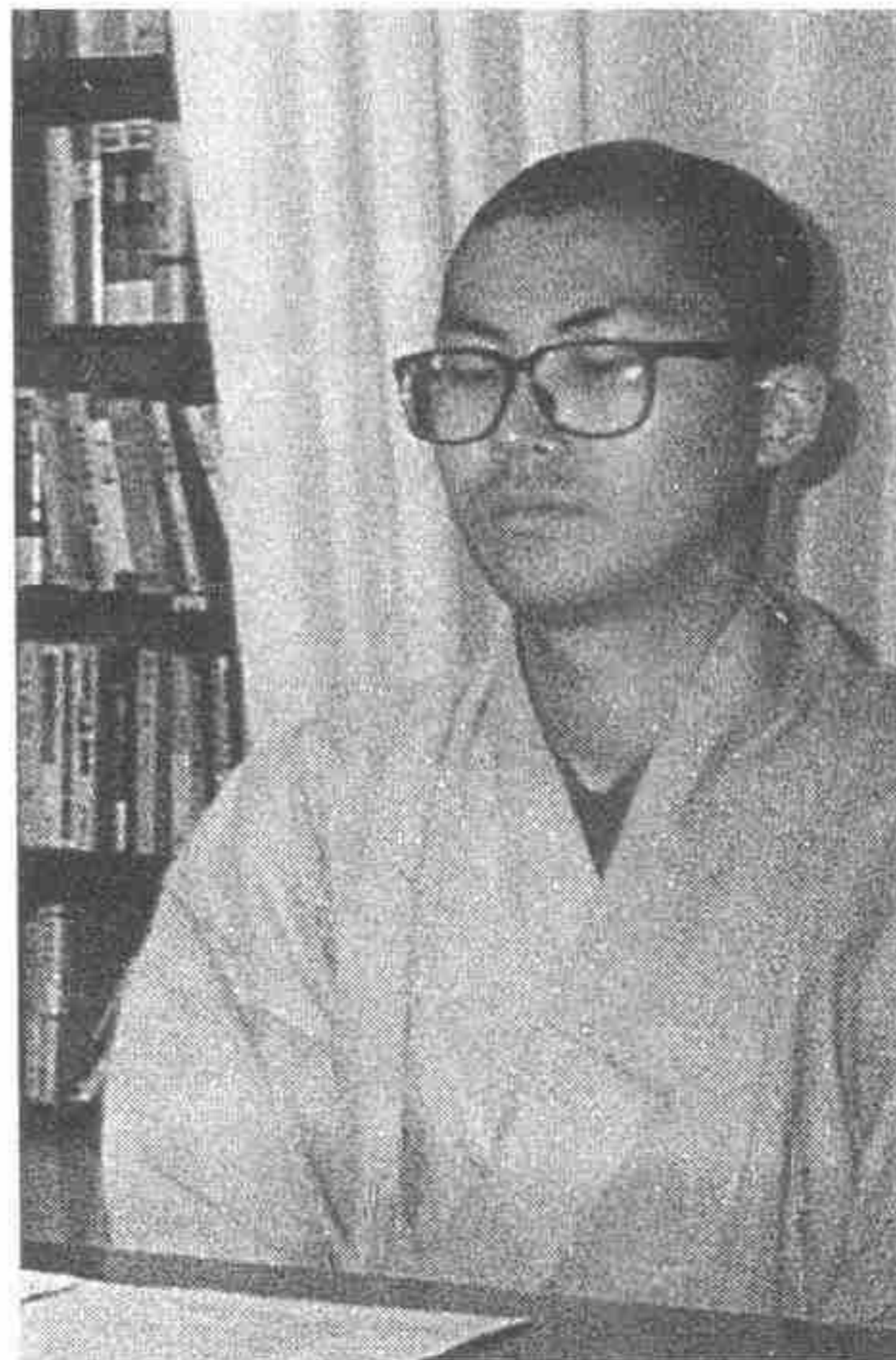
되는 것이고, 수행자 개개인이 그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원에도 강사와 학인, 교과과정이 있으니 형태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교육의 주체 면에서 볼 때 자발적으로 모인 승가이기 때문에 학인이 주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학인들 중에도 강원을 교육기관으로 보게 되는 원인은 자신을 수행의 주체로 보지 않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생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출가하자마자 그릇 씻는 설것이통 앞에 세워 놓더라구요. 아! 내가 속가때 엮이 두터우니까 그것을 씻어 내라고 설것이통 앞에 세워 놓는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수행자다 생각하니까 순간순간 회광반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나를 교육시키는구나 하고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행자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면 강원을 교육기관이라 하는 말은 있을 수 없겠지요.

**진경** : 우리 승가에서 흔히 하는 말로 행자때 신심이 제일 강하고 치문반, 사집반, 경반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강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공감하고 있지만 수행자로서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먼저 학인에게 있겠지만 수행을 이끌어 주는 강사 스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요즘 학인들은 대학 출신이 많고, 거의가 고등교육 이상을 마치고 출가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빠르거든요. 그런데 강사 스님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루하루를 때우는 식으로 강의하는 강사 스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원이 수행기관이라면 우리가 보는 어록이나 경전을 보면서 바로바로 지혜 개발이 되어 수행과 연결시켜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이끌어 줄 강사 스님이 얼마나 계신지 살펴보면 답답한 현실입니다.

## 강원과 선원의 관계

**사회** : 드디어 강사스님 문제가 나와서 지금 강주스님이 긴장하고 계신데 강사 문제라든가 강원의



설 주

강원이 진짜 수행기관이 되려면 선원에 좌선의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경하고, 강의받고, 논강하는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으로 돌려질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수행체계가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은 다음 항목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으니 조금만 참으시고, 강원의 위상과 역할중에서 강원과 선원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주** : 강원과 선원은 계율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강원이나 선원이나 법으로는 평등한데 단지 강원은 주로 사미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선원은 주로 비구로 구성되어 있으니 승가 공동체의 계율상 후배로서 선배를 받들어야

하는 것이지, 수행적인 차원에서 선원은 차원이 높고 강원은 낮다, 그건 아니에요. 법은 평등한 것이니까, 사미든 비구든 법을 듣고 마음이 돈발하면 누구나 깨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과 수행에서는 동등한 것이고 계율에서는 동등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회** : 이것으로 미흡하나마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토론을 마치기로 하고 다음으로 강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 중에서 강사문제, 커리큘럼 순으로 이야기를 전개할까 합니다. 먼저 강사문제인데요, 강사 스님이나, 학인이나 모두 공감하는 것이 강사가 수적으로 절대 부족할 뿐 아니라 실력 면에서도 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묵** : 조계종의 종지 자체가 선종에 있고 마치 선을 해야 깨칠 수 있고 교를 하면 깨칠 수 없다는 풍조가 만연해서 지나치게 선을 숭상하고 교를 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원은 선원에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고, 강사 스님에 대한 예우도 약하니까 대강백 스님들도 강원에만 계시지 않고 주지를 한다든가 해서 다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 아닙니까. 하루 빨리 교학을 천시하고 교를 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

는 고정관념이 깨져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사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한복** :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강사 스님에 대한 처우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강주스님이 지금 서점에 100만원 외상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사 스님의 월보시가 35만원입니다. 어지간한 사전류가 100만원을 넘어서고 컴퓨터 한대가 300백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월 35만원으로 어떻게 강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종단에서 강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 하면, 90 - 94년까지 종단에서 교육비로 지출된 예산이 전체 예산중 13.6%, 그중 지방승가대, 즉 강원에 지출된 것이 0.69%입니다. 작년에 강원에 집행된 액수가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송광사 강원에 온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종단에서 강원이 차지하는 위치는 지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정묵** :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강원이 독립되어 있지 않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혁과정에서 교육원은 독립되었지만 현재 강원은 사중의 보조역할을 하는 부속기관에 지나지 않고 주지스님이 학장을 맡고 있다 보니 주지스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깨달음이란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익히고, 조사어록을 공부하는 것으로써 지혜가 개발되는 겁니다. 즉 강의 듣는 것도 수행이고, 법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수행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행위가 법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두고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은 생사해탈이지, 그외에 관심을 가진다면 수행자가 아닌 겁니다.

-강주 스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루 빨리 강원이 교육원 체제 속에 편성되어서 교육기관으로든 수행기관으로든 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것이 강사를 배출하는 제도나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울원이 있기는 하지만 과정부터가 1년이고 강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 책을 보다 지나가는 게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강사를 배출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 보시지요.

**강주** : 그것은 불교전문강원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해방 전만해도 강원과정이 10년이었고 대교과 위에 수의과 과정이 있어서 수의과는 자동적으로 중강을 맡아서 아랫반을 지도하다 보니까 강사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

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4년과정을 늘려서 2년 정도로 수의과를 설치한다면 강사문제는 상당히 해결되리라 봅니다. 우리 송광사부터 주지스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커리큘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사회** : 비구 강원을 살펴보면 학인수가 10명이 되지 않는 강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교육원에서 강원의 통폐합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기준을 빨리 정해서 미달하는 곳은 과감히 통폐합시키는 것이 강사문제 뿐만 아니라 승가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커리큘럼 문제를 다뤘으면 하는데 현재 송광사의 커리큘럼을 보면 정규과목, 보설과목 합쳐서 30과목이 넘고 과목의 면면을 살펴보다라도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규과목을 다 배우기도 벅찬 지경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강사문제와 겹치기 때문에 그만 두기로 하더라도 그 밖에도 커리큘럼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스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묵 :**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출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강원에 와서 처음 불교를 배우게 되는데, 초심자에게 치문이

어렵기도 하지만 불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문반 때는 불교학개론과 아함경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서 어느 정도 불교에 대한 개론을 갖춘 상태에서 선어록을 배울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경 :** 개인적인 고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이 전부 한문원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문실력이 짧은 저로서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강원을 그만두고 선원으로 가시는 스님들 중에 신심이 돈발해서 선원으로 가는, 진정한 의미의 사교입선 보다는 한문의 벽 때문에 경보기가 어려워서 포

기하고 가는 스님도 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과목 중 가장 어렵다는 치문을 보기 전에 한문을 익힐 수 있는 교재를 커리큘럼에 넣어서 먼저 배우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실력이 모자라서 따라 가지 못하는 스님들도 때가 되면 무조건 윗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거나 강사 스님이 판단해서 도저히 어렵겠다 싶은 스님은 유급이라도 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급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복 :** 강원에 오면 치문부터 배우게 되는데 어려운 중국 글인 한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순전히 중국 선사들이 쓴 중국적인 내

용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불교에 그런 수준의 글이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한국불교전서를 보면 좋은 글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단에 교재편찬위원회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으니 종단차원에서 교재의 한국화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 :** 이 외에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좌담을 시작한 지가 벌써 3시간이 지났고 하니,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주 스님께 제방

학인들에게 주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번 좌담을 마칠까 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강주 :** 우리는 학문을 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해 수행자가 되었다는 것을 빨리 자각해야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강원을 대학이라 하고, 학인을 학생이라 하는 것은 본분사를 저버린 세속적 시각이지 불조의 혜명을 이르려는 수행자의 관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원 학인스님들은 한국 선종을 떠바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방불교를 이해하려면 팔리

어를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방불교를 이해하려면 한문 경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대장경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한문 원전을 강독하는 곳은 전통강원밖에 없습니다. 조계종의 종지인 선종과 선종의 골수인 간화선의 수행체계와 방법이 강원에서 배우는 경전과 어록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인들은 선종의 골수를 잇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한국불교의 미래가 여러분의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 변소 청소하겠다

정  
왜



지대방

며 칠 전 결제가 시작되고 다시 꼼짝없이 하사당 주인이 되었다. 지난 일 년 동안 이쪽에서 혼나고 저쪽에서 야단맞으며 보내서, 이번 철에는 하사당 주인 자리를 면하는가 하였더니 웬 인연이 그리도 질긴지... 아마도

고래 심줄 같은 인연인가 보다.

그 동안 해제가 되었어도 바람 한번 쏘이지 못하고, 남들 놀러 가도 쳐다만 보고 하였더니, 오늘은 속에서 답답증이 일어 좀처럼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며칠 동안 방장 스님도 외출하시고 해서 점심 공양이 끝나자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등산화를 신고 가방 하나 메고 산에 오르기로 마음먹었다.

후원에 가서 행자님한테 산에 간다고 차담을 달라고 하니 여럿이 가는 줄 알고 과일뿐 아니라 과자 등을 한가방 싸 준다. 가방을 메고 어느 쪽으로 갈까 하다가 굴목재를 다녀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곡을 따라 올랐다. 저번에 천상스님이 내가 마음 심란해 하니까 마음 안정시키려고 빌려준 "내 청춘을 돌려 다오" 및 여러 대중가요 테이프를 들으며 산에 오르다 보니 절 아래 아저씨들이 등산로를 정리하느라 땀을 흘리신다. 휴식 시간이라서 라면을 끓여 잡수고 소주를 한잔씩 드신다. 아저씨들이 마침 아는 분이어서 "스님 어디에 가십니까?" 하면서 술은 들지 않으니까 라면이라도 먹고 가라고 붙잡는다. 나는 못이기는 척하면서 덜어 준 라면을 받아먹으니 그 맛이 별미였다. 그 동안 절 안에서는 구경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좀더 먹었으면 싶어 술을 보니 조금 밖에 없어서 미안해 그릇을 놓고 일어나려 하니 한 아저씨가 술 한잔하시고 산에 오르시면 훨씬 수월할 것이라 하며 권한다.

나는 곡차는 마셔도 술은 못마신다고 하니 그 곳에 있던 모든 아저씨들이 웃음을 터트린다. 나는 인사를 하고 가방에 있던 과일을 나누어주고 다시 산에 올랐다. 배도 부르고 귀에는 나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음악 소리가 즐거워서 그런지 발걸음이 가벼워 오르는 줄 모르게 고개 정상까지 올랐다.

어찌나 빨리 뛰어왔던지 땀이 나고 숨이 목까지 차 오른다. 저 고리를 벗고 목이 말라 배 하나를 짊어 먹으려 하니 새들과 다람쥐들이 기웃거린다. 껍질을 나눠 주고 한참 허공을 보며 쉬고 있으니 이제 찬 바람이 몸을 움추리게 만드나.

옷을 주워 입고 고개 아래 외딴집까지 단숨에 뛰어내려가 아주머니를 찾으니 반갑게 스님 오셨다고 따뜻한 찻차를 한잔 내어 주신다.

따뜻한 차를 들고 물레방아가 있는 마루로 가 보니 어디서 왔는지 학생 둘이서 빈대떡에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자연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좋아 보였다.

나도 저 나이 때에는 저렇게 낭만을 즐겼는데,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며 자리를 마련해 준다. 그리고 젓가락을 건네주며 빈대떡 드시라고

권한다.

냄새가 어찌나 구수한지 체면 차릴 것도 없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꾸러 나갔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학생들이 자신들을 소개한다.

한 명은 서울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자기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이지만 자신은 아직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한 학생은 신학대 졸업반이고 장차 목사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이야기 중에 문학을 공부한다는 학생이 자신은 성직자가 아니지만 성직자를 매우 존경한다고 말

한다. 나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는 성직자가 될 것이지만 나는 아니다' 하니 그 학생이 영문을 몰라 의아해 하기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성직자는 성스러운 직업을 말한다. 그리고 직업이란 생활 수단이다. 하지만 승려들은 먹고살기

위해 먹물옷 입고 머리를 깎고 산중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 도를 구하기 위해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 산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십계명과 불교의 십계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니 그 학생들은 역시 배운 학생들이라서 쉽게 이해를 하였다.

잠시 후에 신학대 다닌다는 학생이 "스님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님들은 그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하기에 나는 반문을 하였다. "학생은 부처님 오신 날에 무엇을 합니까?" 하니 교회에 가서 찬

나는 대답하기를 "나는 크리스마스 날 변소 청소를 하겠습니다."

석가가 마른 똥막대기라 마른 똥에서 팔만 사천 법문이 나왔으니 마르지 않은 똥 속에서는, 아니 하루도 수없이 드나드는 스님들의 화장실에는 가히 셀 수 없는 무량한 법이 있고 항하사 모래와 같은 부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법을 찾고 부처를 만나기 위해서 변소 청소를 하려나.



송가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한다.

나는 대답하기를 “나는 크리스마스날 변소 청소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어안이 빙빙해서 서로의 얼굴만 보고 말을 못한다.

나는 웃으며 아주머니께 침차를 한잔 더 얻어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가운데 화두라는 것이 있는데 그 화두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옛날 조사 스님 중에 운문선사가 있었는데 운문선사에게 한 스님이 묻기를 “삼신중에 어떤 몸이 법을 설합니까?” 운문선사가 대답하기를 “요!” 또 스님이 묻기를 “어떤 것이 석가의 몸입니까?” 하니 “마른 똥막대기” 라고 대답하였다.

허니 석가가 마른 똥막대기라 마른 똥에서 팔만 사천 법문이 나왔으니 마르지 않은 똥 속에서는, 아니 하루도 수없이 드나드는 스님들의 화장실에는 가히 셀 수 없는 무량한 법이 있고 항하사 모래와 같은 부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법을 찾고 부처를 만나기 위해서 변소 청소를 하련다.

어느덧 해가 서산 마루턱에 걸려 있다.

학생들에게 어느 쪽으로 가느냐 물었더니 송광사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고 일어서니 두 학생은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막걸리 두병을 사서 가방에 넣고 내려오니 학생들은 따라오면서 “스님 절에서 술 드시려고 합니까?” 하기에 “술이 아니고 곡차” 라고 대답하고 걸음을 재촉하였다. 내려오다가 아까 산행할 적에 만났던 아저씨들에게 막걸리 두병과 가방에 있던 과일과 과자를 주고 내려오니 학생들은 한참 머뭇거리다 “스님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 “왜요?” 하니 자신들이 스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혹시 스님이 마시려고 사가지고 오는가 해서 의심을 하였다 하며 스님을 믿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였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한다. 그리고 목사가 된다는 학생은 이제부터는 진리를 찾기 위하여 공부를 하지 종교를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성직자가 아닌 구도자의 마음으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끝말을 맺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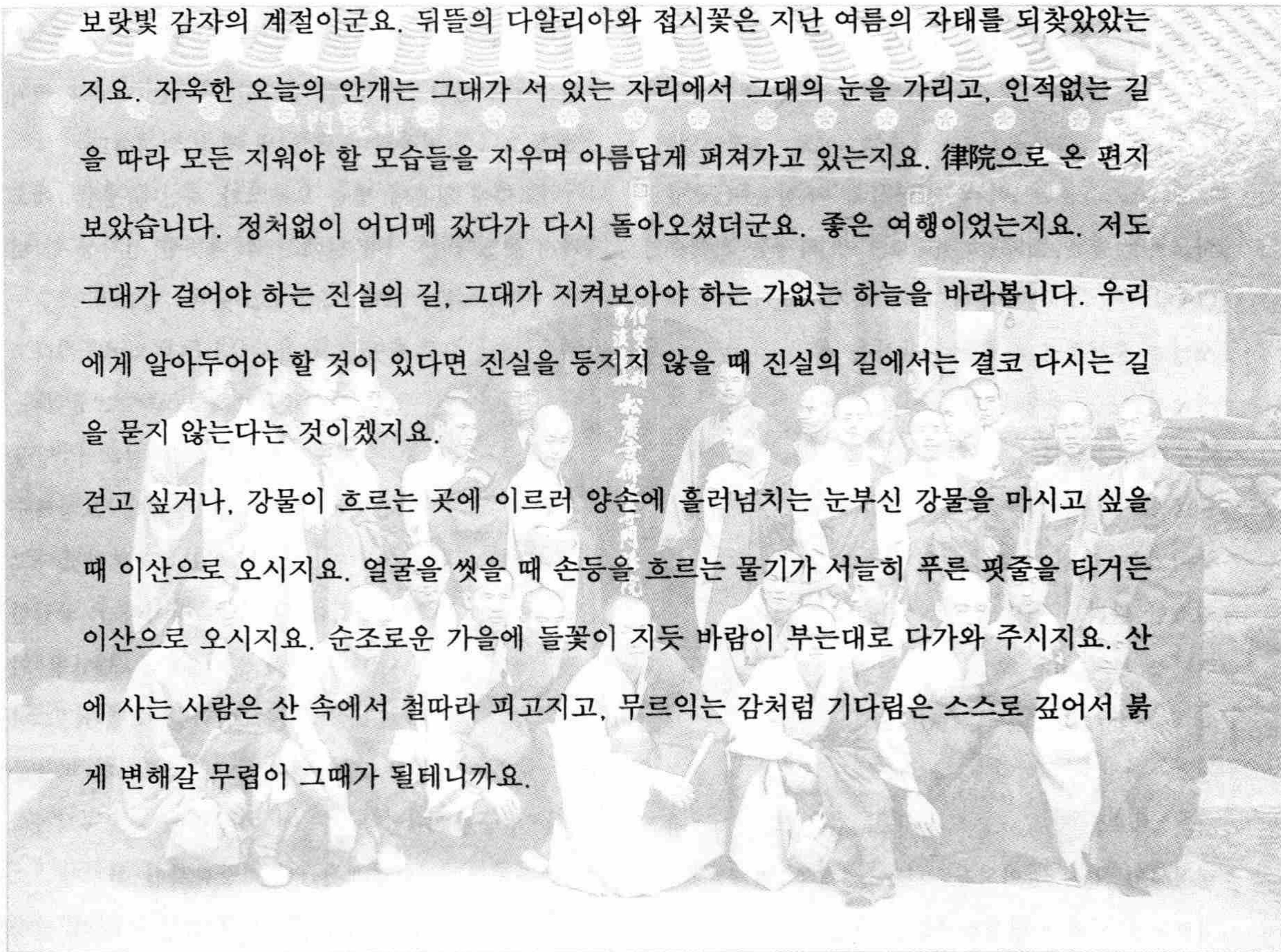
# 海淸堂

## 길손에게

제 2 호  
천호 2538년 여름

보랏빛 감자의 계절이군요. 뒤뜰의 다알리아와 접시꽃은 지난 여름의 자태를 되찾았았는 지요. 자욱한 오늘의 안개는 그대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대의 눈을 가리고, 인적없는 길을 따라 모든 지워야 할 모습들을 지우며 아름답게 퍼져가고 있는지요. 律院으로 온 편지 보았습니다. 정처없이 어디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더군요. 좋은 여행이었는지요. 저도 그대가 걸어야 하는 진실의 길, 그대가 지켜보아야 하는 가없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진실을 등지지 않을 때 진실의 길에서는 결코 다시는 길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견고 싶거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이르러 양손에 흘러넘치는 눈부신 강물을 마시고 싶을 때 이산으로 오시지요. 얼굴을 씻을 때 손등을 흐르는 물기가 서늘히 푸른 핏줄을 타거든 이산으로 오시지요. 순조로운 가을에 들꽃이 지듯 바람이 부는대로 다가와 주시지요. 산에 사는 사람은 산 속에서 철따라 피고지고, 무르익는 감처럼 기다림은 스스로 깊어서 붉게 변해갈 무렵이 그때가 될테니까요.



# 보원이 남쪽으로 온 까닭은?

## 보원



해청당 준비1호

지 난해 이맘때 나는 죽음을 생각했다. 지하철에서, 사무실에서, 자취방에서, 술집에서 나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다. 직업상 병원을 돌며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육도유회 바로 그것이었다.

‘당신의 부상은 0급입니다. X월 줄테니 퇴원하시지요. 이 시체는 기대수명 0세입니다. X월 줄테니 합의 하시지요.’

생명을 흥정하고 시체를 거래하는 세상에서 나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육도를 유회했다.

그녀를 만난 것은 한해가 저물어가는 작년 이즈음이었다. 김스한 다리를 매달고 누워있는 그녀는 무척 지쳐 보였다. 진단서를 보니 족지골(발가락 뼈) 골절 및 경요추좌상(목, 허리 타박상)으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적혀 있었다. 명함을 건네고 형식적인 인사를 마치자, 나는 수첩을 꺼내들고 본격적으로 피해자 신상조사를 시작했다.

나이 : 42세, 직업 : 벽돌공, 수입 : 일당 3만5천

원, 남편은 당뇨병으로 몇 년째 누워있고 고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둘 있다고 했다.

퇴근길에 버스를 탔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바닥에서 굴러 발생한 사고였다. 설날을 사흘인가 남겨두고 사무실 분위기가 들뜨고 있을 무렵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퇴원하고 싶으니 병원으로 와 줄 수 있느냐고 했다. 며칠 전 김스한 다리를 매달고 누워있던 그녀를 떠올리며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고향에 일흔이 넘는 노부모가 계신데 생신날에도 가지 못했다며, 이번 설에는 꼭 따뜻한 진지상 한 번

차려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당뇨병으로 누워있는 남편은 더구나 외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고개를 창가로 돌렸다.

더도덜도 말고 입원해서 일을 못나가 생긴 손해만 보상해주면 오늘이라도 퇴원하겠다고 했다. 사정은 딱하지만 입원한 지 열흘이 안 됐으니 30만원 이상 보상받기는 어려울 듯했다. 그나

마 정부노임단가로 보상 받으려면 벽돌공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이나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갖춰져야 했지만, 그녀는 자격증 없이 오야지(건축업자)밑에 딸려 일당을 받고 있어서, 부득이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내



내 자리로 돌아와 담배를 빼무는데 양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입사동기가 다가와 귀에대고 속삭였다. “이 딱한 친구야, 이번에도 부장한테 떡값 안 줬구만, 그러니 결재가 날리 있나,” 사무실은 임 텅 비어 있었다. 대기실에는 그녀와 남편이 교무실에 불려온 아이처럼 양전히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가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복명서를 써내면 결재가 날 듯 싶었다.

다음날 퇴근 직전에야 겨우 서류를 다 갖춰서 과장에게 결재를 올리니, 과장은 선뜻 도장을 찍으며 요즘에도 이렇게 순진한 피해자가 있냐며 웃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상은 부장 전결이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이면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질 듯 싶었다. 그녀에게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나와 달라고 전화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로 들어서니 한복을 차려입은 그녀가 새까맣게 야윈 남자와 피해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목발이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오전 10시가 넘었는데 결재서류를 가지고 부장실에 들어간 과장은 나오지 않았다. 11시가 가까워서 얼굴이 벌개져 나온 과장이 나를 불렀다. “자네 서류 퇴짜야. 기능사자격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구비해서 다시 올려!” 던지다시피 서류를 건네고 과장은 밖으로 나가버렸다. 대리에게 다시 결재를 올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과장을 찾아보라고 했다. 12시가 넘도록 과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내가 직접 결재판을 들고 부장실에 들어갔지만 부장석은 비어 있었다. 여직원에게 물으니 벌써 퇴근했다고 했다. 내 자리로 돌아와 담배를 빼무는데, 양손에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입사동기가 다가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 딱한 친구

야, 이번에도 부장한테 떡값 안 줬구만, 그러니 결재가 날리 있나.”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대기실에는 그녀와 남편이 교무실에 불려온 아이처럼 양전히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준비했던 봉투 하나가 전부였다. 나는 그날 고향에 가질 못했다. 아니 가지 않았다. 주인식구가 다 떠나고 텅 빈 집에서 밤새워 법정 스님이 쓴 효봉선사의 일대기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를 읽고, 새벽에 배낭을 꾸렸다. 책상 서랍에서 벌써 써두었던 사표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조계산 굴목재를 넘는 바람이 맵싸한 새벽, 하얗게 입김을 날리며 도량석을 돌때 장삼자락 속으로 파고드는 송곳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지는 까닭을 ...



# 혜관이 지금 뭐하나

## 혜관

“혜관이 지금 뭐하나.” 지대방에서 한가하게 구들장 지고있는 혜관을 경반 어느 스님이 지나면서 경책하시는 말씀이다.

늘상 듣던 소리! 현실이라는 게으름에 안주해 있는 혜관을 경책하는 소리건만 여전히 지대방 구들장을 지고서 질책을 평소처럼 흘려보낸다. 아침 간경이 끝나고 나서 사시에불 시간이 되려면 이삼십분 시간이 나는데 그 짬을 지대방에서 한여름의 누렁이모양 늘상 뒹굴뒹굴 댄다.

사시에불이 촉박해져서야 배트맨이 망토를 펴듯 허둥지둥 가사장삼을 수하고 대웅전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스님에게는 팔만 사천 가지의 위의를 있다는데 그 위의하고 혜관은 십만 팔천리나 된다.

여느 때처럼 스님들과 낯익은 신도 몇 명이 예불드리고 있는데 노보살님 한 분이 손자를 봤을만한 아들의 손을잡고 종종걸음으로 법당에 들어오고 있었다. 상단에 인도하자 노보살님이 깨끗한 보시금을

올려놓고 구부러지지 않는 허리를 애써 굽히면서 반배를 세 번 한다. 겨우겨우 한 바퀴 돌고 나서 신중단에 깨끗한 만원짜리 한 장 올려놓고 다시 굽혀지지 않는 허리를 애써 굽히면서 눈으로 삼배를 한다. 명절이나 휴가 때 손자들이 주는 용돈을 쌈지에다 꼬깃꼬깃 모아두었다가 깨끗한 새돈으로 바꿔 오늘

큰법당에 올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야 부처님께 올리면서 늙은 몸이라 큰 절 삼배도 못드리고 애써 눈으로 삼배하면서 극락왕생을 빌고 있을 것이다. 그런 노보살님을 지켜보고 있는 나도 어느새 같이 그 노보살님의 극락왕생을 빌어본다. 보살님이 나간 뒤 열린 문으로 바람이 불어와 신중단의 보시금이 마루에

떨어졌다. 차마 나는 그 보시금을 내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는데 옆 도반스님이 주워서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나는 과연 그 노보살님과 같은 분들의 보시를 받을만한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해청당 준비 2호

간경 끝내는 죽비소리가 나기 무섭게 경상을 물리고 지대방에 가서 단 일분의 짬이라도 차담과 입담을 즐겨하지 않는가. 차담은 수미산 같이 쌓여있는 것을 도철이가 밥먹듯 먹어대고 입담은 도반스님부터 큰스님들 심지어는 조사스님들까지 난도질 해댄다. 혹 경행하는 때에는 쫓기는 토끼처럼 허겁지겁 다니고, 거지가 이집 저집 기웃거리듯 있는 일 없는 일 다 참견하고 다닌다.

간경 끝내는 죽비소리가 나기 무섭게 경상을 물리고 지대방에 가서 단 일분의 짬이라도 차담과 입담을 즐겨하지 않는가. 차담은 수미산 같이 쌓여있는 것을 도철이가 밥먹듯 먹어대고 입담은 도반스님부터 큰스님들 심지어는 조사스님들까지 난도질해댄다. 혹 경행하는 때에는 쫓기는 토끼처럼 허겁지겁 다니고, 거지가 이집저집 기웃거리듯 있는 일 없는 일 다 참견하고 다닌다. 시주물 쓸 때는 한여름에

물끼엿듯 아까운 줄 모르고 흥청망청 써대는 나를 보고 누가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살아가는 수행자라 하겠는가.

나는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알 것 같다. 그 어려운 시주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또 다시 발걸음을 지대방으로 옮길 것인가. 나는 속으로 나즈막히 묻는다. “혜관아 지금 뭐하니!”



# 쌍봉사에 있는 어린 부처님들에게

시공

海清堂

창간호



松慶寺 靈圖大學 發行

해청당 창간호

지금 송광사 강원 (스님들이 공부 하는 곳) 앞마당에는 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흰 눈을 보고 있노라니 우리 어린 부처님의 얼굴들이 흰눈과 함께 땅에 떨어져 자꾸만 쌓여 갑니다. 모두들 아픈 곳은 없는지 추위에는 안

떠는지 오늘따라 스님의 두 어깨가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스님이 처음 작은 부처님들과 만났던 것은 온 대지의 생명들이 눈을 뜨고 개나리가 활짝활짝 웃음짓던 때였지요. 부처님들을 처음 만나게 되던 날 졸졸졸 쌍봉사 앞을 흐르는 시냇물처럼 맑고 깨끗한 부처님들의 마음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돕게 된 일을 스님은 무척 기뻐했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지난 여름방학 수련회 때 아마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절에서 살며 서로 별명을 지어 부르던 일, 공양주 보살님께 말씀을 잘못드려 버릇이 없

다며 엉덩이에 불이나게 얻어 맞던 일, 선재놀이를 하면서는 문제를 풀지 못해 토끼똥, 팔굽혀 펴기, 땀박질 등 온갖 힘든 벌을 받으면서도 서로 도우며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썼고, 부모은중경을 사경할 때는 모두가 한 토막을 쓰고는 한 번 절하고 한 토막을 쓰고는 한 번 절하고 끝내 극락전 법당이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었지요. 아버님 어머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느끼며 참 고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맑은 보석같은 눈물들이었어요. 사경이 다 끝나고도 사랑하는 부모님, 이웃 친구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감사와 참회를 하기 위해 백팔배를 더 했으니 아마 그날이 가장 절을 많이한 날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그리고는 불꽃놀이도 했지요. 촛불을 켜고 소원도 빌었었지요. 어린 부

처님들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공양그릇을 깨끗이 물로 씻어 마시며 이 모든 것이 내게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로움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부처님들은 공양이 너무 많아서 울면서 억지로 다 먹었으니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일이 되겠지요. 고운 시골





부처님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군요. 스님과 함께 강물에서 물장구치던 일이며, 초파일 때 모두 모여 탑돌이를 하던 일, 몇 번은 청소를 잘 못했다고 벌까지 받았었지요.

스님이 송광사로 공부하러 떠난다니까 그 맑디 맑은 눈에서 보석같은 눈물을 떨구던 우리 어린 부처님들, 우리 부처님들이 쌍봉사에 다니더니 말도 잘 듣고 공양도 깨끗이 하고 공부도 더 부지런히 하고 많이많이 어른스러워졌다는 말씀과, 그리고 스님이 송광사로 간다고 하니 공양도 안하고 울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스님은 한 편으로는 잘한다고 하니 흐뭇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쌍봉사만큼 큰 바위가 스님을 꼭 누르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스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까지도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겨울 방학을 했지만 남들처럼 놀러가지도 못하고 스님은 돈을 벌기 위해 꽃가게에 가서 방학동안 꽃배달을 해주기로 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주인 아저씨께서 하루 쉬고 나서 이튿날 아침 8시까지 가게에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새 눈이 너무 쌓여서 길에 차가 다니지를 앓았더랬어요. 스님은 마음만 졸이며 다른 분들처럼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연탄차가 한 대 오더니만 스님만 태워주는 거예요. 8시까지 가지 못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장사를 하겠느냐며 쫓겨날 판인데 연탄차가 가게 앞까지 태워다 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그래서 스님은 호주머니에 천원이 있길래 고맙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 분은 마다하며 나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면 고마움을 느낀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고는 가버리셨어요. 지금 스님은 그 분처럼 고운 마음을 나눠드

나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느낀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세요.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만큼 여러분들은 마음이 밝아지고 스스로 부자가 됩니다. 스님은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스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항상 주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실망을 끼쳐드려 은혜도 모르는 짐승이 되겠는가 하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꼭 물고 힘을 내곤 한답니다.



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낀다면 느낀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세요.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만큼 여러분들은 마음이 밝아지고 스스로 부자가 됩니다. 스님은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스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 항상 주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실망을 끼쳐드려 은혜도 모르는 짐승이 되겠는가 하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꼭 물고 힘을 내곤 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처럼, 온갖 더러움을 죄다 덮어버리는 흰눈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우리 부처님들, 지금도 쌍봉사에는 부처님들이 쓴 편지들이 가득 쌓여 있지요. 햇님 달님과 같은 밝은 얼굴로 모두 건강하게 법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 여기에서 공부하는 스님은 어린 부처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부처님의 자비하심에 참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쓰고 있자니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만 같군요.

“여러분 준비 됐나요.”

“준비됐어요.”

“박수 세 번”

“쌍!봉!사!”

“에이, 파리가 지나가면서 웃는다. 다시 한 번”

“쌍!봉!사!”

“이번에는 부처님이 웃으시네.”

쌍봉사의 어린 시골 부처님들 다시 만나 스님과 함께 손잡고 저 넓고 푸른 벌판으로 달려나갈 때까지 잘 계세요. 감기도 조심하고 심부름도 잘하면서요.

합장은 연꽃이요  
이 몸은 공양거리  
착한 마음은 참된 향이니  
부처님의 자비하심 말씀  
멀리 멀리 퍼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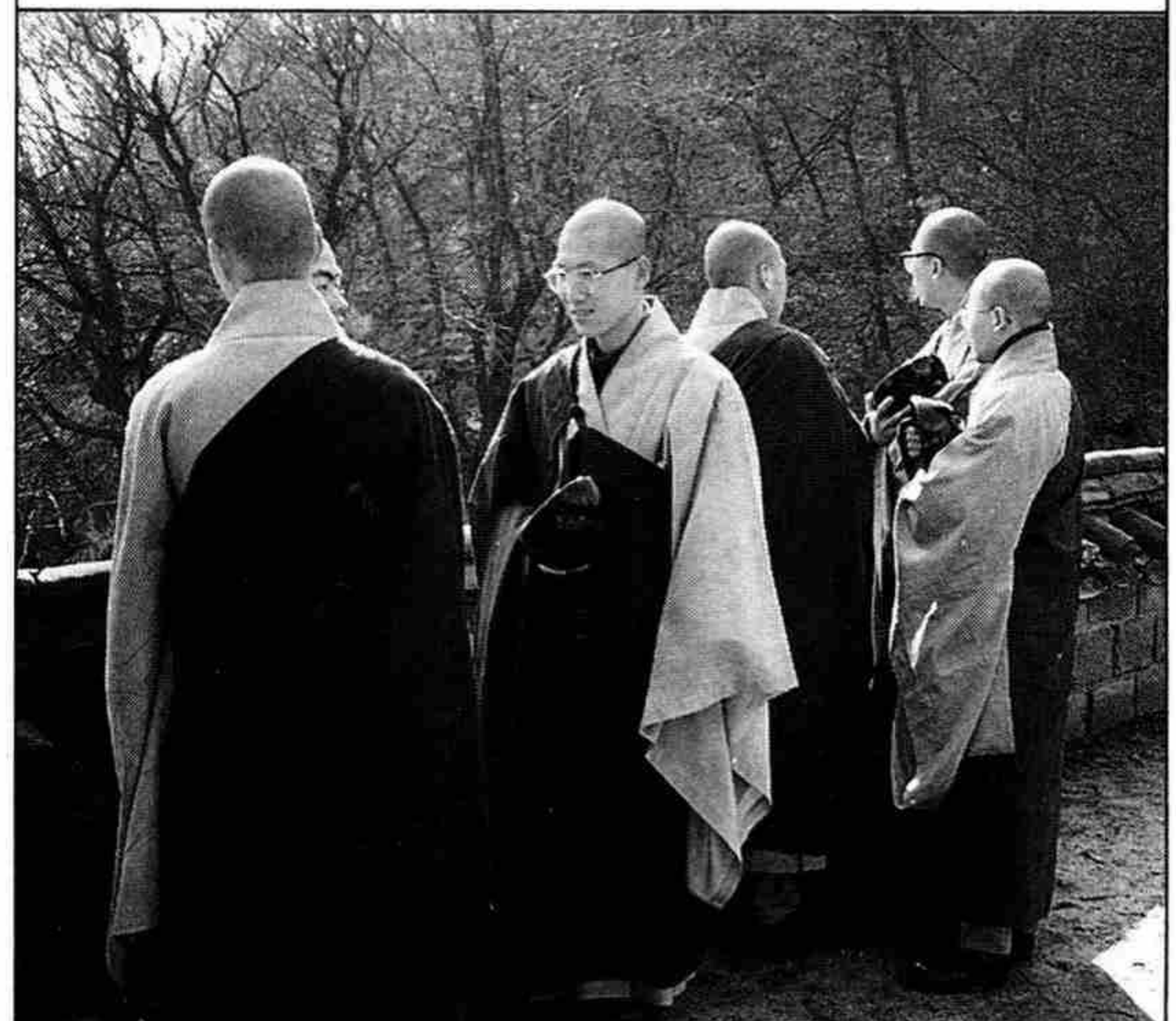
## 원고모집

호텔제과점 빵은 화려함에 비해 빛좋은 개살구이기 심상이고, 무등제과 빵은 비싸지 않고 맛도 괜찮지만 먹고나면 졸음이 쏟아져 문제입니다.

백설같은 떡살에 대추와 석이버섯을 듬성 듬성 썰어 붙인 사평 기정떡은 먹기도 좋거니와 소화도 잘돼서 수행자의 차담으로는 그만입니다.

해청당에서는 사평 기정떡같은 원고를 찾고 있습니다. 글의 형식, 주제, 분량은 자유이고, 소박하고 진실한 내용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송광사 스님 뿐 아니라 제방의 모든 스님들, 특히 전국 강원외의 학인스님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청당은 학인의 길잡이가 되어 온세상에 수행의 향기를 전하는 강원지가 되고 싶습니다.

해청당 편집실



海淸堂

바람따라

제 3 호

2538년 가을

회일

바람따라 가리  
방향없이 차라리  
두 눈 감고 이끌려 가리  
멀고 멀어서  
아득한 겁 닳은 발걸음  
마른 핏방울

바람따라 가리  
있음 없이 차라리  
비어 허공으로 이끌려 가리  
가볍고 가벼워  
허물어져 바람 같은 맘  
가벼운 탄식

바람따라 가리  
미련없이 차라리  
설움버리고 이끌려 가리  
삭고 삭아서  
아예 몽그라진 뼈  
식은 한숨

바람따라 가리  
가서 오지 않으리  
언제 한 번 온 적도 없는 듯  
언제 한 번 기억도 없이  
가서는 오지 않으리



조계산 산행



선암사 참배



광양제철소에서

화

보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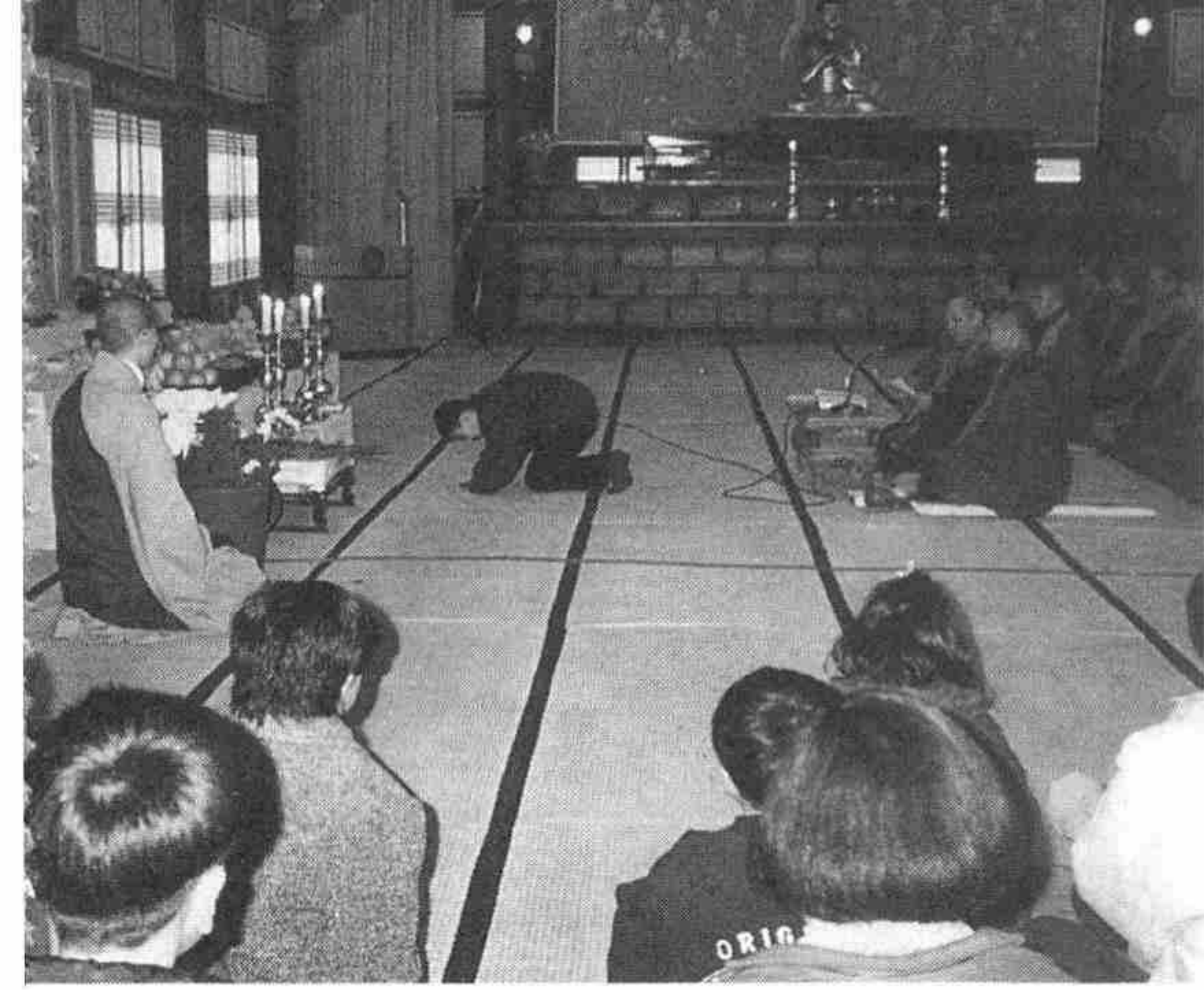
본

강

원

소

식



소년·소녀 가장 부모님 천도제



소년·소녀 가장 초청 다과회

1월 3일 : 동안거 반결제를 맞아 조계산을 넘어 선암사를 참배하고, 광양제철소를 견학했습니다.

1월 16일 - 21일 : 정우 스님(대구 죽림정사 주지)을 모시고 염불습의가 있었습니다.

1월 27일 : 조계산 솔밭에서 땀나무 모으는 울력을 했습니다.

2월 14일 : 동안거 해제를 맞아 종강식을 갖고, 한달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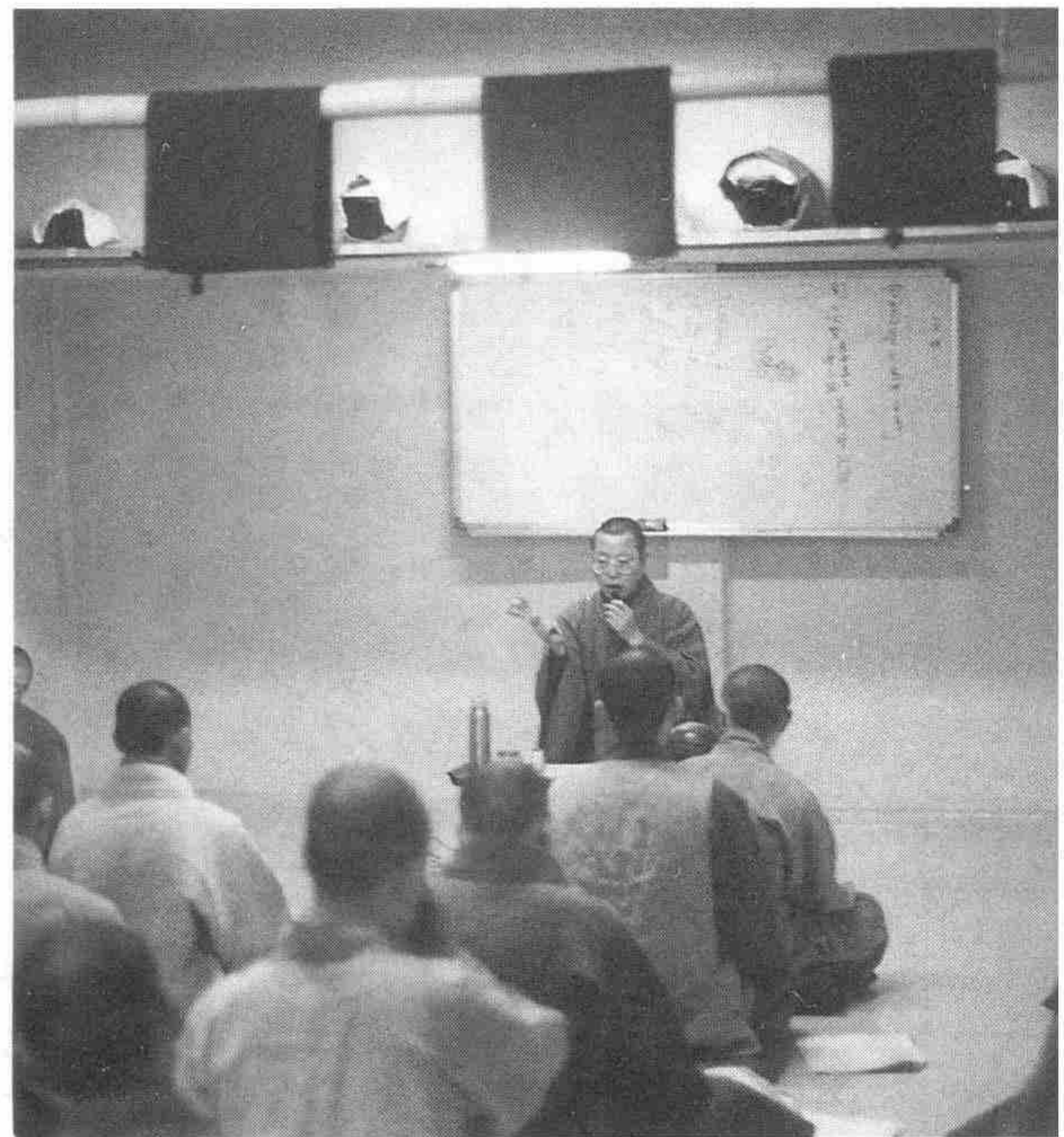
2월 15일 : 울주 스님 등 사중 스님과 진주 사암 주지 스님들을 모시고 진주 시내에서 탁발 수행을 했습니다. 탁발금은 감로심장회에 보시했습니다.



진주 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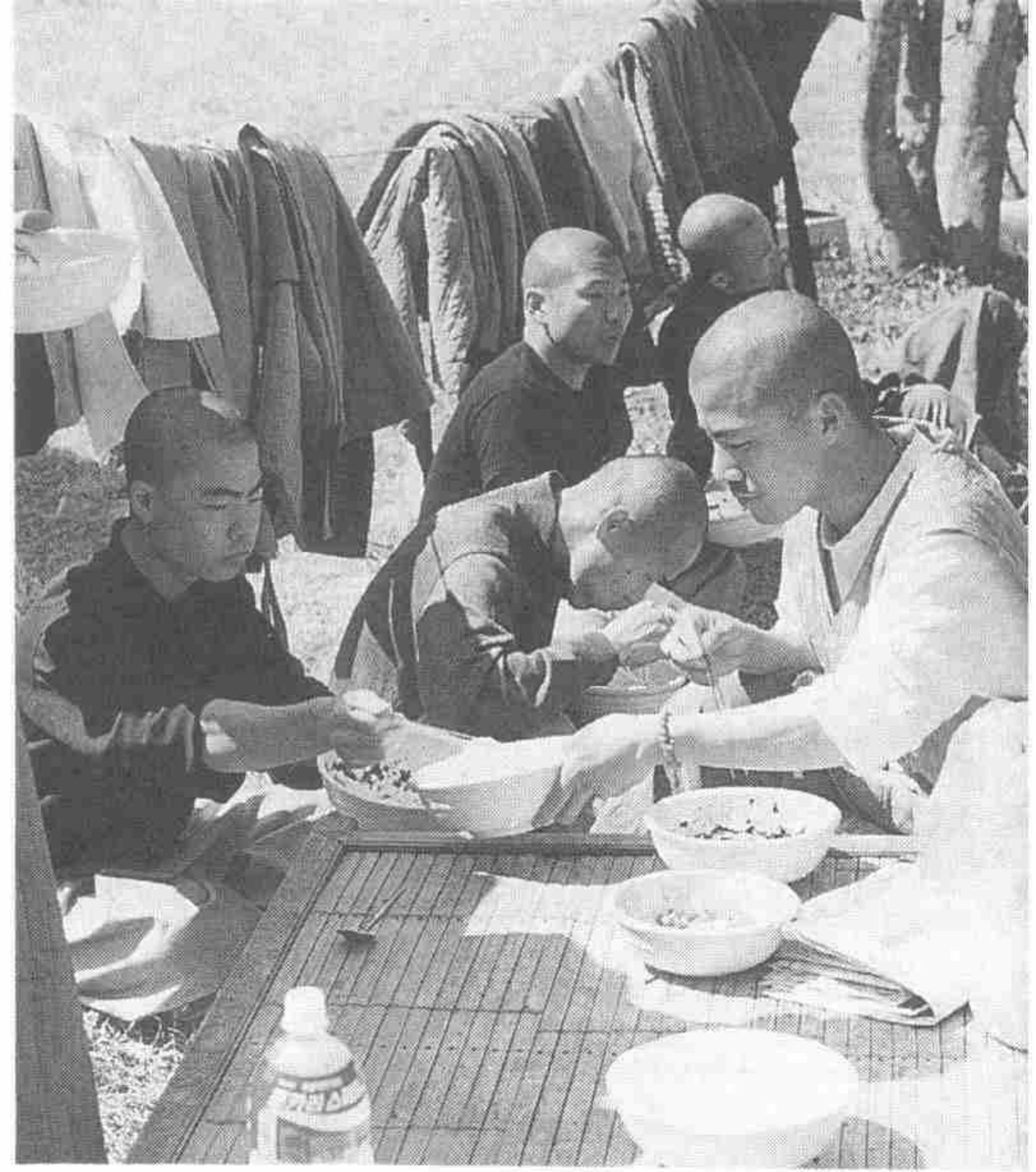
탁발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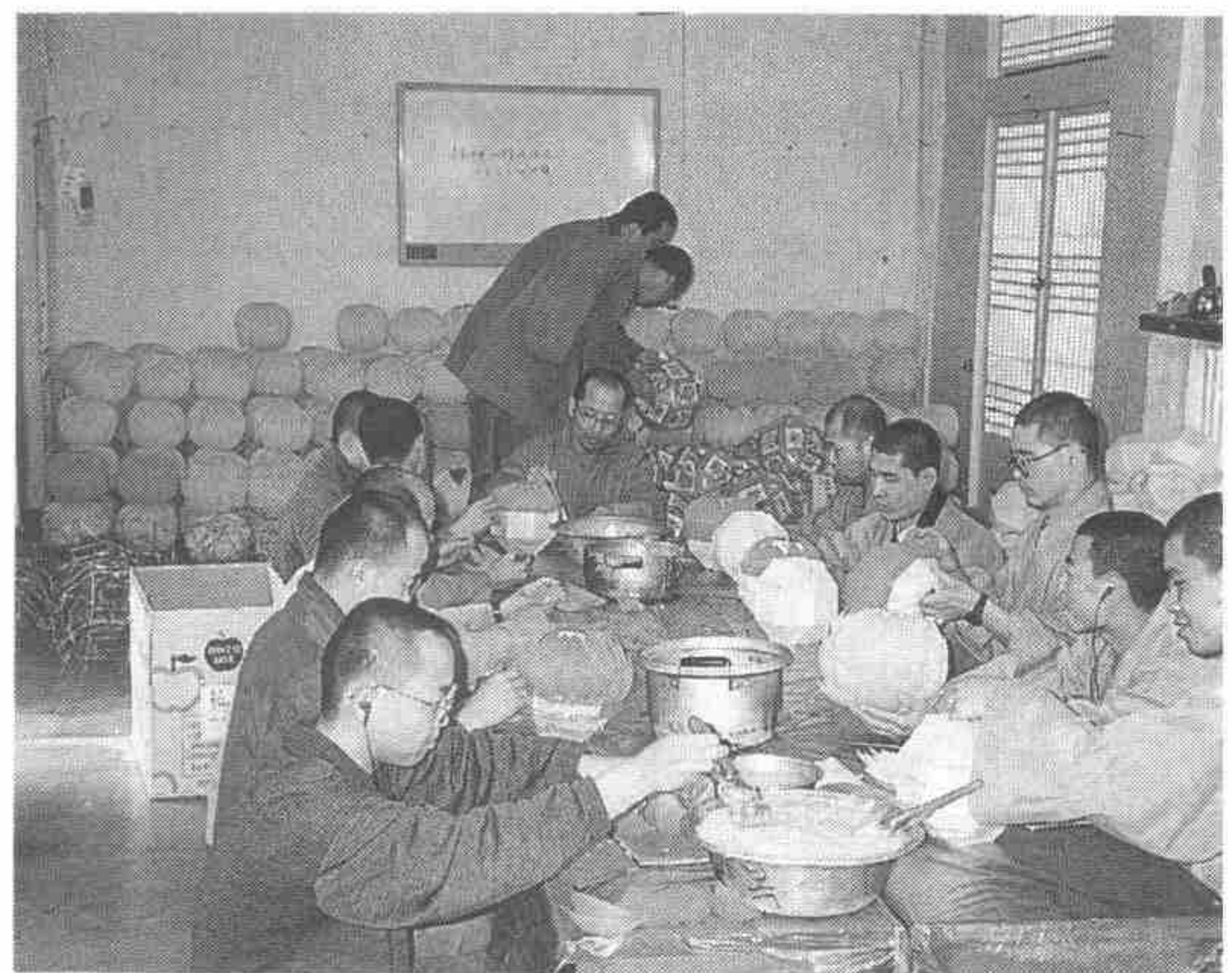
염불습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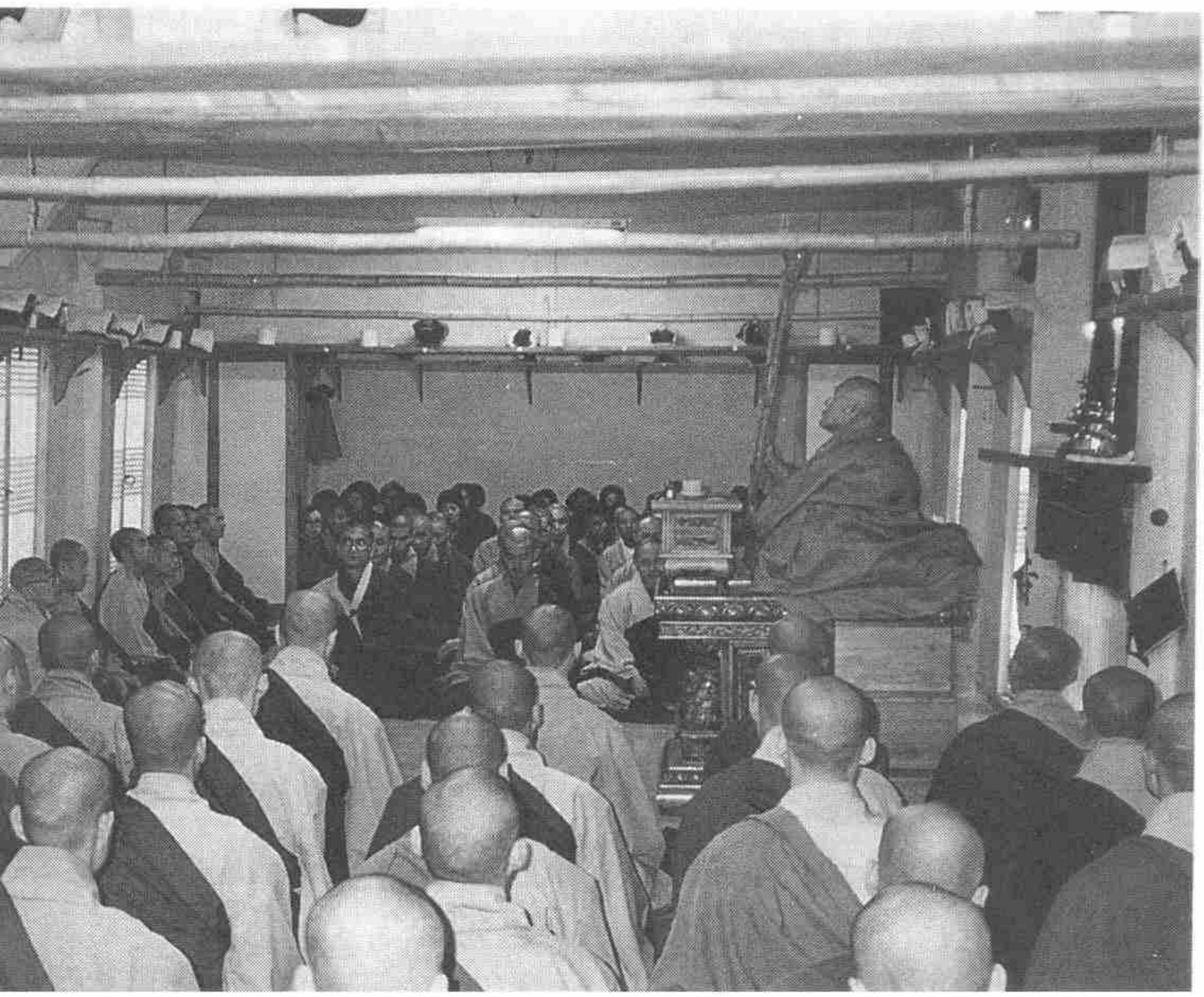
어노암에서  
예연세종가



어노암 체육행사  
뽕나무 예절



정니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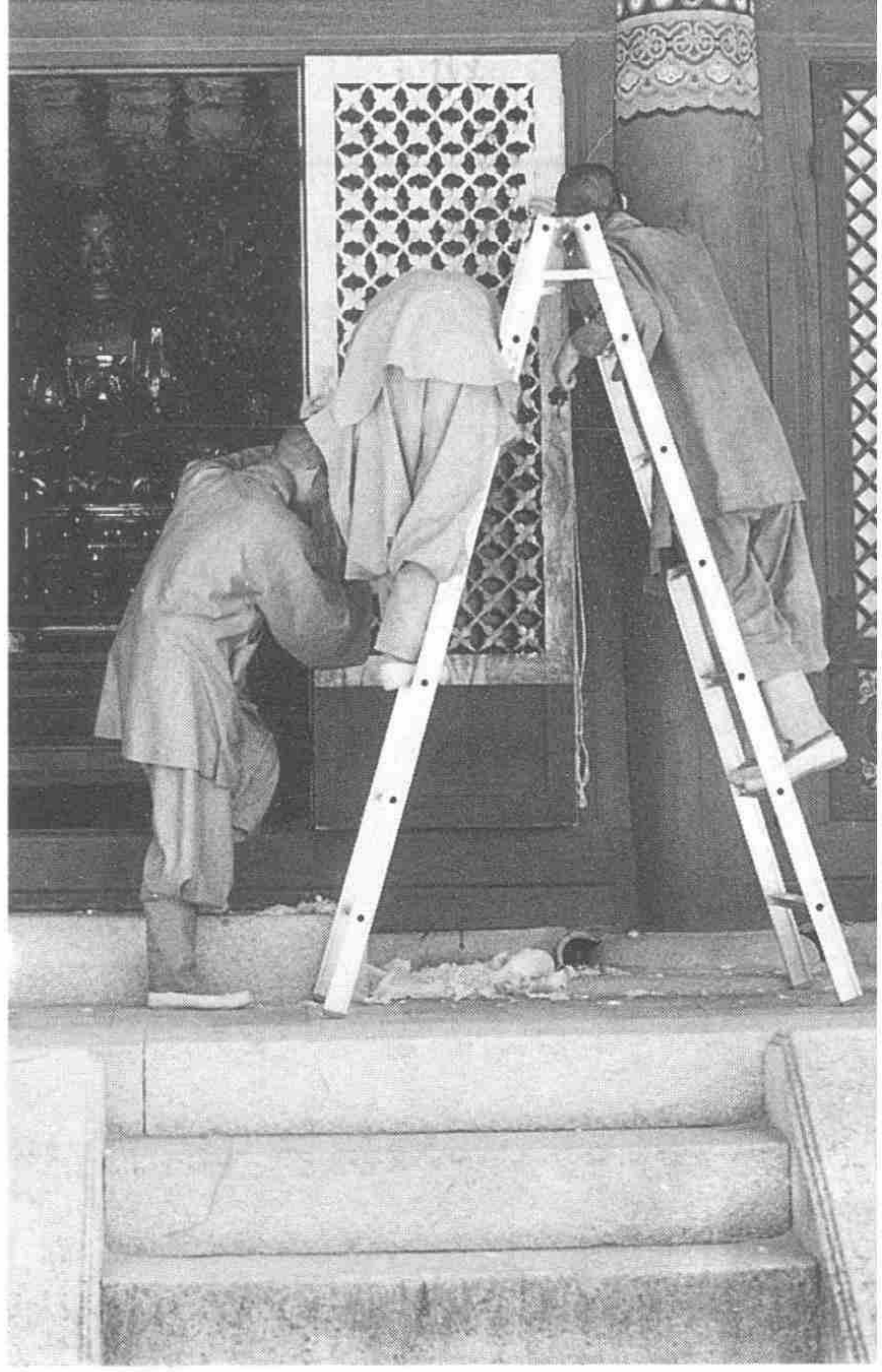
결제 법문



풍양간 울력



배드민턴 시합



문바르기

3월 16일 : 봄 산철결제 및 개강식이 있었  
습니다.

3월 18일 : 찰중스님배 배드민턴 시합이  
있었는데, 한운·범능 스님조가 우승  
했습니다.

3월 29일 : 오도암에서 체육행사를 열어  
축구·소프트볼을 하며 즐거운 시간  
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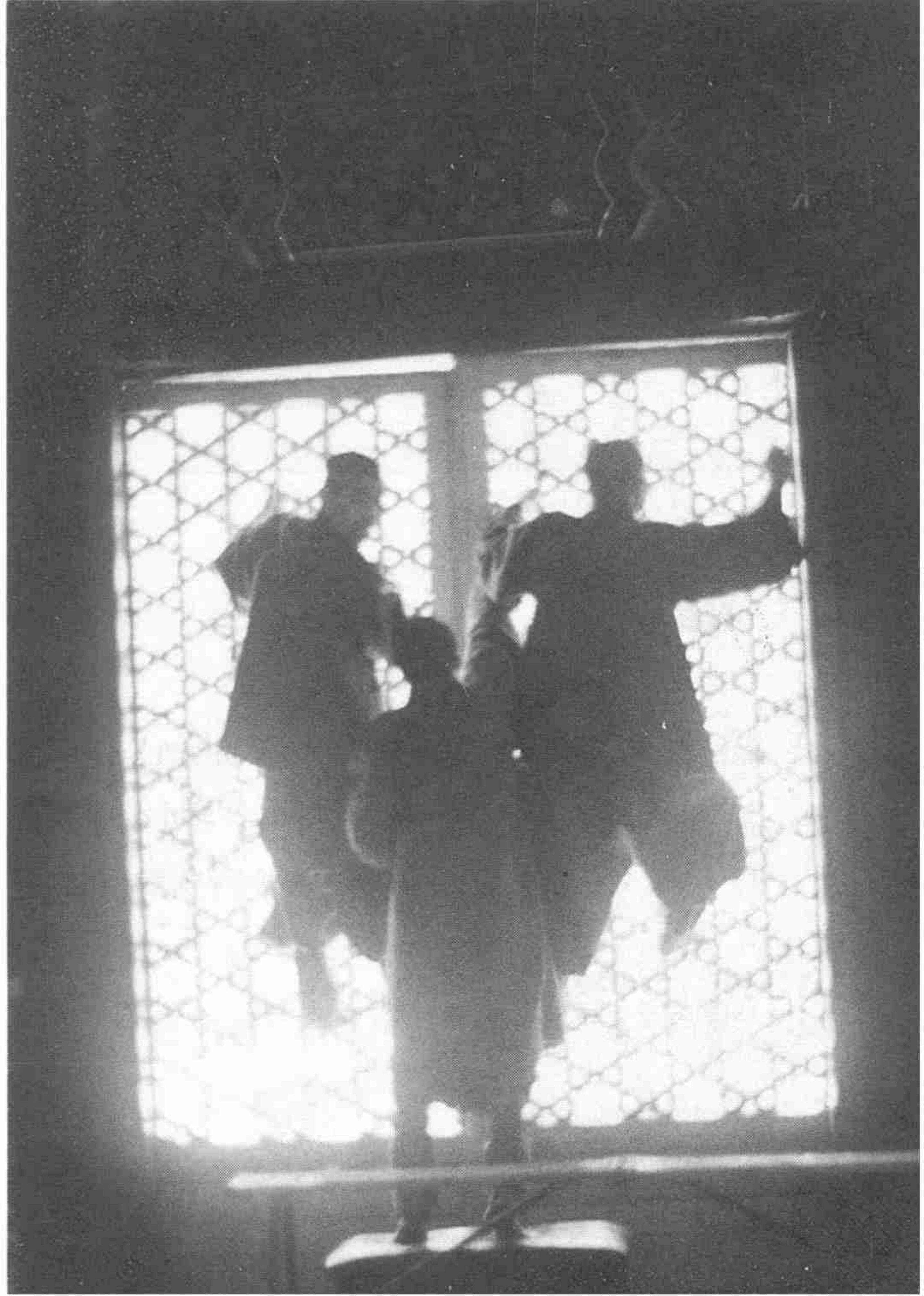
4월 10일 : 새봄을 맞아 법당의 묵은 창호  
지를 뜯고 새로 문을 발랐습니다.

4월 15일 : 초파일을 앞두고 대지전 큰방  
에서 연등만들기 운력을 했습니다.

※ 울주 스님께서 강원에 복사기를 보시  
하셨고, 영조(증심사 주지)·관해(쌍봉  
사 주지) 스님께서 도서기금을 보내오  
셨습니다.



아침마다 영등



##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지운 / 강주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 目 次 -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수행도량이다.
2. 불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 ※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2) '공부'라는 말의 의미는?
  - 3) 看經하는 방법
  - 4)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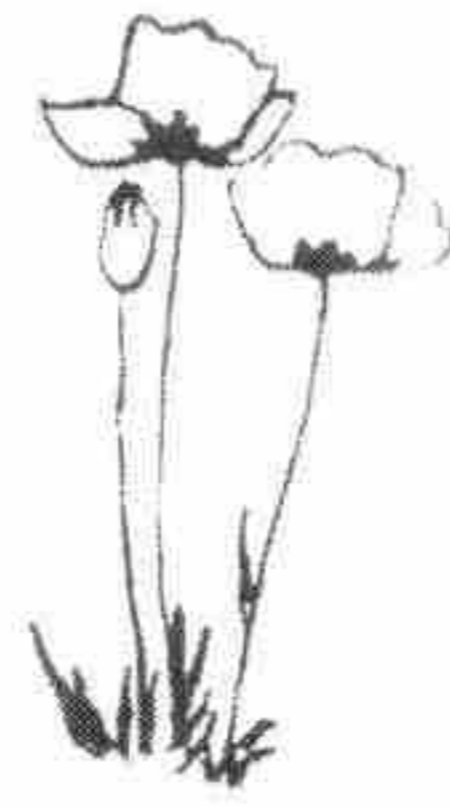
教法을 佛法, 佛所說 또는 法門(梵語 dharma-paryaya) 이라고 한다. 이 법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째 법문, 둘째 반야지혜, 셋째 깨달음, 넷째

佛, 다섯째 법칙, 여섯째 모든 존재, 일곱째는 수행 체계, 여덟째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법을 법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법이 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둘째의 반야지혜와 셋째의 깨달음과 넷째의 佛은 모두 이 법이 門의 역할을 하기

1) 지운 “깨달음의 교리적 해명” 2) 문자는 因의 뜻을 가지고 있다 參照. (선우도량 제2호 p. 77--83)





때문에 가능하다. 원효스님은 법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저 無障無碍한 法界의 法門이라는 것은 法이 아니면서 법 아님이 없고 門이 아니면서 문 아님이 없다. 法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며, 움직임도 고요함도 아니고, 하나인 것도 여럿인 것도 아니다. 法은 大가 아닌 까닭에 極微라 하더라도 남김이 없고, 小가 아닌 까닭에 太虛라 하더라도 넉넉함이 있다. 축박한 것이 아니므로 능히 과거.현재.미래의 三世의 시간을 함유하며, 늦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한 순간에 들어간다. 靜도 動도 아니므로 生死가 涅槃이고 열반이 생사이며, 一도 아니고 多도 아닌 까닭에 一法이 一切法이고 일체법이 곧 일법이다. 이와 같이 無障無碍의 法이 法界法門의 術이 되니 모든 보살이 드시는 바요, 三世諸佛이 나오시는 바이다.”<sup>2)</sup>

라고 하여, ‘法’이라는 진리는 크고 작은 형상적 상대성, 빠르고 느리다는 시간적 상대성, 움직임과 고요함이라는 운동의 상대성, 그리고 부분과 전체라는 구조적 상대성을 초월해 있다. 언어의 세계나 認識

의 세계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통째로 공중분해시키는 힘이 바로 이 법이다.

언어와 인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세계와 인식의 세계는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의 세계가 한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인식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 특성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상을 겨냥하는 성질이 있음을 말한다. 말하자면 대상의 변화에 따라 인식도 순간 순간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밖의 대상을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은 즉, 감각적 직관이나, 추리하거나 사유하는 등의 마음의 작용은 持續的이고 不變的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대상의 부분만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쏠存在의 변화하는 부분부분만을 알 뿐, 전체를 보는 힘과 본질을 보는 힘은 없다.

이러한 인식의 속성에 따라 알려진 대상의 내용이 곧 知識이다. 지식은 부분적이고 고정적이며, 결정론적이다. 그리고 또한 반복적인 것으로 쉽게 말해 複製品이 지식의 본 모습이다. 예를 들자면 찻잔을 보더라도 어제 본 찻잔과 오늘 본 찻잔이 똑같이 보이는 이유가 그것이다. 분명한 것은 찻잔 자체는 시

2) 《晉譯華嚴經疏序》原夫無障無碍法界法門者 無法而無不法 非門而無不門也 爾乃非大非小 非促非奢 不動不靜 不一不多 由非大故作極微而無遺 以非小故爲大虛而有餘 非促之故能含三世 波 非奢之故學體入一刹 不動不靜故 生死爲涅槃 涅槃爲生死 不一不多故一法是一切法 一切法是一法 如是無障無碍之法 乃作法界法門之術 諸大菩薩之所入也 三世諸佛之所出也 (韓國佛教全書 第一冊 p. 1-495)



간적으로 계속 변화한다는 것이다. 어제와 오늘이 그 사이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찻잔이 똑 같다는 인식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제의 찻잔을 인식한 것과 오늘의 찻잔을 인식한다는 어제와 오늘이라는 사이에 갖가지의 무수한 인식(감각, 사유 등의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반복을 수없이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식에 의하여 알려진 찻잔이라는 앎이 같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 문제는 깊이 있는 문제로써 唯識學的으로 풀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단지 인식에 의하여 알려진 찻잔이라는 지식이 어제와 오늘이라는 時空을 초월하여 같다는 이유 하나만을 보더라도 고정적, 복제품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하고 싶다. 지적소유권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식도 하나의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정보사회가 가능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가 '지식은 곧 힘'이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식을 많이 소유함으로써 힘을 삼고 남 앞에 군림하고자 한다. 지식이 곧 권력과 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대처럼 욕망이 극대화되고 있는 사회일수록 이 지식은 하나의 훌륭한 상품으로서 권력으로 代用되고 있다. 그리하여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의 문제 등의 여러가지 사회병리 현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원흉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지식이다. 하루속히 자각하지 않으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와 자연 환경은 언젠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제 그 시간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코메디의 한 장면 같이, 대상을 파악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다. 물론 어제의 그 시간과 오늘의 그 시간은 분명 다르다. 어제의 그 시간과 오늘의 그 시간이 24시간 중 한번은 맞는다는 有用性이 있을 뿐이다. 그것도 탁상時計와 같은 機械上에 있어서의 시간이다. 類似할 뿐이지 同一하지 않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지식은 정말 코메디 같은 것이 아닐 수 없다.

知識이 '코메디 같다' 고 말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제의 존재와 지식은 그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지식을 근거한 대상의 인식은 곧 지식이라는 안경을 끼고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면 지식이라는 색깔이 밖으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 세계가 곧 가상세계이다. 이 가상세계를 다시 인식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시 가상의 현상을 연출한다. 이렇게 주관의 지식과 지식의 객관화된 가상현상과의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여러가지가 결합된 지식의 체계화인 사상이나 이념, 철학 등의 학문 등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식되는 거짓모습을 연출하는 것이다. 마치 淸虛스님의 《三夢詞》와 다를 바가 없다.



主人夢說客 주인은 손님에게 제 꿈 이야기 하고  
客夢說主人 손님은 주인에게 제 꿈 이야기 하네  
今說二夢客 지금 꿈 이야기 하는 이 두 사람  
亦是夢中人 역시 모두 꿈속의 사람인 것을.

그러나 '오늘의 그 시각이 어제의 그 시간과 一致한다'고 同一하게 여기는 類似性的의 일치와 그 일치의 一回的인 유용성으로 인해 지식의 範疇에 속하는 思想이나 理念, 哲學 등의 학문이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현 사회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주입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의 응용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에 유효하지만 그 반면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도하겠지만 도리어 파괴와 죽음으로 변할 수 있는 흥기임을 잊지말아야 된다.

앞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자. 인식은 대상의 변하는 부분만 인식한다. 그러므로 알려진 대상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분적 성격을 가진 지식이 시공을 초월하여 고정적이고 複製的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쉽게 말해서 한송이 빨간 장미가 있다고 하자. 인식은 장미를 인식할 때만이 장미가 빨강다는 사실을 안다. 여러 송이의 장미가 있을 경우에도 색깔은 모두 빨강더라도 모양은 제각기 다르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똑같이 빨간장미로 인식되는 것은 바로 인식 속에 빨강다는 지식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

다. 그러나 눈을 딴 곳을 돌려 다른 것을 인식할 때는 빨간 장미에 대한 인식은 사라지고 난 뒤이다. 그러므로 인식은 전 존재의 부분만을 알 뿐이다. 그리고 빨간 장미를 안 지식은 다음에 그와 유사한 장미를 보면 장미는 빨강다는 것을 안다. 이와 같이 앞의 장미와 뒤의 장미의 유사성을 동일성으로 착각하여 지식이 복제되는 것이다. 이 복제품의 나열이 빠르게 찰라간에 生滅하는 생각을 타고 전개될 때, 마치 빠르게 돌아가는 영사기 필름에 의해 자막에 비쳐진 映像과 같이 실재하지 않는 가상현실이 펼쳐진다. 우리는 이러한 가상현실을 다시 인식하는 반복을 계속하므로써 가상의 자아를 키우고 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지식의 문제점은 보지 못하고 그 지식이 지시하는 사물이 모두 착각인 줄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지식의 이러한 복제적 속성은 유기체적 쏠 존재를 규격화하고 조작하여 결국 죽여버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분적인 성격을 가진 지식으로 전존재의 무한한 세계와 무한한 유기체적 생명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밖을 향한 인식과 지식에 의하여 전 존재를 바로 보지 못하고 가상세계에 빠져서 크고 작은 형상적인 모습, 빠르고 느리다는 시간, 움직임과 고요함이라는 운동, 그리고 부분과 전체라는 구조 속에 얽매이고 노예가 되는 것에서 크고 작은 형상적 상대성, 빠르고 느리다는 시간적 상대성, 움직임과 고요함이라는 운동의 상대성, 그리고 부분과 전체라는



구조적 상대성을 초월하는 법을 만나면 가상현실은 산산조각이 나 버린다. 지식의 실체가 부수지는 순간 지혜가 나타나서 以前の 지식 중에 샷된 것은 소멸하고 바른 것은 지혜로 전환된다.

전 존재를 전체로 보고 본질까지 남김없이 보는 지혜의 나타남이란 법에 의해서이고 법은 곧 지혜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법으로써 현현한다. 이와같이 법이라는 것에 의하여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은 법이 곧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됨을 말한다. 반대로 지혜에 의해서 모든 존재가 법으로써 현현한다는 것은 법과 지혜는不二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혜에 의해서만이 수행의 길이 열리고 정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軌生物解曰法, 聖智通遊曰門’<sup>3)</sup> 이라고 법장스님은 말하고 있듯이 지혜 외에 어떠한 앞도 이 법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아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想이나 識이 있지만 지혜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想은 청색이나 황색이라는 대상을 表象할 뿐이고, 識은 대상을 식별작용에 의해서 색과 형태의 識別과 無常·苦·空·無我·眞如 등의 特相까지는 알 수 있지만 열반에 도달하기 위하여 번뇌를 파괴하는 菩提道 즉, 出世間의 수행의 길에 나아갈 수는 없다. 이유는 식은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본질이므로 진리(법의 無障無碍法界)를 생각할 때는 깨친 듯하다가도 진리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라지거나 변하면

마음이 다시 걸림이 많고 깜깜하고 답답하게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想이나 識과 달리 지혜에 의지하면 일반적인 色이나 形態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無常·苦·空·無我에 대하여 통달하고 출세간의 수행의 길(道)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즉, 지혜에 의해서만 비로소 수행의 바른 길에 들어 갈 수 있고 궁극적인 正覺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지혜가 ‘존재의 본래 모습인 自性を 꿰뚫어 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혜가 모든 존재의 自性を 덮는 습관, 지식, 사상, 철학 따위의 여러가지 생각의 범주에 속해 있는 생멸하는 마음과 비본질적이고 어리석은 근본무명을 파괴하는 것을 그 作用으로 하고, 어리석음이 없는 明을 現狀으로 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깨침의 길을 막아 보이지 않게하는 번뇌와 無知의 잡초를 오로지 꿰뚫어 보는 지혜의 칼로 쳐서 잘라내므로서 진리의 城에 나아가는 수행의 길이 나타나는 것이고, 궁극에 가서 진리의 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의 법칙이다.

말하자면 識은 生滅이 본질이다. 비록 존재의 실상이 무상·고·공·무아·진여라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식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식은 변하므로 알았다는 진리는 다른 대상을 인식하면 알았던 진리는 그 순간 사라지고 만다. 식이란 인식, 생각 등이다. 말하자면 생각은 一剎那에 900번 생멸하므

3) 《大乘起信論義記》卷中 (大正藏 四四 p. 252中)



로 알았던 진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단지 생각날 때나 인식할 때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식의 한계이다. 그러나 지혜의 본질은 不變이다. 왜냐하면 법은 여래가 이 세상에 출현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상주하기 때문이다. 이 상주하는 법은 오로지 지혜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경우는 지혜가 아니면 안된다.

이러한 법의 성격이 無障無碍의 대자유를 가져다 준다. 모든 존재가 법 아님이 없으므로 장애의 속박을 벗어나 절대적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는 門은 특정한 무엇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진리란 보편타당하므로 두두물물이 진리를 설하지 않는 것 없이 모두가 진리이므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애시당초 막혀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원효스님은 '無障無碍法界法門' 이라고

한 것이다. 이러한 법이 도리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門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법은 무량무한이므로 상대적 한계의 사고 영역을 벗어남을 말한다. 억지로 사고의 폭을 최대한으로 넓혀서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 사고자체가 폭발하듯 공중분해되고 만다. 그때 사고(생각)가 사라져버림으로서 법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다. '모든 보살이 道에 들어가는 것이고 三世諸佛도 바로 이 문을 통하여 출생한다'고 원효스님이 말씀하신 그것이다. 그러므로 法은 곧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지혜를 일으키는 힘이고 깨달음에 나아가는 門이자 바로 통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진리의 성에 도달하는 正覺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은 정각의 결과를 낳는 '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관음성지 보타산 참배기

영진 / 송광사



우리나라 불교에서 관음신앙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음기도 도량이나 관음성지에 대한 신앙심이 지극하여 국내는 물론 중국에 있는 관음성지에까지 큰 관심을 보이는데 비해, 정작 관음경(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관음성지 보타산에 대해서는, 인도 남쪽 어느 섬에 있는 산이니 하면서 지나치게 신비성만 부여할 뿐 이렇다할 역사적, 학문적 접근은 없었던 것이 우리 불교계의 현실이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도 있다고 본다. 관음성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도 동북부 지역에 편재해 있는 부처님 성지에서 아주 동떨어진 인도 대륙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역사적인 사실로서도 부처님 당시 교화가 전혀 미치지 않았던 지방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나투시어 교화를 펴신 몇 곳 성지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인도에서 유학 중인 영광 스님이 일시 귀국해서 제작년(2537년) 하안거를 수선사에서 났었다. 그때 스님은 한 일본 학자가 마드라스대학에서 관음성지 보타산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인도 여행을 하게 되면 관음성지를 꼭 참배하자고 했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지난해 3월 영광 스님과 함께 현지 안내인 3명을 앞세워 관음성지 보타산 정상을 참배하는 영광을 누렸다.

먼저 그 위치부터 밝히자면, 삼각형을 꺼꾸로 세워

놓은 듯한 인도 대륙의 뾰족한 남단을 중심으로 동쪽은 인도의 25개 주 중에서 가장 큰 주에 속하는 타밀(Tamil Nadu)주가, 그리고 서쪽에는 자연자원이 풍부해서 가장 부유한 주라는 케라라(Kerala)주가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중부 데칸고원에서 남북으로 길게 뻗어내린 산맥의 끝이면서, 위의 두 주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산이 보타산이다.

우리나라로 보면 해남반도 쪽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산은 생각보다 험하고 가파른 바위산으로 매우 웅장하나 골은 깊지 않다. 특히 케라라주에서 바라보면 꼭 지리산 능선같은 느낌을 주며, 주봉은 조금 짙룩하게 구분지어지는 능선을 이루면서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꼭 봉암사 희양산을 옮겨 놓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멀리서 바라볼 때도 주봉은 신비감을기에 충분하며 가까이 가서 보면 특히 케라라주 쪽은 풀 한포기 볼 수 없고 틈새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견고한 바위산 그대로이다.

그리고 정상에서 살펴보면 산들은 능선으로 연결

특히 케라라주에서 바라보면 꼭 지리산 능선같은 느낌을 주며, 주봉은 조금 짙룩하게 구분지어지는 능선을 이루면서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 꼭 봉암사 희양산을 옮겨 놓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된 게 아니라 오르기 어려운 날카롭고 험한 봉우리들이 멋대로 솟아있어 산만한 느낌이 든다. 주봉은 지리산 최고봉인 천황봉보다 높은 2076m이다. 그 마지막 봉우리는 인도반도의 끝이기도 한 깎약꾸마리 해안 평원에까지 솟아있어 해안에서 바라보는 산의 조화가 매우 아름답다.

보타산은 지금도 남부 인도에서 최대의 성산(聖山)으로서 인도인들에게 숭배되고 있는 성지로 다른 인도 성산들처럼 정상은 맨발로 올라야 하며 여자들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뱅갈해와 인도양이 맞닿는 지리적 조건 때문인지 고지대는 생각보다 바람이 거세고 늘 구름이 돌기 때문에 정상 참배는 건기인 2월에서 4월 사이 주봉이 들어나는 기간에만 가능하다. 우리가 정상에 올랐을 때도 바람이 어찌나 부

는지 바닥에 놓은 카메라가 굴러가는 지경이었다. 그런데 안내인 말로는 이 정도면 아주 조용한 상태라니 평소에는 어떨지 짐작이 간다. 마지막 통제소에서 주봉을 오르내리는 길은 하나 뿐이어서 정상에서 다른 능선을 타고 갈 수 없다.

## 戀 君

승국 / 대교

迷執着客  
 智放棄主  
 東奔西走  
 百方咨訪  
 虛度光陰  
 嗚！  
 君在何處  
 有誰可應  
 一片丹心  
 同苦同樂  
 萬代不易

미혹한 이는 경계에 집착하고  
 지혜가 있다는 이는  
 본분사를 놓쳐버리네  
 동분서주  
 백방으로 헤매면서  
 헛되이 세월만 보냈나니  
 슬프도다!  
 그대 어디에 있는가?  
 그 누가 대답해주랴.  
 일편단심 동고동락  
 옛부터 변하지 않았거늘.

그리고 지금 보타산은 자연보호 구역으로서 주 산림청에 가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들은 그것도 단체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고 주변에 군사기지 와 댐들이 있다는 이유로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가지 못하게 한다. 그 외에도 까다로운 조건이 많아서 3일만 입산이 허가되며 반드시 현지 안내인이 따라야 하고, 일인당 하루 50루피의 입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정상을 참배하려면 산에서 하루밤은 묵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남부인도는 이 관음성지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관음신앙이 10세기까지 크게 성행했다고 한다. 그 뒤 힌두교의 흥기와 더불어 힌두교 성지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힌두교 성지이지만,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인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쓰고 있는 타밀어를 만든 아가스티야(Agastya) 성인이 주석하는 산으로 신앙되고 있으며 이 성인은 범신론인 힌두교의 한 신으로 모셔져 정상에도 약 1m 높이의 아가스티야 입상이 세워져 있다. 보타산 주변 곳곳에는 우리 성황당같은 아가스티야 신전들이 있어서 참배객들이 지극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지금 인도인들이 이 산을 오르는 목적은 아가스티야 신에게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다.

현재로선 불교 유적지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앞서 5개월 전(2537년 10월)에 영광스님과 함께 북쪽 지역인 꾸다람(Kuttalam)에 3일간 머물면서 옛날 승원굴이 있었다는 지역을 현지 안내인을 앞세워 찾아 보았지만 '외국인의 동굴' 이라고 부르는 작은 바위굴 하나만 알아내는 데 그치고 말았다.

지면 관계로 이 글에서는 우선 관음성지가 있는 위치와 참배 인연이 있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끝맺을까 한다.



# 2539. 3. 31. 목우현

도강 / 사집

**무** 심코 3월 달력을 넘기자니 문득 지나온 1년간의 생활이 떠오른다. 출가인이라면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나 또한 작년 이맘때 묘한 감정의 파동을 마음 한켠에 담은 채 호남행 밤차에 몸을 실었다.

부처님께서서는 진리를 찾아 유성출가를 하셨다지만 나는 진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승복입은 스님의 모습이 좋아서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신심이 돈독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단전호흡을 하러 다니다가 거기서 만난 분이 '스님되면 좋겠다'고 권하길래 그때는 그저 농담반 진담반으로 듣고 웃어 넘겼었는데, 그로부터 한달이 조금 지나서 갑자기 마음에 심한 갈등을 느끼고 송광사로 출가하게 되었다.

나의 출가동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절로 나온다. 내가 왜 힘들게 행자생활을 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떠나지를 못했다. 걸어나가면 10분도 안걸리는 일주문 밖인데도 그 문을 넘지 못했다. 정말로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다. 찌는 듯 무더웠던 지난 여름이 그렇게 가고, 나는 행자교육원에서 수계하고 돌아와 강원생활을 하고 있다. 이제는 벌써 사집반이다.

요즘들어 참으로 인과는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이 몸은 과(果)를 받고 동시에 새로운 인(因)의 씨앗을 뿌린다. 단지 과를 과로 생각지 않고 인을 인으로 생각지 않고 다만 스스로 진리를 덮어버리고, 내가 만든 그림자에 스스로 속고 있을 뿐이다.

'아! 참으로 부끄럽다. 나는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부처님의 크나큰 공덕으로 공부를 지어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저 이번 생에 기필코 성불하겠다는 마음을 앞세워, 업도 내가 지은 바를 따라 받듯이, 공부도 내가 지어나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울 뿐이다.

이 세상은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라고 한다. 날아다니는 새, 흐르는 물, 내가 밟고 있는 흙덩어리, 풀 한포기 이 모두가 그대로 중생에게 불법을 설하고 있다고 한다. 단지 어리석은 중생이 공기를 마시며 공기의 소중한 것을 모르듯이 그냥 스쳐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이제 스스로 원을 세우나니,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그런 천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지이다.'

#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부는 바람

정민호 / 미국 삼불사

모스크 침탑 위로 코란은 흐르고 고대와 현대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만난다는 곳, 이스탄불의 투명한 차도 속에 가리워진 철후 같이 검은 머리카락과 깊은 눈의 이슬람 여인. 터어키에 관해 생각할 때면 항상 떠오르는 환상적 이미지였다. 언젠가는 한 번 가보리라 마음먹었기에 나는 이번 여행의 첫행선지로 터어키를 선택하였다.

런던 시내 옥스포드 거리에 있는 어느 할인 항공권 판매 사무실에서 이스탄불행 싸른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고, 나는 정했던 날짜에 런던 교외에 있는 게트윅 공항에서 오너에어라는 터어키 국적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양쪽에 3열씩 밖에 없는 자그마한 비행기에 올라타자 비록 차도를 걸치지 않았지만 정말 깊은 눈의 터어키 스튜어디스가 조용하게 맞아준다.

정확하게 오후 두 시 반 런던을 출발한 비행기는 해를 등지고 계속하여 동으로 동으로 간다. 해는 서녘으로 서녘으로 저가고 비행기는 태양의 뒤를 소리없이 쫓아오는 어둠을 향하여 거슬러 간다. 미지의 어둠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이다.

비행기 창밖 오른쪽 끝편으로 해는 이미 구름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고 붉은 빛만이 구름의 바다 위를, 반구형의 둥근 하늘 지붕을 황금색으로 물들인다. 왼쪽 창밖으로는 황금빛이 점점 옅어지다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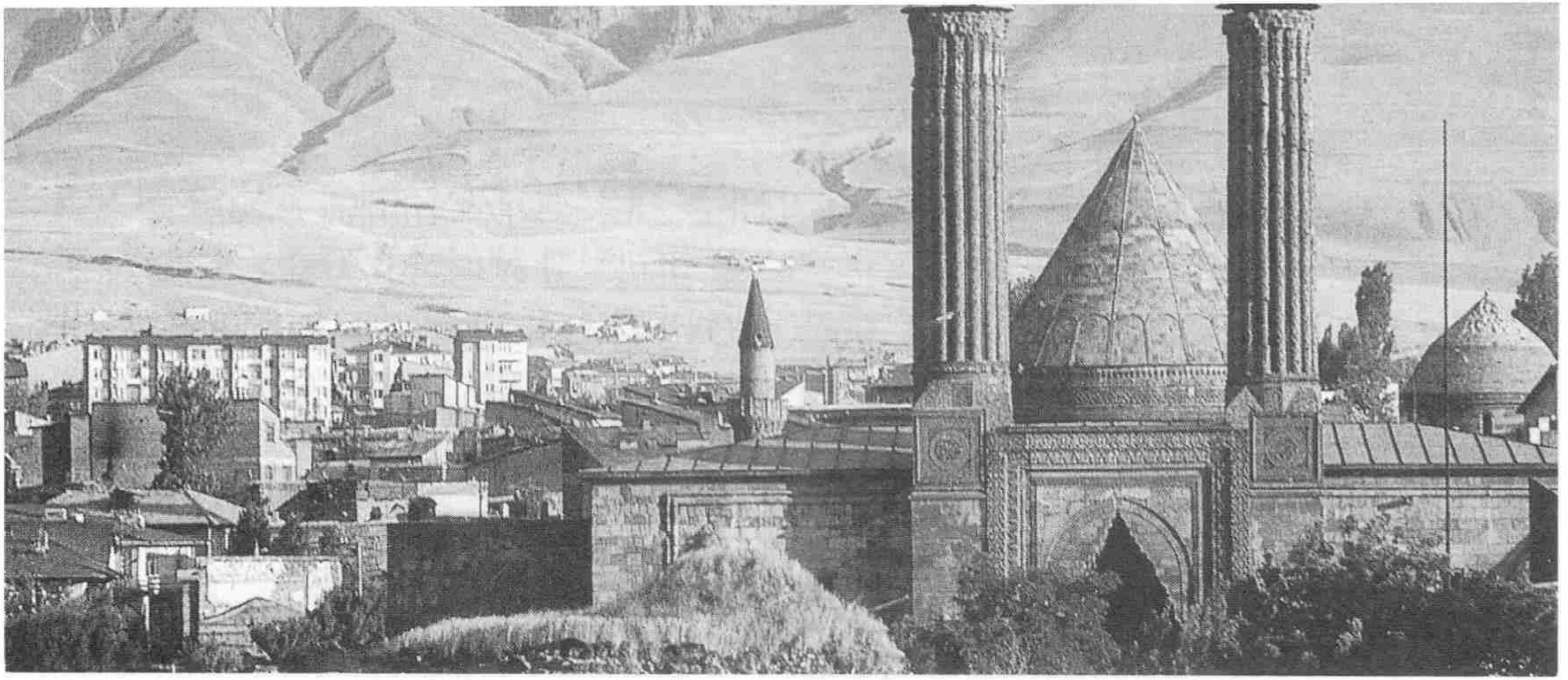
비행기가 발칸 반도 상공 쪽을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 밑으로는 하얀 눈이 덮인 산들이 연이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계속하여 카시미론 솜덩이 같은, 혹은 양떼 같은 구름들이 깔려 있는 구름의 바다 위를 건넌다.

비행기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움켜잡으면 금방 손바닥에 진득진득하게 걸어 올려질 것 같다. 솜사탕 같은 구름들. 구름의 바다 저편 운평선 위로는 황금색 노을의 때, 그리고 그 위의 옅은 파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짙은 파랑, 검푸른 파랑의 하늘, 반짝이는 초저녁의 샛별 하나!

초저녁에 비행기는 이스탄불의 아타튀르크 공항에 무사히 도착하였고 나는 얼마간의 돈을 환전하여 손에 쥐고 시내로 향하였다.

공항 버스와 전차를 번갈아 타고 목적지인 술타나하메트 지역에 도착하여 숙소를 정하자마자 나는 우선 런던에서 비싼 물가 때문에 주렸던 배를 아귀아귀 채웠다.

식당 저 맞은편으로는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술타나하메트모스크가 여섯 개의 침탑에 둘러싸인 채 조명을 받아 가히 환상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침 회교도의 종교적 금식 기간인 라마단 중이라 사람들은 낮 동안 주렸던 배를 주변 식당에서 채우고 나서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완전 금식이 아니라 해가 떠있는 동안만 식사를 못하고 일몰 후에는 식사를 할 수 있다) 모스크에 꾸역꾸역 모여들어 기도하느라 온통 사람들로 홍수였다. 모스크에 끊임없이 들고나는 사람들의 물결은 마치 개미떼를 연상시켰다.

모스크 첨탑 위의 스피커에서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코란의 낭송소리가 리드미컬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네온 불빛 아래로는 전차와 택시들이 사람들을 싣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길거리 식당에는 케밥이라는 이슬람 전통 양고기 요리를 만들기 위하여 양고기덩이를 꼬챙이에 끼워 계속해서 돌리며 벽면에 붙은 가스레인지불로 굽는다. 그 양고기덩이에서 끊임없이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기 익는 냄새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청각과 시각, 그리고 후각을 자극한다.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한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터어키의 냄새다.’

불과 몇 백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이 뺨을 스친다.

이스탄불에 도착한 이튿날 이른 아침 술탄나하메트 모스크에 다시 한번 들렀다가 바로 옆에 있는 아야소피아에 들렀다. 이곳은 바로 과거 동로마 제국 시절 그리스교의 총본산이었던 소피아 대성당이 있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술탄나하메스트모스크가 지어지

기 전까지는 이 사원이 이스탄불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교 사원이었다. 그러나 비잔틴 제국을 정복한 셀주터어키 이슬람 제국의 술탄들은 아야소피아보다 더 아름답고 거대한 모스크를 짓기 원했고,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중근동 제국을 비롯한 제국 곳곳에서 석재와 타일들을 가져다가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있어 단지 메카의 모스크에만 뒤지는 환상적 모스크를 지었던 것이다.

하여 아야소피아는 술탄나하메트에게 뒤지게 되긴 하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사원으로써 이슬람 세력 통치 하에서 이번에는 회교 사원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터어키가 이슬람 절대주의 제국에서 근대적인 민주국가로 탈바꿈하면서 아야소피아를 계속하여 회교 사원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원이 역사적으로 지니는 동방 그리스도교의 총본산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그리스도교도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논란을 벌이다 결국 아야소피아는 그 어느 쪽도 아닌 박물관으로 쓰기로 결정되었다.

내가 갔을 때 아야소피아는 한참 보수공사 중이었다. 비록 그리스도교 유물이 많이 훼손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야소피아에는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등을 비롯하여 아직도 훌륭한 모자이크 타일 벽화가 몇 개 보존되어 있었다.

특히나 황혼녘, 아니면 한밤중에 달빛이 교묘하게

“부처와 예수와 마호멧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때에 씨들은 과거의 유물로서의 종교적 관념적 이상과 인습을 파괴하고 생생한 현재를 아름답게 살다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추종자들이란 도리어 그들의 무덤과 관을 황금으로 꾸미고, 그들이 남겨 놓은 시체를 숭배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삶과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땃국에 절은 유물로 타락시켜버리고 만다.”

빛나는 가운데 새떼들이 첨탑 주변을 날고, 평평하면서도 완만하게 둥근 돛지붕 위로 어두움과 정적이 흐를 때면 넓게 붉은 황토빛의 아야소피아는 나그네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한다. 비록 인간의 귀로 알아들을 수 없긴 하지만.

아야소피아를 나온 후 이번에는 역대 술탄들의 궁전으로 쓰이던 토크피팔리스를 방문하였다. 그곳 역시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며 역대 술탄들의 때에 절은, 다 헤지고 빛바랜, 그리고 녹슬은 유물(소위 보물)들을 구경했다. 과거란 때에 절고 녹슬은 것. 그 과거 유물에 집착할 때 우리는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현재를 놓치게 될 것이다.

종교도 그러한 것은 아닐까. 교조의 가르침에 집착하여 그것을 절대절명의 도그마로 만들어 버릴 때, 그 종교는 땃국에 씨들은 빛바랜 우상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현재의 아름다운 삶을 놓치게 되리라. 삶이란 구체적인 것이며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생물인 것이다. 대신에 이론이란, 교리란

그 본질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이며 추상적인 것이며 과거에 속하며, 죽어 있는 것이다.

부처와 예수와 마호멧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때에 씨들은 과거의 유물로서의 종교적 관념적 이상과 인습을 파괴하고 생생한 현재를 아름답게 살다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추종자들이란 도리어 그들의 무덤과 관을 황금으로 꾸미고, 그들이 남겨 놓은 시체를 숭배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삶과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땃국에 절은 유물로 타락시켜버리고 만다.

유물들을 둘러본다. 어느 전시실에서는 소위 마호멧의 발자국 무늬가 새겨진 돌맹이가 진열되어 있었

다. 유리로 칸막이한 어둡침침한 한쪽 방에서는 한 나이든 회교 성직자가 앉아서 리드미컬한 음성으로 코란을 낭송하고 있었다.

이스탄불 거리에서, 전철 속에서, 그리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는 배 위에서 어디에서나 마주치는 깊고 검은 눈의 터키 사람들. 모스크에 들고나는 사람들의 경건한 태도. 무언가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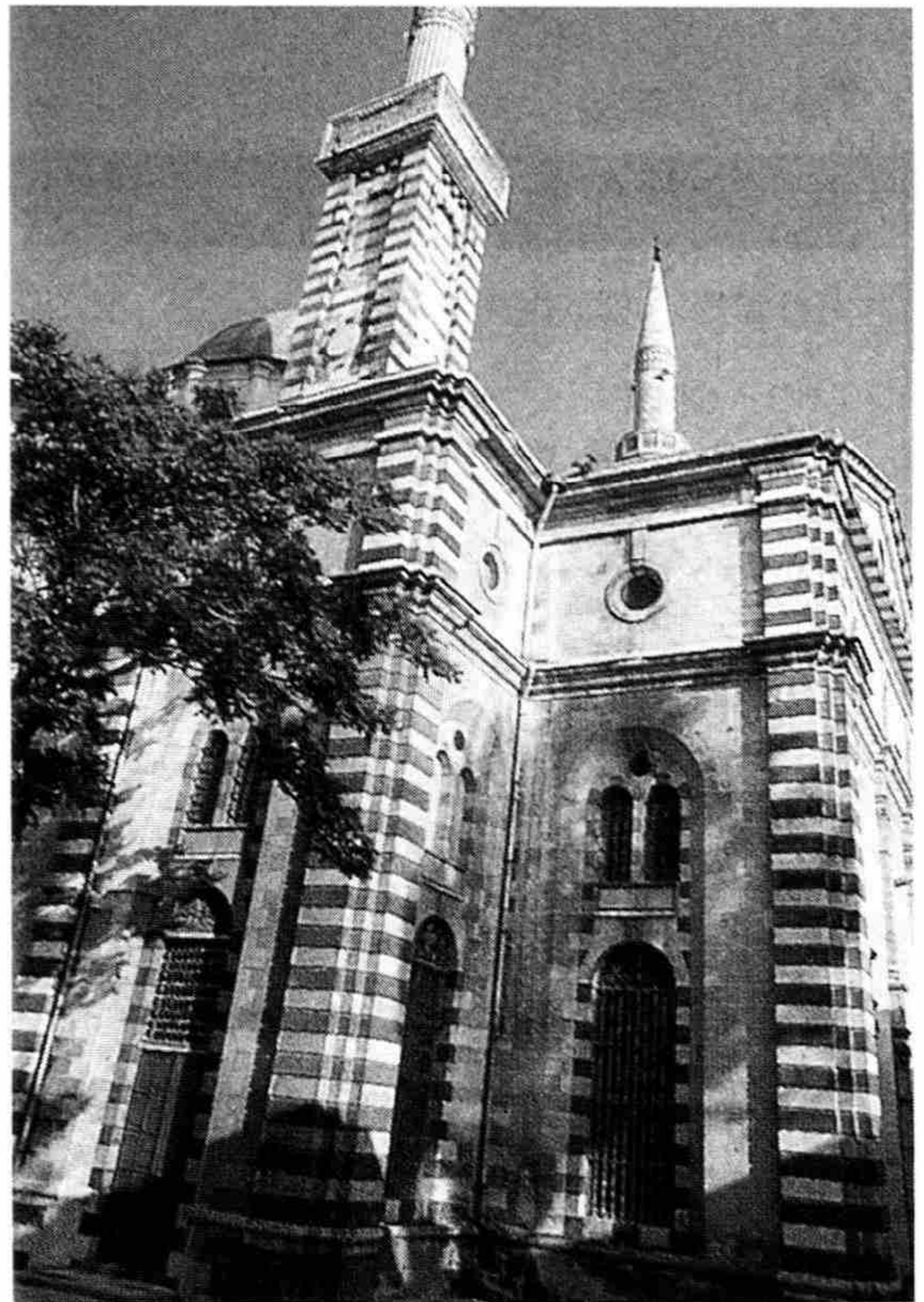
분하고 여유로운 몸짓과 표정들. 검은 콧수염과 구레나룻, 잘 생긴 얼굴들. 해협을 건너는 배 위에서 바라다보는 아시아와 유럽의 양쪽 언덕. 갈매기들이 배 뒤를 따르는 사이로 모스크의 뾰족한 첨탑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한다. 복잡한 시장의 와글거림 속을 지나며 나그네는 외로움을 느낀다. 무어라고 신나게 이야기를 해대는데 나는 이방인으로서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이리저리 떠밀려다니기만 한다. 마침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라 시장 한가운데 길을 막대차가 지나며, 노래와 후보자의 연설 녹음을 틀어댄다.

신발 닦으라고 손짓하는 열 살 정도의 꼬마아이. 합승차의 차장노릇을 하며 차 뒷범퍼 위에 기어 올라가 짐칸 문을 힘겹게 내리닫는 커다란 눈망울의 소년. 다떨어진 양말 틈사이로 달걀 같은 뒤통치를 시리게 드러내놓은 채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소년.

왜 이렇게 세상에는 그 끝까지 가보아도 병과 가난과 불행이 존재하는 것일까. 피지도 못한 어린 소년이 불구자가 된 채 구걸하고 있고, 한참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아이가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뗏목에 짙어 합승차 밖으로 작은 목을 내민 채 목이 터져라 행선지를 외쳐대고...

시장 안에 있는 베야지트모스크 안에 나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본다. 선 채로, 혹은 무릎 꿇고 한참을 앉아 있어 본다. 이윽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 본다. 수없이 늘어뜨려진 샹들리에 사이로 보이는 둥근 돛지붕 위에 아라베스크한 무늬들이 그려져 있다. 바닥을 내려다 본다. 붉은색 카펫이 모스크 안 전체에 온통 넓게 깔려 있다. 눈을 들어 앞을 쳐다본다. 정면 한가운데에 직사각형의 작은 至聖所가 마련되어 있었다.

바깥에 나와 나무 그늘에 앉는다. 광장에는 비둘기떼가 어지럽다. 조그마한, 아홉 살 정도의 아이



가 다가와 신발을 닦으라며 흰이를 드러내고 웃는다. 온 손과 얼굴에 새까맣게 구두약을 묻힌 아이다. 중년의 서양 관광객 남자가 아이에게 구두를 닦게 하고 거만하게 구두통 위에 발을 올리고 서며 포즈를 취하자 그의 부인이 열심히 사진기의 셔터를 눌러댄다.

맞은편에는 무척 가난하고 약간은 모자라 보이는 터키 총각이 맨발인 채 입을 벌리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모스크의 첨탑에서 다시 코란의 낭송소리가 터져 나온다. 또 기도 시간이 된 것이다. 지나가는 차들이 일제히 멈춰서고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가까운 모스크로 모여든다. 모스크 안이 좁아 미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자그마한 휴대용 카펫을 모스크 앞에 깔고 열심히 알라신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엉덩이를 치켜든다.

가슴을 쥐어 찌는 듯한 코란의 낭송소리는 여전히 하늘 향해 솟은 모스크의 첨탑 위로 흐르고 있다.

# 행각길에서

종지 / 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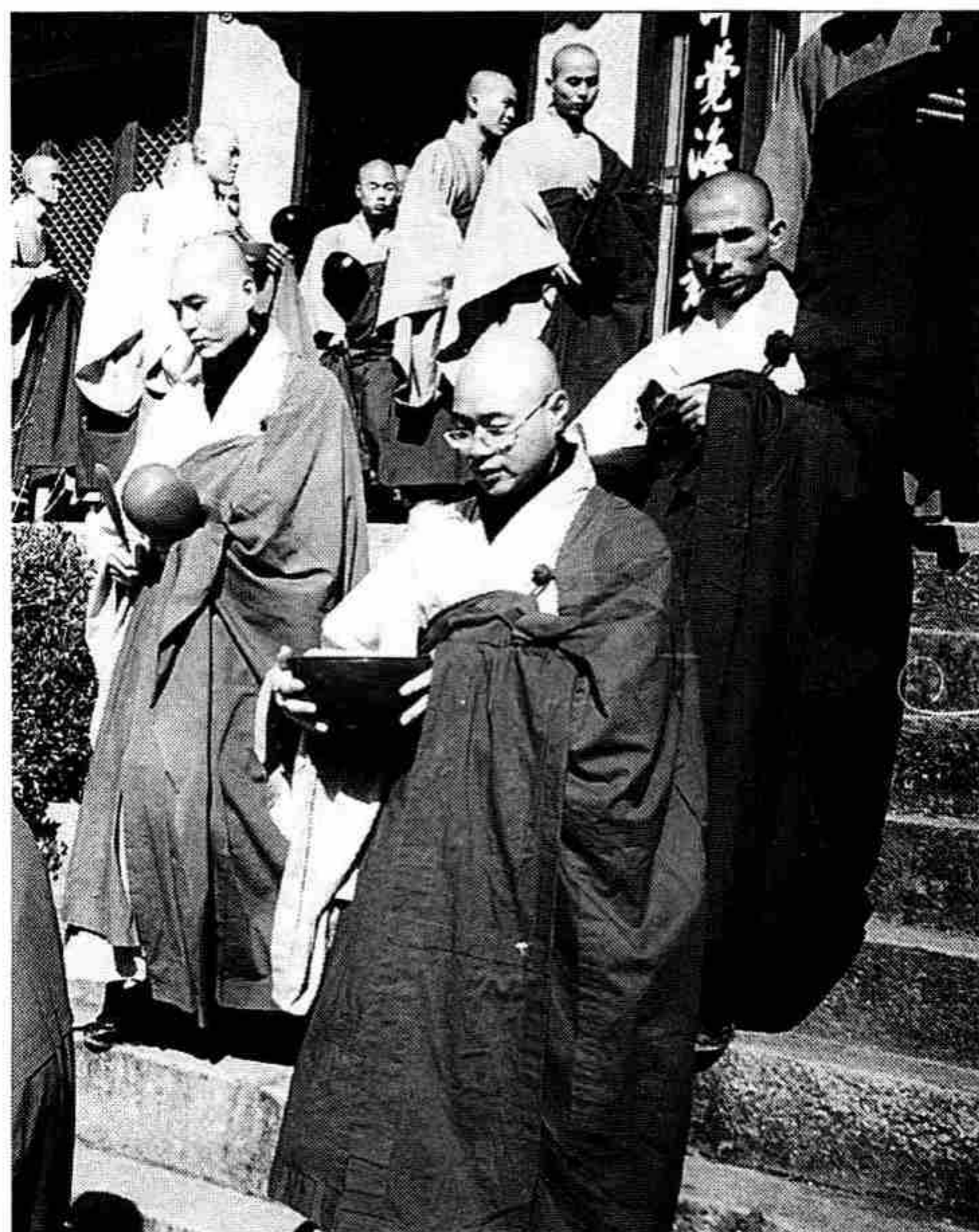
**동** 안거 해제를 맞이하여 강원 의전대중 스님들은 울주 스님과 강주 스님을 모시고 진주 의곡사로 향했다. 우리 강원대중들이 두번째 탁발길에 오른 것이다.

우리 불교사를 보면 여러 스님들께서 탁발을 하셨지만, 조선 말기부터 현재까지는 거의 그 맥이 끊겨 있는 셈이다.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신 두타행이건만, 시대와 생활환경의 변화, 그리고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 훌륭한 수행방법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가끔 서울 등의 대도시에 나가보면 지하철이

나 버스터미널 등에서 사이비 탁발 승려들을 볼 수 있다. 목탁도 제대로 못치는 한심한 이들을 볼 때 나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들은 몇 명씩 무리를 지어 조직적으로 그런 탁발행위를 하여 생업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소위 앵벌이 같은 형태의 직업으로 부처님의 옷을 빌려 입고 부처님의 법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우리 불교의 어두운 현실을 피

부로 느낀다.

버스는 어느덧 진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남강을 건너고 있고, 멀리 축성루가 보인다. 이번 탁발은 저번 광주 탁발에 이어 두번째이다. 특히 여러 대중이 한꺼번에 하는 탁발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TV 카메라 두 대가 탁발행렬을 따랐다. 우리 강원대중 스님들은 여법한 모습으로 진주시내로 들어갔다. 진주 의곡사 신도회에서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한 것 같다.



칠순이 넘은 듯한 노보살님께서는 우리의 행렬을 보고 삼배를 올렸다. 시장모퉁이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는 보살님, 어린 꼬마와 같이 가던 아주머니 등 진주 시민들의 따뜻한 불심에 힘입어 환희심 속에 탁발을 마쳤다. 탁발금은 통영에 사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심장병 수술비로 쓰여질 것이라고 한다. 우리 스님들도 해제비에서 얼마씩 꺼내어 수술비

에 보냈다.

나는 이런 순간에 출가자로서의 뿌듯함을 느낀다.

‘부처님, 대자대비로 못중생을 편안케 하여 주십시오.’

탁발을 마치고 나는 대중스님들과 헤어져 남해행 버스에 올랐다. 출가한 이후로 늘 남해 보리암을 참배하겠다고 생각해 오던 터이지만 이제 3년 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남해대교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온다. 보리암을 향하는 버스로 갈아탔다. 해는 바다 저편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장엄한 낙조는 금산을 비추고 있었다. 전후가 끊어진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총무스님을 뵈고 인사드린 후, 방을 안내 받았다. 저녁예불을 마친 후 500배 참회기도를 하였다. 법당문을 나서니 어둠이 내린 남해바다의 풍경이 보인다. 아랫마을의 깜빡이는 불빛들, 그리고 바다 중간중간에 흩어져 있는 고기잡이배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달빛과 잘 어우러진다. 나는 해수관음보살님 앞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걸터 앉았다. 밀려오는 파도소리와 거기에 부딪치는 나의 상념들, 그리고 여독이 밀려온다. 다음날 새벽예불 이후 네차례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삼일째 새벽예불로 삼천배를 마쳤다. 등산로를 따라 정상에 올라가 남해바다를 내려다 본다. 아침햇살을 받은 바다는 온몸에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수행자의 길. 이 길 위에서 나의 삶은 깨달음의 빛으로 장엄될 수 있을까?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내 구도의 여정을 넉넉히 가꿀 수 있을까? 다시 행각길에 나선다.

## 길, 무모한

회일 / 사교

언제나 길은  
더 나아갈 수 없는데서 시작  
되었다고 태연하게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면 태연하게  
죽을 수 있으리라 그 길의  
맨 처음으로 한 발자국 씩 내어딛으며  
온몸으로 퍼질러 오는 흔들림으로  
다시 한 발자국  
죽음으로, 아니 새로운 삶으로  
전이되어버린, 엽서 한 장으로  
소식을 등에 싣고서 흘러가듯  
새 발자국 남기리라  
지상의 가장 심원한, 침묵으로  
시간의 태엽을 맞춰놓고  
나아갈 수 없는 無의 공간을 딛는  
창조의 행위 — 길은  
더이상 없단  
단정된 삶을 뚫어버리는  
무모함으로.

# 편지

진경 / 대교



"○○가 ○○를 좋아한다. ○○와 ○○는 ○○한다"고 동네방네 담벽에다 분필로 써놓는 바람에 억울하고 창피해서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나 만큼 편지를 써보지 않은 사람도 드물 것이다. 출가 후에는 '수행 중에 속인과 서신왕래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들어서 합법적으로(?) 편지를 하지 않았고, 출가 전에는 글을 잘 못쓴다는 이유로 쓰지 않았다.

가끔 멀리서 온 정성스러운 편지를 받으면 어찌할 줄 몰라 찢찢매다가 답장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고 책상에 앉아서는 수없이 편지지만 찢고 구겨 밤늦게까지 씨름하다가 겨우 다 쓰고는 아침에 다시 읽어보고 쓰레기통에 버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편지받는

것이 즐겁기 보다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다.

편지에 얽힌 몇 가지 추억들이 생각난다. 국민학교 때 어떤 여학생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은 적이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그 여학생 동생이 와서는 누나가 주는 것이라면서 몰래 카드를 주고 갔다. 친구들이 보고 무엇이냐며 한번 보자고 해서 보여 주었더니 "○○가 ○○를 좋아한다. ○○와 ○○는 ○○한다"고 동네방네 담벽에다 분필로 써놓는 바람에 억울하고 창피해서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 소문을 내고 다니는 아이들보다



그 여학생이 얼마나 알미웠던지..., 물론 카드는 찢어버렸다. 지금 생각하니 그 여학생이 좀 조숙했던 것 같고 나는 철부지였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에는 친척누나의 친구에게 밤샘을 해가며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난 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그뒤로 그 누나를 피해 다녔다.

군대시절에는 내가 내무반장이었을 때 D대 국문과 2학년에 다니다 입대한 신병이 왔는데 글도 잘 쓰고 여자친구도 많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나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테니 펜팔을 해보라고 권하기에 내가 그 신병에게 대필해 줄 것을 '명령'하고 뒤에 앉아서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몇 번 편지가 오고 갔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만두었던 기억도 있다.

편지에 관한 기억들을 떠올릴 때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출가 후에는 가끔 신심이 돈독한 보살들로부터 안부나 불법에 관해서 묻는 편지를 받곤 하는데, 공부가 덜 되어서인지 무척 반갑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자책의 목소리가 들뜨는 감정을 가라앉힌다.

'진경아, 너 지금 뭣하고 있노? 네가 출가한 수행자냐? 정신 차려라, 이놈아!'

우리가 출가한 이유는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통제와 회광반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행자가 가는 길은 무소의 뽕처럼 외롭게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새로운 '인연'을 자꾸 만들기 보다는 지금 있는 인연을 하나하나 끊어버려서 궁극에 전혀 아무런 인연도 없어야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내 수준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불교교리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에 대해서, 참선에 대해서 ... . 어느 것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편지쓰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편지를 꼭 보내야만 할 때는 대신 책을 사서 보내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방세계에 고요히 울려 퍼지는 종소리 같은 '편지'를 꼭 써보고 싶다.



# 그림애 그리고 깨달음

정  
목  
／  
사  
교

가다가 문득문득  
가슴 하나 월척 안기는 그리움  
해바라기 숨길처럼 확확 달아  
가을 석양 들길에 멀리선다

애달픈 이 思慕를  
혼자 고이 지닌 채 이 생을 마치오리까?  
임아. 진정 아닌 척 그대로 가야 하리까?  
살아 한번 그 가슴에 하소할 길 없어-

김 달진 '임의 모습' 중에서

**깨** 달음을 향한 길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린 앞의 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구도의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그리움은 때로 아리도록 파고듭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처절한 갈망이기도 하며, 채 사그러지지 않은 업연의 피어남이기도 하여 마치 나그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처럼 이중성을 띤 하나입니다.

그러한 그리움 때문이라 여겨지는 일이 있었답니다.

몇 해 전 밤새 몽기몽기 서린 어둠을 거두어내며, 목탁소리로 도량신과 산천초목을 깨우고 청아한 음성으로 정(靜)에서 동(動)을 일구는 시간. 웬지 그 날은 청아하고 고즈넉한 염불 가락 대신 “오늘도 걷는다는 정처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 고인다” 로 시작되는 ‘나그네 설움’ 이 도량을 장엄하더니, 그 스님은 일주문에 놓아두었던 걸망 하나 둘러메고 새벽 바람결에 떠났더랍니다. 아마 그리움으로 꼬박 밤을 지새우고, 그리움과 하나가 되고자 바람의 친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듯 바람과 구름을 따라 홀로 흐르다보면 그리움과 외로움은 도반이 되어 참으로 애달픈 思慕曲을 부르게 하고 마음을 여리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수행자를 경책하십니다.

“어느 곳이든 가고 싶은대로 가거라  
해치려는 마음을 갖지 말고

무엇을 얻든 그것으로 만족해 하라  
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 42 -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길은 생사를 걸고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고 묵묵히 참고 가야 함을 알면서도 다겁생래 지어 온 업장 탓으로 혼자라는 것이 감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비록 곁에 함께 정진하는 도반이 있다 해도 결코 이 길에서는 홀로일 뿐 결코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밥을 나누어 먹을 수는 있을 망정 대신 먹어줄 수는 없는 것처럼.

나는 본디 그리 굳센 마음이 아닌 탓인지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아파했던 듯합니다. 왜냐하면 출가전 무상, 무아, 고에 대해서 다문(多聞)으로 이해는 했지만, 실제적 체험이나 수행이 별로 없던 상태에서 이 길이 마냥 좋아보였고, 한창 대학가를 휩쓸던 민중 사상에 어설픈 입처(立處)를 두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적, 구체적 실현이라는 점에만 뜻을 두었을 뿐, 내면의 철저한 성찰과 자력적인 피나는 구도를 통한 완성임에는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 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세속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세속일을 옮겨 놓은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기에.

그래서 출가 후 얼마간은 말뚝 신심과 무엇인가를 해야된다는 의지로 차 있었기에 그리움이란 몰랐지만, 종단의 별 바람직하지 않은 흐름에도 눈을 뜨게 되고, 그 속에 처한 자신의 역량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괜히 별 능력도 없

으면서 망상만 피운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시은(施恩)만 축내고 지옥가기 십상이니 어쩌할꼬’ 하는 생각 중에서 그리움도 많아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출가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고, 잘난 것 없이 아상만 높고 능력은 없었던 탓에 가족을 제외하고는 깊은 인연을 심어놓고 온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연에 대한 그리움도 일었습니다.

하지만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음을 출가라 한다”라 옛 스님은 말씀하셨기에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자책 속에서 그리움은 괴로움이 되고 괴로움의 육신의 고통으로 다가서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10만 8천리 밖의 일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용기도 없었기에 밤마다 삼경 후에는 땀이 흠뻑 나도록 절도 해보고, 간경도 목이 잠기도록 해보기도 하고, 계곡에 가서 물소리와 겨루며 고성염불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 신심 장한 초참자로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자신은 그리움에서 헤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택일까. 그해 가을에 더 쓰라린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움의 대상마저 완전히 저 편으로 떠남을 보면서도 괴로하긴 했지만 담담히 그 과정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따금 “스님들은 산 좋고 물 좋고 바람 맑은 곳에서 세상 일에 찌들리거나 매달릴 필요도 없이 사시니 참 좋으시겠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우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런 말도 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바꾸어 살아보실까요. 아직 고향에 이르지 못하고 길 가는 이에겐 남모르는 어려움과 갈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들에게 고민으로 여겨지지도 않을 수 있는 일들이 이 길에선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 시지프스 신화의 주인공처럼 산 정상으로 바위를 굴러올리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삶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눈물겨움을 얻

영명연수 스님은 종경록(宗鏡錄)에서 마음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셨는데, 첫째는 연려심(緣慮心)으로 경계를 쫓아 일어나는 마음으로 본래 자체가 없이 정(情)을 따라 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둘째는 상주진심(常住真心)으로 변화함이 없는 자성청정(自性淸淨)한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나 이해하시는지요. 때로는 연비(燃臂)나 소신(燒身) 공양까지 올라가며 헤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짐작이라도 하시는지요. 그리움이 너무도 깊어 마음만으로 안되기에 육신 사루어가며 하나가 되려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설사 그렇



게는 못해도 그런 충동 속에서 괴로워하는 걸 아시는지요.” 라고.

그런데 이 그리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영명연수 스님은 종경록(宗鏡錄)에서 마음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셨는데, 첫째는 연려심(緣慮心)으로 경계를 쫓아 일어나는 마음으로, 본래 자체가 없이 정(情)을 따라 나고 사라지는 것이고, 둘째는 상주진심(常住真心)으로 변화함이 없는 자성청정(自性淸淨)한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리움을 비추어보면 세연에 대한 그리움은 연려심에서 비롯된 것이요, 다른 하나의 그리움은 저 상주진심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고보면 이 그리움이 전자는 밖을 향하고 후자는 안을 향하여 방향만 틀릴 뿐 본래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심이 된다면 이 향하는 마음을 없애고 상주진심의 구현이기에, 우선은 본향(本鄉)으로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품음이 한결같은 정진을 가능케 하고 본향으로 안내하고 본향을 찾게 해 줄

것입니다.

힘든 상태를 넘어서고, 경전을 대해 갈수록 부처님의 참다운 뜻에 이전의 제 소견을 비추어보니, 다만 알음알이로 빛은 좁은 소견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윗 스님들의 경책을 들

어가면서 몸으로 체득하며 이제 한 해 두 해 넘기다 보니, 송광사 도량은 세연의 그리움을 대부분 본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꾸어주었습니다. 두 겹으로 둘러싸여 답답하기만 했던 도량 공간도 오히려 넉넉하게 품어주는 것이 너무도 편안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동안거는 커다란 굴곡없이 본래 나그네로서 날 수 있었습니다.

산사의 햇살이 따사로와 이 봄, 다시 새싹처럼 그리움이 돌아난다 하여도 이제는 두 그리움이 둘이 아닌 본래 하나임도 알 듯하기에 그 그리움마저도 어두운 밤하늘 별빛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자에서 사미로

보안 / 치문

**행자복**을 벗은 지 겨우 몇일 밖에 되지 않았다. 새로운 탈바꿈. 행자에서 사미승으로, 굶뱅이가 매미가 되듯 사문이 되기위해 행자교육을 받기 위해 통도사에 가서 삼칠일간 정진에 들어갔다. 전국 사암에서 온 여러 행자들이 십대에서 오십대까지 한방에서 강의를 듣고 발우공양, 독경, 습의, 예불을 드리며 그 순간 거기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보냈는 지도 모르게 우리들의 사이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오후 불식은 좋은 경험이었다. 여지껏 세 끼니를 찾아 먹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누가 오후불식을 하네 해도 그것은 단지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오후불식을 하게 되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라 달갑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서는 일종식을 하셨는데 한끼 줄여도 이종식이라는 말에 수순할 수밖에 없었다. 대웅전 뒤에 있는 진신 사리탑을 일보일배하며 열을 지어 하나가 되어 지심귀명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면서 돌았다. 사미율의, 보현행원품, 불유교경, 초발심자경문 등 오전 두 시간 오후 한 시간 강의를 들으면서 알송달송하던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도 좋은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 다행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회향 몇일을 앞두고 했던 삼보일배는 그 거리를 어떻게 절을 하면서 전진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있었는데, 부도앞을 지나고 일주문에 들어서고 사천왕문을 지나고 대웅전 앞을 지나 사리탑으로, 그리고 사리탑을 두 바퀴 도는 것으로, 신심의 발현인지 멋모르고 대중에 휩쓸렸는지 아무튼 삼보일배를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시험과 삼천배라는 두 관문이 교육행자들 앞에 놓여있다. 그러나 한 명도 낙오자 없이 무사히 끝냈다. 끝낸 후의 죽 한 그릇은 입으로 돌아가는지 코로 돌아가는지 모르고 먹어댔다.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듯 하지만 겪은 사람은 다르리라. 수계를 하고 아니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닌것 같다. 수계는 단지 형식일 뿐 내게 어떠한 울가미로 작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자로 사는 것이 나의 바램이므로...



편지

## 통영에서 온 편지

보철 / 통영 용화사

스님, 바람이 무척 차갑습니다. 통영은 바닷가라 바람 많은 곳인데 조계산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눈으로 뒤덮혀 있는지? 사뭇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지나갑니다. 잘 지내죠?

저는 솔직히 참 고달퍼요. 사바세계라 그런지 많은 인연들에 시달립니다. 군대에서도 그냥 뭐 '중대장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 며 뒤에서 중대장 비방이나 하고 또 진짜진짜 없어졌으면 속 시원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모든 군복무하는 이들의 생각이 아마 그럴거예요.

고향에서 군 복무를 해서 그런지 가끔씩 친구들 휴가 나오면 같이 어울리고, 더러 후배들과 만나고, 또 어린이 법회 선생님들과 가끔씩 대화하는 이 모든 것에 충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다 지내고 보면 無常하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산속에서만 살고 아무 인연 없이 오직 진리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보면 다 입장차 인 것 같아요. 산속에서는 마실을 생각하고, 또 마실에서는 산을 그리워 하는 것들, 수행자는 중생의 아픔을 생각하고 또 중생은 수행자들의 눈푸름을 생각하는 것도 말이죠.

엇그제 어린이 법회 학예발표회를 했어요. 미래사 여진 스님과 용화사의 저하고 같이 힘을 합쳐 처음으



로 합동 학예회를 했어요. 어찌나 애들이 잘하는지 유치원생, 국민학생들을 우리는 어린이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들의 스승이 어린이들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눈동자가 곧 부처님의 눈빛이겠죠. 제가 가르치던 애들 중 큰애들은 중학생도 되고 또 고등학생도 되고 그랬어요. 저는 아무 것도 변한 것 없이 지낸 것 같은 데 커가는 애들을 보면 나도 나이를 먹는 것 같아요. 진짜로 속나이를 먹어야 되는데 말이예요.

1월 초순 경에 2박 3일 간 휴가를 받았었어요. 송광사 가서 은사스님 뵙고 도반스님도 뵙고 그러려고 했는데, 웬지 이번만큼은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제주도 갔었어요. 멀리 간다고 갔는데 먼 곳이 아니더군요. 거기서 학교 선배도 보고 마침 학교 때 친구가 제주도에 와 있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뒤돌아서자 황하니 그냥 바람만 불었습니다. 진짜 멀리 가고 싶었는데, 我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가고 또 해매인다 하더라도 결국……. ‘나를 잊어버리고 진정한 무아가 되는 것이 나를 벗어나지요 또 나를 되찾는 것이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스님에게는 죄송하군요. 찾아뵙어야 했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가 무척이나 어려워요. 속세라 속세사람들과 사는 것이 고달프기도 하지만 또 많이 정감이 있는 곳입니다. 다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곳이니깐요. 그럴수록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스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침묵임을 압니다. 그 침묵의 완전함을 위해 우린 그토록 부질없는 언어의 사용과 언어의 모순과 언어의 도단을 사용해야 함을 알고요 비록 공이기는 하지만 말이예요.

항상 ‘화두’ 챙기는 마음 잊지 마시기를 기원하고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랄게요. 제 가슴은 언제나 그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지 2539년 어느날

용화사에서 보철 합장

# 도반 스님에게

도선 / 사집

해만 스님!

쭉이며 냉이같은 상큼한 봄나물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봄 햇살이 무척 따뜻하군요.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아랫마을의 푸른 보리밭을 스쳐지나 산사로 불어오는 바람도 이제 한결 순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멀리 양지 바른 언덕에서 쭉을 캐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스님,

보내 주신 편지 고맙게 잘받아 보았습니다. 큰스님 회상에서 건강히 잘계시다니 무척 기쁘군요.

조용한 송광사를 떠나 시끄러운 도심지에서 생활하는 재미가 어떠신지요? 주변이 다소 산만하겠지만 아득히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좋은 도량에서 멀리 파도소리 벗어나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가끔씩 대웅전 뜨락을 내려와 남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속에서 영원을 향해 그윽이 미소짓고 있을 스님을 떠올려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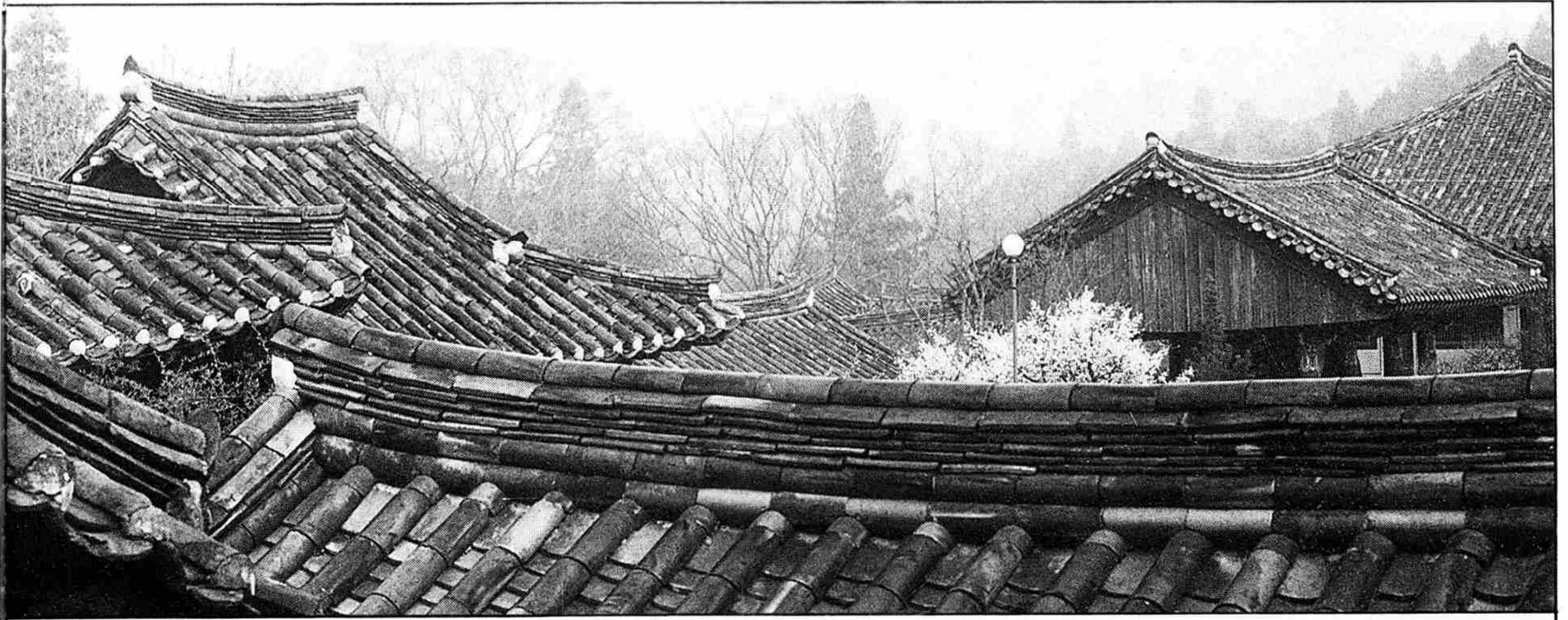
스님, 가끔은 송광사의 봄소식이 그리워진 아니한지요? 며칠 전 오도암으로 대중 스님들과 함께 공차러 가는 길에 산골짜기 여기저기에 연분홍 진달래가 피어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깊은 산속에는 이름모를 들꽃과 어린 생명들이 철마다 새롭게 피고지기를 되풀이하면서 무정의 설법을 들려주고 있음에도 언제나 바깥으로만 향하는 일상의 생활에 마음을 빼앗겨 무심히 피고지는 들꽃 한 송이에도 나름대로의 삶의 질서와 진리가 있음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나 봅니다.

수행자는 언제나 흐르는 물처럼 새로워져야만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제의 고정관념들에 집착하여 사물을 새롭게 보질 못하고 있는지요? 우리들의 삶이 흐르는 물처럼 늘 새롭게 깨어있을 수 있다면 부딪히는 것에서 자유로와질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진정 어제의 그 햇살이 아니고 어제의 그 바람이 아니군요.

공부가 재미있어 늘 즐겨하던 포행도 줄여가면서 정진해도 힘든 줄 모르겠다는 스님의 글을 읽고나니 문





득 파도 잔잔하고 바다내음 물씬 풍기는 남해안의 봄 바다를 바라보는 듯해 무척 즐거웠습니다.

스님!

이곳 조계산 주변에도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종고루 옆 매화나무에는 지금 매화꽃이 한창이고요, 또 도성당 산수유나무 가지에도 여린 새싹들이 파란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이던가요. 매화꽃 피는 봄이 오면 환한 달빛 아래서 매화꽃을 바라보며 차 한잔하자던 그 율원 스님은 지금 안 계시고 매화꽃은 부풀대로 부풀어 그 맑은 향기를 봄바람에 실어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봄바람의 유혹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숲속 한가운데 있는 호수처럼 늘 조용하고 한가로와 수행하기 더없이 좋은 송광사를 떠나 저 파도 거칠고 힘들다는 해인의 바다 속에 들어가 그 속에서 부단히 자신을 단련해 보고자 했던 철새같은 봄바람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푸르름으로 물들어가고 아침마다 안개 가득히 내려앉는 조계산의 봄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국사전의 많은 영정을 도난당해 전체 대중이 신중 기도를 드렸을 때 밤10시 넘어 가사장삼을 수하고 조용히 법당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절하시던 은사스님의 그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앞에 차마 다른 곳으로 가서 공부하러 가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 그냥 떠난 것이 늘 마음을 무겁게 했는데, 다시 스님을 모시고 살 수 있어서 또한 기쁩니다.

자연의 무한한 혜택이 이름없는 작은 풀 한포기에 이르기까지 가득한 봄날, 봄 햇살속에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들판의 새싹들처럼 부처님을 향하여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더욱 푸르고 환희심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따뜻한 오후의 봄 햇살에 정신이 팔려 그만 쓸데없는分別심만 늘어놓았군요  
공부 순속하시길 빌겠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4월에 ...

# 바 위

도제 / 사집

내 죽으면 한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년 비정의 함묵에  
안으로  
안으로  
채찍질하여  
드디어  
흐르는 구름  
머언 원죄 꿈꾸어도  
두쪽으로 깨뜨려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 유치환 -

**느** 이런 바위가 되리라던 나는 바위처럼 살기 위  
**른** 해 조계산 송광사로 출가했다. 출가하던 그  
해는 눈도 많이 내려 조계산이 온통 하얗게 뒤덮혀  
있었다.

그 무렵 이른 새벽에 혼자 일어나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을 쓸 때의 시리게 맑던 기억이 새롭다.

요즘 들어 삼경 이후에 대웅전 뜰앞에 핀 매화를 보  
러가곤 한다. 달빛에 비쳐 하얗고 뽀얀 살갓을 드러  
낸 티없는 매화를 들여다 보자니 나도 모르게 출가  
무렵의 내 모습이 떠오른다. 청바지와 티셔츠, 그리  
고 흰운동화, 남은 돈이라곤 이천원 밖에 없었다. 사  
미계를 받은 후에 노란봉투에 담겨진 그 이천원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아무래도 그때의 내 모습은 너  
무나 청순했던 것 같다. 달빛에 비친 매화송이처  
럼...

6일 간의 면벽과 7일째의 삼천배!

사자루에서 삼천배를 할 때의 내 감정은 아직도 생  
생하다.

... 2998, 2999, 3000!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후들  
거리는 두다리와 뺨을 타고 흘러내리던 굵은 눈물,  
그때 나는 이렇게 다짐했었다.

“부처님이시여! 맹세코 수행자다운 수행자, 스님다  
운 스님이 되겠습니다.”

출가자가 아니라면 그때의 내 심정을 헤아릴 수 없  
을 것이다.

조계산 자락에 연두색 물감이 번지는 이즈음 대웅  
전 뒷담 밑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울고 있다. 어미를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짝을 잃었는지 알 수 없이 계  
속 울어댄다.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하도 슬프게 들

려서, 어떻게 생긴 놈일까 하고 바싹 다가가서 보려 해도 통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참 답답하기만 하다.

어렸을 때 시골 논두렁을 지나가면 개구리들이 앞다투어 논배미로 뛰어들곤 하던 정경이 떠오른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모습을 통 볼 수가 없다. 왜냐면 개구리가 몸에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잡아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절에서 듣는 이 개구리 소리가 신기하게 들릴 정도다.

대웅전에서 저녁예불을 마치고 나오면서 듣는 개구리 울음소리는 차라리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웬지 슬퍼지기도 한다. 개구리의 처지를 생각해서이다. 나는 두손을 모으고 한참동안 이 개구리에게 마음속으로 축원을 한다.

‘개구리여! 그대가 지금은 비록 하찮은 미물로 태어났지만, 내생에는 꼭 사람 몸 받아지이다.’

소리가 부드러우면 메아리도 순하고  
모양이 곧으면 그림자도 단정하다.  
인파가 또한 그러하니 어찌 근심하고 두려워 하지  
않으리요.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가령 백천 겁이 지나도 지은 바 업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이 되어 만날 때에 도리어 그 과보를 스스로  
받으리라.

위산대원 선사의 말씀이 이러한데 내 어찌 방일하고 한가롭게 지낼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가.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영원하지 않다. 방일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행자 때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정진! 정진! 정진하자!

나는 두손을 모으고 한참동안 이 개구리에게 마음속으로 축원을 한다.  
‘개구리여! 그대가 지금은 비록 하찮은 미물로 태어났지만, 내생에는 꼭 사람 몸 받아지이다.’



# 치문반과 고양이

선용 / 사집

“잡아라 잡아!  
후다닥 펍?  
아니 잡으랑께 놓쳐부렸어 야?  
글씨 요놈이 이젠 날아다니네요 잉 -  
고놈들이 또 들어 왔어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대자대비심, 대하심 등을 언 제나 가슴속 깊이 새겨 둔 스님들이 모여 사는 치문 반의 하심 테스트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 이다. 알미운 고양이들은 처음엔 외곽 지역부터 자기 영역을 오물로 일방적으로 표시를 해왔다. 요즘 같이 추운 때 드디어 벌집을 쑤시고자 원력을 세웠는지 얼마 전부터는 물불을 안가리고 차담 개선을 위해 아예 지대방으로 뛰어드는 요놈들의 행동은, 드디어 일부 신경이 예민한 스님들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

처음에는 마루 밑에 먹을 것을 떼어놓기도 하 고 여러가지 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헛수 고였다. 결국 여러 스님들은 한계를 느끼 고 점점 무신경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껴먹으려고 윗반 스님들 몰래 감춰둔 얼마 안되는 차담을 고양이가 먼저 살짝 맛을 본 것이다. 우리 스님들은 마구

니를 조복 받으려는 자비심을 발휘하여 여법하게 정진 또 정진 그렇게 몇일을 살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웬지 이상했다. 점점 느낌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듯 하더니 마침내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다.

괜히 이유없이 속이 미식미식하고 얼큰한 것이 먹고 싶고, 실갓이 가렵고 하여튼 증세가 가지가지였다. 부랴부랴 대책반을 구성하고 반공사를 하고 강경파, 온건파, 눈치파 등으로 나뉘어 의견이 분분하였다. 해괴망칙한 방법과 기발한 아이디어, 반짝 지혜가 속출했다. 결론은 살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멀리 퇴방 조치하자는 것이었다. 보는 즉시 쫓아 내도 소용이 없고, 그때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달아나 버릴 뿐이었다. 그리고 녀석들은 동물적인 감각이 뛰어났다. 청각, 후각은 물론이 고 고양이과 짐승들의 천부적인 운동신경, 그리고 스님들을

약올릴 수 있는 꼬리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녀석들은 사륜구동이였다. 절에서 오래 살아서 인지 사람들과 많이 익숙해져 있었고 무척 약아져 있었다.

날이 갈수록 사태가 별 진전이 없자 스님들은 거의 포기 상태에 다다랐다. 문단속만 잘하자고 서로를 위로하였다.



이 알미운 고양이에 대해서 모두가 무심해졌을 때 꺼림직한 일이 하나 생겼다. 고양이 한 마리가 법당 옆에 죽어 있는 것이었다. 병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동물에게 물려서 죽은 건지 확실하지가 않았다. 이유야 어찌됐건 도량안에서 고양이의 주검이 발견되니 기분이 좋지 않았다. 도반 스님이 양지 쪽에 묻어 주고 천도시켜주자고 했다. 그래서 목탁을 들고 가보니 벌써 청소하시는 처사님이 쓰레기장에 버렸단다. 쓰레기는 불타고 녀석은 한줌 재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갔다.

나무아미타불……

그날 사시에 지장전에서 49재가 있었는데, 나는 속으로 고양이의 영가도 같이 천도되길 빌었다.

한때는 미워서 돌 던져가며 쫓아냈던 녀석의 죽음 앞에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된다. 죽은 고양이 말고 몇 마리가 더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치문반과 고양이와의 관계는 작년 겨우내내 우리가 좀 야박하게 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집반으로 올라가니까, 새로 오는 치문반 스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치문반 스님들! 동물을 사랑하세요.

그게 뭘니까? 스님들이 말이야,

자비심이 있어야지 … 찻찻.”

그러나 강원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사집반에 올라가도 그 지대방을 그대로 쓰게 될 가능성이 많다. 도반 스님들, 전 이제 이 글을 마침과 동시에 고양이를 괴롭히지 않으렵니다. (내가 제일 늦게 이런 생각을 했나?)

고양이들아, 어서 빨리 좋은 인연 만나기 바란다.

이젠 괴롭히지 않을게…

한때는 미워서 돌 던져가며 쫓아냈던 녀석의 죽음 앞에서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된다. 치문반과 고양이와의 관계는 작년 겨우내내 무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좀 야박하게 군 것도 사실이다.



# 『해청당』 후원자를 모십니다

『해청당』은 기획에서 워드, 교정, 사진, 삽화, 편집, 디자인까지 오로지 학인의 손으로 하고, 인쇄만 외부에 맡기고 있지만, 매호 200여 만원의 경비가 듭니다. 보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학인이 부담하기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혼탁한 시대에 한 점 수행의 향기를 전하고자 시작한 『해청당』이 깊이 뿌리 내리고 알찬 깨달음의 열매를 맺어 모든이에게 나눠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번호로 입금하시고 『해청당』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해청당』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1676 - 0016222-12

예금주 : 강정신

541 - 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송광사 불교전문강원 『해청당』 편집실

☎ (0661) 53 - 2133

## 후원금 보내주신 분들

현봉(광원암), 지현(부산 관음사), 청운(삼교 영각사), 보경, 덕운, 수연, 도안, 김민정, 진효숙, 고영만, 정미숙, 김영미, 이수인, 박미정, 이형직, 김순희, 윤태환, 정웅, 채영심, 장삼규, 김종우, 김재규, 진주불교청년회, 광영기, 황부경, 류인석, 이명자, 정혜정, 허지현화, 이예선, 이명미, 김명희, 전희진, 노동한 그밖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스님과 신도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해청당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2539년 송광사 불교전문강원 신·편입 방부 안내

2539학년도 송광사 불교전문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b>방부받는 반</b>	치문반 .....	○○ 명
	사집반 .....	편입 ○ 명
	사교반 .....	편입 ○ 명
	대교반(80화엄) .....	편입 ○ 명

<b>자격</b>	치문반 : 사미계 수계자
	사집반 : 치문 수료자
	사교반 : 사집 수료자
	대교반 : 사교 수료자

<b>제출서류</b>	방부원서 .....	1 부
	은사스님 추천서 .....	1 부
	승적사본 .....	1 부
	주민등록등본 .....	1 부
	건강진단서 .....	1 부
	수료증 (편입생) .....	1 부
	사진 (3×4) .....	3 매
	방부금 .....	20만원

**준비물** : 대가사(비구) · 만의가사(사미) · 장삼 · 발우  
**전형방법** : 서류, 면접  
**방부기간** : 2539년 3월 31일 ~ 5월 10일 (양력)  
**문의처** : (0661) 53-2131, 53-2133  
 (전남 순천시 송광면 12번지)

송 광 사 불 교 전 문 강 원



### 滌珠堂

마음의 맑은 바탕 淸淨摩尼 寶珠같이  
 닥그고 안닥글 것 없을 법도 하다마는  
 五濁에 더럽혔으니 닥가야만 하니라

### 洗月閣

마음의 밝은 빛을 無明 구름 뒤덮으니  
 四相山 衆生들이 어둠속에 헤맨구나  
 저 구름 거들 작시면 三千大千 밝는 걸

☐인암스님의 송광사 순례시조집 중에서☐

척주당과 세월각은 불법에 인연이 없던 영가의 위패를 하룻밤 모셔두어 도량신장에 대한 두려움을 풀어주던 전각이다.